

2022년

명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 명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 일시: 2022년 7월 8일(금) 10:30~17:20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ZOOM(ID: 819 8041 8495 / PW: 107586)
- 주최: 명청사학회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2년

명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 명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 일시: 2022년 7월 8일(금) 10:30~17:20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ZOOM(ID: 819 8041 8495 / PW: 107586)
- 주최: 명칭사학회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연합학술대회 일정\_2022년 7월 8일(금)

- 주제: 명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

개회식

10:30~10:40 개회사 | 이준갑(명청사학회 회장)

10:40~10:50 축사 | 서인범(동국대 문화학술원장/HK+사업단장)

10:50~11:00 장내 정리 및 휴식

1부 발표

사회 | 임경준(동국대)

11:00~11:40 【제1발표】

對馬宗家の '10만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

발표 | 이해진(동국대) / 토론 | 정성일(광주여대)

11:40~12:20 【제2발표】

明代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과 담배 유행

발표 | 김현선(동국대) / 토론 | 이상훈(한양대)

2부 발표

사회 | 권기석(동국대)

14:00~14:40 【제3발표】

海澄에서 廈門으로 : 16~17세기 복건 해외무역 창구의 변화

발표 | 채경수(경상국립대) / 토론 | 남민구(동국대)

14:40~15:20 【제4발표】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발표 | 김성수(서울과기대) / 토론 | 이선애(경상국립대)

15:20~16:00 【제5발표】

청대 만주 사회의 족보 편찬 문화 전래와 의미

발표 | 김준영(충남대) / 토론 | 안광호(고전번역원)

16:00~16:20 장내 정리 및 휴식

16:20~17:20 【종합토론】

좌장 | 이화승(서울디지털대)

발표자·토론자·방청객



# 목 차

## 【제1발표】 이해진(동국대)

對馬宗家の '10만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 ..... 13

토론문 | 정성일(광주여대)..... 29

## 【제2발표】 김현선(동국대)

明代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과 담배 유행 ..... 35

토론문 | 이상훈(한양대)..... 51

## 【제3발표】 채경수(경상국립대)

海澄에서 厦門으로 : 16~17세기 복건 해외무역 창구의 변화 ..... 55

토론문 | 남민구(동국대)..... 73

## 【제4발표】 김성수(서울과기대)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 77

토론문 | 이선애(경상국립대)..... 95

## 【제5발표】 김준영(충남대)

청대 만주 사회의 족보 편찬 문화 전래와 의미..... 99

토론문 | 안광호(고전번역원)..... 123





**【제1발표】**

**對馬宗家の '10만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

이해진(동국대학교)



# 對馬宗家の '10만 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

이해진(동국대)

1. 들어가며
2. 쇼군 靈廟의 銅燈籠 현상과 '10만 석 이상 격'
  - (1) 1680년 家綱 靈廟의 銅燈籠 현상
  - (2) 1709년 綱吉 靈廟의 銅燈籠 현상에 대한 對馬藩의 청원
3. '조선에 대한 체면(外聞)'
  - (1) '朝鮮御用老中' 土屋政直의 개입
  - (2) 청원의 수락
4. '朝鮮製' 銅燈籠의 이력과 그 의미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이른바 '막번제(幕藩制)'라는 표현으로 규정되는 에도시대 일본의 정치구조 속에서 쓰시마번(對馬藩)은 특수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쓰시마번의 실제 고쿠타카(石高)<sup>1)</sup>는 1만 1837석(石)이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 '10만 석 이상 격'을 자칭하였다. 더욱이 에도시대에 민간에서 간행된 다이묘 명부인 『부칸(武鑑)』에도 쓰시마의 소(宗) 가문은 1699년까지 '2만 석 격'으로, 그 후에는 '10만 석 이상 격'으로 기재되었다<sup>2)</sup>.

쓰시마번이 자칭한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家格)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통교를 관장하고 있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외국에 대한 체면상 필요로 하였던 격식<sup>3)</sup>' 혹은 '외교상의 격식<sup>4)</sup>'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더욱이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는 소 가문이 맡아왔던 '조선 제어의 역(朝鮮押えの役)'에 상당하는 급부로서 영지로부터의 이익과 조선 무역의 수입을 더한 '10만 석 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sup>.

1) '고쿠타카(石高)'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인 다이코 검지(太閤檢地) 이후, 각 토지의 생산량을 쌀의 단위인 고쿠(石)로 환산한 수치를 뜻한다. 에도시대에는 각 촌락의 생산량, 다이묘나 무사의 영지 규모도 고쿠타카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鶴田啓, 「近世大名の官位叙任過程 : 對馬藩主宗義倫、義誠の事例を中心に」, 『日本歴史』577, 1996, 65쪽. 쓰시마 섬은 검지(檢地)를 실시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고쿠타카가 0석이었으며, 소 가문은 규슈(九州) 북부의 다시로령(田代領) 1만 1837석(1711년 이후 1만 3400석)만을 막부에 신고하였다.

3) 田中健夫, 「鎖国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関係」, 『中世対外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1965 초출), 250쪽.

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138쪽.

그러나 근래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의 성립과정을 검토한 연구들은 해당 개념이 외교 혹은 무역과의 관련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쓰시마노쿠니(對馬國)<sup>6)</sup> 전역을 지배하는 '구니모치 다이묘(國持大名)'<sup>7)</sup>에 해당하였던 소 가문이 그 지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고쿠타카를 지니고 있었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창출해 낸 나름의 논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up>8)</sup>. 후지자네 구미코(藤實久美子)<sup>9)</sup>와 고가 나오미(古賀直美)<sup>10)</sup>의 연구는 1699년에 쓰시마번이 『부칸』에 기재된 가격('2만 석 격')의 개정을 출판자 측에 의뢰하여 1702년 판본부터 '10만 석 이상 격'으로 개정한 사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두 연구는 각각 쓰시마번의 편찬 사서인 『宗氏家譜略』의 엔포(延寶) 8년(1680)과 동 6년(1678) 기사 내용을 통해 쓰시마번이 막부에 대한 헌상을 통해 선례를 만듦으로써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 정착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이들의 연구도 소 가문이 가격에 천착 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이 '외교상의 체면'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한편 고시사카 유타(越坂裕太)의 연구는 17세기 전반부터 엔포 연간(1673~80)까지 이루어진 헌상 의례의 전체적인 고찰을 통해 '10만 석 이상'이라는 쓰시마번의 가격이 '확정'되는 과정을 조망하였다. 고시사카는 17세기 중엽부터 막부의 의례 구조가 체계화되는 가운데 다이묘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능력인 고쿠타카로 헌상 의례의 기준이 변하여 갔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고쿠타카는 1만 석 남짓이었던 쓰시마번이 헌상 의례상의 격식이 하락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고쿠타카를 따질 필요가 없는' '10만 석 이상'이라는 구니모치로서의 가격을 창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논하였다. 이어서 1680년의 청원 수락을 끝으로 '막번 간의 가격 문제'가 '결착'을 보았다고 설명하였다<sup>11)</sup>.

그런데 고시사카가 해당 문제가 '결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 같은 해, 서거한 4대

- 
- 5) 荒野泰典, 「大君外交体制の確立」,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1988(1981 초출), 221쪽. 同, 「幕藩制国家と外交 : 対馬藩を素材として」, 『歴史学研究』別冊, 1978도 대체로 같은 논지이다.
  - 6) '구니(國)'란 고대 일본의 율령제 하에서 설정된 68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넓이·인구·조세량 등에 따라 大·上·中·下의 4등급으로 나뉘었다. 쓰시마는 下國에 해당하였다.
  - 7) '구니모치 다이묘(國持大名)' 혹은 '고쿠슈(國主)'란 문자 그대로는 하나의 구니 전체를 영지로 거느리는 다이묘를 지칭한다. 그러나 가사야 가즈히코(笠谷和比古)의 정의에 따르면, 도쿠가와(徳川) 가문의 가신에서 출발한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는 설령 구니 전역을 영유하더라도 구니모치 다이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에도시대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구니 전역을 영유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구니모치 다이묘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실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관위(官位)'로, 종사위하(從四位下) 지주(侍從)에 임명될 수 있는 가문으로 구니모치 다이묘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었다. 구니모치 다이묘는 에도시대 중기 이후 '구니모치 18가(家)'가 불렸던 대다이묘 가문에 쓰시마의 소 가문과 모리오카(盛岡)의 난부(南部)를 더한 20개의 도자마(外様) 가문을 지칭하며, 그 밖에도 우와지마(宇和島)의 다테(伊達)·니와(丹羽)·다치바나(立花)의 세 가문이 이른바 '구니모치 격'에 해당하였다(笠谷和比古, 「國持大名論考」, 『古代・中世の政治と文化』, 思文閣出版, 1994 참조).
  - 8) 이하에 소개할 연구들은 모두 '10만 석'이라는 특정한 수치가 에도시대 초기의 막번 영주제 편성과정에서 다이묘의 등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福田千鶴, 『江戸時代の武家社会 : 公儀・鷹場・史料論』, 校倉書房, 2005; 三宅正浩, 「近世初期譜代大名論 : 軍事編成と所領配置」, 『日本史研究』575, 2010 등을 참조.
  - 9) 藤實久美子, 「武鑑とその板元 : 江戸前中期を中心に」, 『地方史研究』234, 1991.
  - 10) 古賀直美, 「武鑑にみる対馬宗家の家紋の変遷と「十万石以上之格」について」, 『東風西声』2, 2006.
  - 11) 越坂裕太, 「近世前期における献上と大名家格秩序 : 宗家の「十万石以上格」創出に注目して」, 『日本歴史』856, 2019.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의 영묘에 바치는 등롱<sup>12)</sup>의 개수 문제로 헌상 의례 상에서 소 가문의 가격 문제가 재점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사거한 1709년에도 재차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번 측의 청원을 통해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1709년의 청원 과정에서 막부의 로주(老中) 오쿠보 다다마스(大久保忠増)는 “쓰시마노카미님(쓰시마 번주)이 10만 석 이상의 격식이라는 사실은 막부의 어떠한 기록에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제3장 2절 참조). 이는 1680년에 ‘막번간의 가격 문제’가 ‘결착’에 이르렀다고 하는 고시사카의 설명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1680년과 1709년에 막부와 쓰시마번 사이에서 있었던 쇼군 영묘의 등롱 헌상을 둘러싼 교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쓰시마번이 1680년대에 막부로부터 공인받았다고 기록에 남겼던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의 성격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덧붙여 1709년의 청원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일찍이 1653년에 조선에서 건너간 2기의 동등롱이 쓰시마번 측이 제출한 문서상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물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는지, 나아가 훗날 막부와 쓰시마번 사이의 교섭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쇼군 靈廟의 銅燈籠 헌상과 ‘10만 석 이상 격’

### (1) 1680년 家綱 靈廟의 銅燈籠 헌상

고시사카의 검토에 따르면, 소 가문의 실질적인 가격과 고쿠타카의 괴리가 헌상 의례를 통해 표면화한 것은 1663년이 처음이었으며, 엔포 연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쓰시마번 측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막부와 교섭에 임했던 것은 1678년에 이에쓰나 아들의 회임 사실을 듣고 축하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였다. 그 결과 다이로(大老) 사카이 다다키요(酒井忠清)에 대한 청원을 통해 ‘10만 석 이상 격’ 헌상은 승인에 이르렀으나, 이에쓰나의 아들이 유산되는 바람에 바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680년 이에쓰나의 뒤를 이은 쓰나요시(綱吉)의 취임 축하 과정에서 해당 가격에 부합하는 헌상 의례가 실현되었다<sup>13)</sup>.

그러나 이로써 막부와 쓰시마번 사이에 가격의 인정이 ‘결착’을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같은 해에 사거한 쇼군 이에쓰나의 묘소에 대한 등롱 헌상을 둘러싸고 가격에 관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였기 때문이었다.

1680년 11월 23일에 로주 오쿠보 다다토모(大久保忠朝)는 쓰시마번의 에도 저택에

12) 쇼군의 영묘는 그 자체로도 막부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치였으며, 더욱이 등롱을 개수·재질·위치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헌상 주체가 지닌 권력과 친소관계와 상대적 서열을 가시화하는 일종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막부 쇼군의 영묘에 다이묘들이 헌상한 등롱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西嶋尚子, 「德川將軍家靈廟燈籠の政治的意味：十七世紀を中心に」, 『日本史研究』39, 2015 참조.

13) 越坂裕太, 주 11) 논문, 30~36쪽.

연락하여 가신을 보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다음날 쓰시마번의 루스이(留守居)<sup>14)</sup> 가시로 로쿠노신(加城六之進)이 다다토모를 찾아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아침 가시로 로쿠노신이 오쿠보 가가노카미님[다다토모]으로부터 어제 소환을 받았기에 가 보았더니, 겐유인(嚴有院, 이에쓰나의 시호)님의 우에노(上野) 불전에 동등룡을 헌상하라는 서신 한 통을 전달하셨다. 그리고 “동등룡 2기를 헌상하는 것은 10만 석 이상 격으로, 마쓰다이라 가가노카미(松平加賀守, 가가번주 마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님도 동등룡을 2기 헌상하신다. 5만 석인 교고쿠 빗추노카미(京極備中守, 마루가메[丸龜]번주 교고쿠 다카토요[京極高豊])님 격의 다이묘들은 석등룡 2기를 헌상하시고, 1만 석 마쓰다이라 비젠노카미(松平備前守, 다마나와[玉繩]번주 마쓰다이카 마사노부[松平正信])님 격은 석등룡 1기를 헌상하신다”고 하셨다. 위의 등룡을 헌상하는 시기는 내년 3월 중이라고 지시하셨다. 앞의 서신을 아래에 적는다.

겐유인님 우에노 불전 동등룡 헌상에 관한 각서

- 一. 동등룡 2기
- 一. 기반석 높이 지면에서 8촌, 직경 4척 5촌
- 一. 기반석 상단에서 보주(寶珠)까지 8척 2촌

소 쓰시마노카미[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이상<sup>15)</sup>

첨부된 각서를 통해 소 가문에게는 동등룡 2기를 헌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다다토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10만 석 이상 격의 다이묘에 해당하는 격식으로, 다이묘 중에서는 최대의 고쿠타카를 자랑하는 102만 석의 마에다 가문에게도 똑같은 개수를 헌상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다토모가 이어서 설명한 교고쿠 가문(5만 석, 석등룡 2기)과 마쓰다이카 가문(1만 석, 석등룡 1기)의 사례를 통해 고쿠타카에 따라 등룡의 재질과 개수에 차등을 두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시점에서 소 가문에게 내려진 동등룡 2기 헌상 지시는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에 맞춰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다토모는 다시 가시로를 불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가가노카미님이) 직접 물으시기를, “지난번 우에노 불전에 헌상할 동등룡에 관하여 쓰시마노카미님께는 2기 헌상하시라는 서찰을 전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가”라고 하셨다. 로쿠노신이 “쓰시마노카미는 10만 석 이상 격으로 2기를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가가노카미님이 “쓰시마노카미님은 10만 석 이상으로 매사 봉공하셨지만, 동등룡 헌상 건은 지행고(知行高)에 따라 지시하셨으므로 1기 헌상하시면 된다. 다테 도토미노카미(伊達遠江守, 우와지마번주 다테 무네토시[伊達宗利])님에게도 일전에 2기를 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또한 1기로 지시하셨으므로 모쪼록 이대로 숙지해주기를 바란다. 쓰시마노카미님은 10만 석 이상 격이기에 동등룡 1기를 헌상하시는 것이다. 10

14) ‘루스이(留守居)’는 번주가 에도를 떠나 영지로 돌아갔을 때 저택의 관리를 맡았던 가신으로, 그 외에도 막부 혹은 다른 다이묘와의 연락사항 전달 및 각종 교섭을 수행하였다.

15) 『江戸藩邸毎日記』(東京大学資料編纂所 소장), 延宝8年(1680) 11月 24日.

만 석 이하의 석등룡을 헌상한다. 쓰시마노카미님은 지행(知行)이 적으셔서 1기로 지시하셨으니, 그렇게 숙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다시금 헌상물 등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묻겠다고 말씀드린 뒤, 잘 마무리 짓고 돌아왔다. 이번 동등룡 1기 헌상에 대한 감사 서장은 쓰키반(月番)<sup>16)</sup> 가가노카미에게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sup>17)</sup>.

여기서 다다토모는 일전에 지시하였던 동등룡 2기 헌상이 1기로 변경되었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쓰시마번의 경우는 ‘지행(知行)’, 즉 고쿠타카가 높지 않기에 동등룡 수를 1기로 감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에 대한 감사 서장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다이묘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7만 석의 영지를 거느리고 있던 우와지마번의 다테 가문도 실제 고쿠타카가 10만석 이하였기에 소 가문과 마찬가지로 등룡 수를 1기로 조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막부 측의 입장은 명목상으로는 소 가문이 주장해왔던 ‘10만 석 이상’의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고쿠타카의 측면 또한 여전히 고려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막부의 지시사항이 바뀌자 쓰시마번 측은 이듬해 3월에 인척이자 막부의 역직을 맡은 후다이 다이묘였던 마쓰다이라 마사노부에게 “다이유인(大猷院,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의 시호)님의 불전에 등룡을 헌상했을 때는 석등룡 2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등룡 1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기로 청원하고 싶다고(주군께서)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을 전하며 중개를 부탁하였다<sup>18)</sup>. 이처럼 번 측은 과거 이에미쓰의 영묘에 2기의 등룡을 바친 전례를 제시하였지만, 이미 막부가 결정을 내린 일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3월 28일에 1기의 동등룡을 헌상하였다<sup>19)</sup>.

## (2) 1709년 綱吉 靈廟의 銅燈籠 헌상에 대한 對馬藩의 청원

1709년 1월 10일 5대 쇼군 쓰나요시가 사거하였다. 이후 3월 28일에 과거 동등룡 헌상을 총괄한 다다토모의 아들인 로주 오쿠보 다다마스는 가신을 통해 쓰시마번의 에도 저택에 “과거 겐유인님의 불전에 등룡을 헌상하셨습니다. 그때의 개수를 적은 기록 등이 있다면 하루 이틀 중에 가가노카미님[다다마스] 댁으로 기록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sup>20)</sup>”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인 7월 10일에 쓰시마번은 다다마스 측으로부터 “조켄인(常憲院, 쓰나요시의 시호)님 불전에 동등룡 1기를 헌상하도록” 지시하는 문서 한 통을 받았다<sup>21)</sup>.

이 일에 대하여 쓰시마번의 에도 저택을 총괄하던 가로(家老) 히라타 나오에몬(平田

16) 쓰키반(月番)은 로주 등 막부 역직의 근무 방법으로, 매달 교대로 한 사람이 제반 정무를 대표로 담당하는 가운데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보좌하였던 제도이다. 즉 그달의 공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신에게 쓰키반 명의로 감사 서장을 제출하라는 것은 막부에 대한 공식 문서로서 상신하라는 뜻이다.

17) 『江戸藩邸毎日記』, 延宝8年(1680) 11月 晦日.

18) 『綱吉公御代替記』五(東京大学資料編纂所 소장), 延宝9年(1681) 3月 8日.

19) 『綱吉公御代替記』五, 延宝9年(1681) 3月 28日.

20) 『江戸藩邸毎日記』, 宝永6年(1709) 3月 28日.

21) 『江戸藩邸毎日記』, 宝永6年(1709) 7月 10日.

直右衛門)은 로주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의 가신 오쿠다 요소자에몬(奥田與惣左衛門)에게 서한을 보내어 동등롱 2기 헌상을 청원하는 데 마사나오의 협조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sup>22)</sup>. 당시 마사나오는 막부 내에서 조선 관계의 제반 사항을 전담하는 '조선어용로주(朝鮮御用老中)'를 맡고 있었다. 1682년에 조선어용로주가 처음 임명된 뒤부터 쓰시마번은 조선 외교·무역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그밖에 막부와 관련된 각종 사항도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sup>23)</sup>.

그런데 이 무렵 마사나오에게는 해당 사안에 개입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 쓰시마번 외의 번들도 각각 친분이 있는 로주와 비공식적으로 상담하는 일이 빈발하는 상황 속에서, 로주 일동이 협의하여 번 측의 요청을 모두 사절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사나오 또한 쓰시마번 측에 향후 조선 관련 사항만 상담에 응하겠으며, 이외에는 모두 쓰키반 로주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도록 이야기해 둔 상황이었다<sup>24)</sup>.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쿠다도 등롱에 관한 지시를 직접 하달한 다다마스 측과 재차 교섭해보도록 히라타에게 권유하였다<sup>25)</sup>.

그러나 쓰시마번 측의 요청을 들은 다다마스는 “등롱 건을 다른 로주들과 의논하였지만, 성사되기 힘든 사정이 있으니 선례대로 1기 헌상하길 바란다”는 답을 전해왔다<sup>26)</sup>. 히라타는 재차 마사나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오쿠다에게 서신을 보내었지만, 이번 등롱에 관한 사안은 쓰키반이 처리하는 공무와는 달리 다다마스가 단독으로 맡은 일이므로 마사나오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서 자신은 조모상으로 칩거하는 중이어서 응대하기 힘들니, 유감이지만 이번에는 지시에 따르던가 혹은 늦더라도 영지에 있는 번주가 직접 쓰치야에게 청원하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오쿠다가 보낸 답신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겐유인님 시절에 (동등롱) 1기를 헌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다른 봉공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래 진품 다치(太刀)<sup>27)</sup>를 헌상한 것이야말로 제일의 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저쪽에서 10만 석 이상이라는 기준 없이 선례만으로 일을 결정하여 지시한 것이니, 지금에 와서 고치기 힘든 일이라 보입니다.<sup>28)</sup>

오쿠다의 이러한 답변은 이번에도 등롱 1기 헌상이라는 선례를 남겨두면 향후 같은

22)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東京大学資料編纂所 소장), 宝永6年(1709) 7月 13日.

23) 조선어용로주에 관해서는 허지은, 「근세 막번체제 속의 쓰시마번」, 『일본역사연구』43, 2016; 古川祐貴, 「対馬宗家と朝鮮御用老中」, 『日本歴史』831, 2017 참조.

24) 『江戸藩邸毎日記』, 宝永6年(1709) 6月 24日.

25)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7月 13日.

26)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7月 26日.

27) 본래 구니모치 다이묘라면 진검을 헌상해야 하였으나, 쓰시마번은 1678년에 이에쓰나 아들의 탄생을 경하하기 위한 헌상물로서 모형 도검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개정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는 이에쓰나 아들의 유산으로 인하여 바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1680년에 쓰나요시의 쇼군 취임 후 첫 헌상이라는 이유로 진품 도검 제출을 다시 승인받았다(越坂裕太, 주 11) 논문, 32·36쪽).

28)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7月 27日.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보인다. 결국 히라타는 영지로 교섭 경과를 전달한 뒤, 막부 측에는 등롱 제작에 지장이 생겼다는 구실을 내세워 헌상 기일을 연기한 채<sup>29)</sup> 번주의 청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 3. '조선에 대한 체면(外聞)'

#### (1) '朝鮮御用老中' 土屋政直의 개입

쓰시마번 영지에서 등롱 2기 헌상을 허락해줄기를 바란다는 번주의 청원이 에도 저택에 도착한 것은 10월 6일의 일이었다. 히라타는 곧바로 번주의 구두 청원을 구상서(口上書)로 정리한 뒤, 자신이 직접 적은 서찰을 첨부하여 오쿠다에게 보내었다. 그중에서 한층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히라타의 서찰은 아래와 같다.

별지의 구상서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켄인님의) 불전에 쓰시마노카미[5대 번주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동등롱 1기를 헌상하도록 지시하신 일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하는 바가 영지로부터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가노카미님께 아뢰려고 합니다. 쓰시마노카미는 고조부[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10만 석 이상 격으로 봉공해왔지만, 때때로 혼잡한 일이 생겨 곤란을 겪었으므로, 그 사정을 아뢰어 최근에는 온전히 10만 석 이상 격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곧이어 (쇼군 취임의) 축의도 있을 터인데, (A) 10만 석 이하 격인 것처럼 정해졌으니 또다시 이전처럼 혼잡한 일이 생길까 곤란스럽습니다. 더욱이 (B) 쓰시마노카미는 일본에 대한 것뿐 아니라 조선에 대한 역(役)도 지시받은 상태이므로, 무엇보다도 저 나라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들으신 바와 같이 몹시 곤궁한 처지여서 재정 궁핍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지라도 결코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봉공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그 보람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C) 다테 도토미노카미[우와지마 번주 다테 무네요시(伊達宗贇)]님도 과거에는 쓰시마노카미와 마찬가지로 동등롱 1기를 헌상하였지만, 그 후 10만 석 격이 되었기에 이번에는 2기를 헌상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쓰시마노카미는 이전부터 10만 석 이상 격으로 봉공해왔으며, 특히 (D) 겐로쿠(元祿) 12년(1699)에 영지 장부[分限帳]를 개정할 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서라고 여겨 장부에도 다시금 10만 석 이상 격이라고 기입해 두었는데, 1기로 지시하신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 지난번에도 모리 마타시로(毛利又四郎, 조후[長府]번주 모리 모토토모[毛利元朝])님에게 석등롱 1기를 헌상하도록 지시하셨지만, 2기 헌상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청원하였더니 들어주셔서 2기 헌상하도록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시를 내리셨다고 해도 이유만 합당하다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일은 청원의 사정도 모르겠고 또한 사실 여부도 상세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와 같은 예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들은 그 대로라면 그분들의 청원은 이유가 합당하여 청원한 대로 들어주셨고 쓰시마노카미의 청원은 이유도 합당하지 않아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더욱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29)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9月 28日.

따라서 더욱 힘써 청원하겠다는 뜻을 (영지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슈(相州, 마사나오)님께 아뢰어 보아서 '이미 여러 차례 지시하여 결정된 바이니 그대로 따르기 바라며, 다른 격식에는 결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일이든 분부에 따르겠다고 (영지에) 전하였습니다. 이 일은 조선 관계의 공무라고는 말하기 힘들기에 비공식적으로나마 여쭙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슈님께서서는 이전부터 청원해온 사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F) 쓰시마노카미의 청원은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체면을 제일로 생각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도 오로지 저들에 대한 체면을 생각해서 굳이 아뢰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예 조선어용과 동떨어진 것 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모로 은밀히 분부를 받들겠다고 (영지에) 전하였으므로, 이러한 뜻을 귀하게서 잘 판단하시고 어르신께 적절히 아뢰어 주셔서 쓰시마노카미가 전해 온 뜻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려주시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만일 이번에 1대를 헌상하도록 지시하신다면, 이달 말 또는 서두른다면 그전에도 완성될 것으로 보이니, 이대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히라타 나오에몬<sup>30)</sup>

서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쓰시마번 측이 절대로 마사나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서장은 오쿠다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주군인 마사나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 측의 주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석등룡이 아닌 동등룡 제출을 지시한 것이 '10만 석 이상'의 가격을 인정한 결과이며 개수의 감축은 단지 고쿠타카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던 과거 다다토모의 설명과는 달리, 쓰시마번 측에서는 등룡 개수의 감축이 '10만 석 이하'로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A). 게다가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1699년에 '영지 장부[分限帳]<sup>31)</sup>'도 수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D). 다음으로 등룡 개수 문제를 청원하여 막부의 수락을 받았던 다른 다이묘들의 사례를 들고 있다(C, E). 막부의 입장에서 다이묘들의 가격 문제는 어느 한쪽을 편애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질서를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sup>32)</sup>이었기 때문에, 쓰시마번 측의 청원도 공정하게 수락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히라타의 서장은 쓰시마번에게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이 어째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번주는 '조선에 대한 역'을 일임하고 있기에 번의 가격은 단지 일본 내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 상대국인 '조선에 대한 체면<sup>33)</sup>'

30)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10월 6일.

31) 여기서 '겐로쿠 12년(1699)'에 수정하였다고 하는 '영지 장부'에 대하여, 앞서 쓰시마번 루스이 야마카와 사쿠자에몬(山川作左衛門)이 다다마스의 가신에게 제출한 서장은 '겐로쿠 15년(1702)'에 가격을 수정하였다고 적고 있다(『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7월 21일). 두 연도는 각각 쓰시마번이 『부칸』의 개정을 의뢰한 시기와 실제 개정판이 간행된 시기에 해당한다(古賀直美, 주 10) 논문, 80쪽). 이 점을 고려한다면, 쓰시마번 측이 말하는 '영지 장부'란 민간 출판물인 『부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2) 越坂裕太, 주 11) 논문, 35쪽.

33) 1678년에 쓰시마번은 쇼군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과거 이에쓰나의 탄생 때처럼 노(能)를 개최해도 되는지를 막부 측에 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쓰시마번이 이에쓰나의 탄생 때 축의를 실시하였던 일을 조선도 알

을 상징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무역의 쇠퇴로 인해 번의 재정이 궁핍해진 상황<sup>34)</sup>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봉공에 힘써 왔는데, 등롱 헌상 개수 문제로 인하여 그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B). 여기서는 혹여 있을지도 모를 번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막부 측의 문제 제기를 재정보다도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히라타는 이번 번주의 청원이 '조선에 대한 체면'을 제일로 생각한 것이므로, '조선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F). 이 주장이야말로 조선 관계 사안 외에는 번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마사나오 측을 해당 청원에 개입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논리였다.

## (2) 청원의 수락

히라타가 서장을 보낸 지 닷새 뒤, 오키다는 히라타를 불러 다다마스가 번 측의 청원을 수락하였음을 전달한 뒤 다다마스에게도 같은 내용의 구상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하였다<sup>35)</sup>. 구상서를 받은 뒤 다다마스는 쓰시마번 에도 저택에 과거 소군들의 영묘에 헌상했던 등롱의 개수, 연월일, 기진자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sup>36)</sup>. 이튿날 쓰시마번 측이 제출한 두 통의 각서 중 하나에는 '朝鮮製' 동등롱 2기가 적혀 있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겠다.

이후 다다마스는 청원 수락과 관련하여 쓰시마번 루스이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가가노카미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번 조켄인님 불전에 동등롱을 헌상하는 건은 청원대로 결정하였으므로, 답서를 전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 후 (A) 서한의 문장을 읽으시고 나서 "이 답서는 봉서(奉書)도 아니고, 또한 내 생각에 따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쓰시마노카미님에게 구두로 하는 말이니 잘 전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뒤 이야기하시기를, "등롱을 1기 헌상하도록 처음에 지시하였는데, 근년 10만 석 이상 격으로 봉공해왔으므로 2기 헌상하고 싶다는 뜻이 일찍이 (번주께서) 이야기해 둔 바였다고 하며 청원의 취지를 가신들이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중략) (B) 가신을 시켜 10만 석 이상 격식으로 봉공해왔던 선례를 귀하의 가신들에게 묻고 막부의 장부를 검토해보았지만, 10만 석 이상이라고 하는 격식은 어떠한 장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봄에 선례를 물어서 1기 헌상하라는 서찰을 내렸을

고 있기에, 조선에 대한 체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다(『家綱様御代諸覽書』, 東京大学資料編纂所 소장, 延宝6年(1678) 9월 27일). 이에쓰나 탄생 때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노를 개최하였다는 이야기는 『寛永癸未信使記録』(東京国立博物館 소장, ゆまに書房 마이크로필름 『朝鮮通信使記録』)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본래 13만 석 이상의 다이묘들에게 로주와 다이묘들을 불러 노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요시나리는 비록 격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선의 일을 지시받은 한에는 저 나라에 대한 체면을 위해서라도' 노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로주에게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어느 시점에 통신사 관계 기록에 편입되었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후 쓰나요시의 쇼군 취임 때에도 쓰시마번은 경사스러운 일기에 노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막부 측은 허락하지 않았다(『綱吉公御代替記』五, 延宝9年(1681) 5월 13일).

34) 쓰시마번의 조선 무역은 田代和生, 주 4) 저서; 정성일, 『朝鮮後期対日貿易』, 신서원, 2000 참조.

35)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10월 11일.

36)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10월 12일.

때 그러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주셨더라면 성사될 수 있었겠지만, 선례에 1기라고 써서 제출하고 그 사정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겐유인님 때의 격식대로라고 지시하셨기에 선례대로 전달하였으며, 결정된 뒤의 청원이었기에 상담하기도 어려웠다는 사실을 가신을 통해 귀하의 가신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가신을 통해 말씀을 해오셨으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성사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다른 로주들에게 일단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한 뒤, (C) 로주들이 모였을 때 마나베 에치젠노카미(間部越前守, 소바요닌[側用人] 마나베 아키후사[間部詮房])님께서도 상담해보았더니, '쓰시마노카미의) 조부라고 하는 교부(刑部, 요시자네)는 실제로는 부친으로, 겐유인님 불전에 (등롱) 1기를 헌상하였기에 그 격식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의 역은 쓰시마노카미님의 누대에 걸친 봉공이지만, 지난번에도 1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지시하여 결정된 일을 변경해서는 이 외에도 같은 유형의 청원이 있을 때 혼잡해질 것이므로, 선례대로 하라고 지시하게끔 일전에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D) 그런데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 마사나오)님이 '이전에 공무의 중개를 맡았고 지금도 조선어용을 받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필경 조선에 대한 체면과도 관련 있는 일이기 때문에 2기를 헌상하고 싶다고 서찰을 통해 뜻을 전해왔다'고 하시며 로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가미노카미님이 위의 서찰을 저에게 건네시고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쓰시마노카미님으로부터 제게 보내는 청원서가 있다면 제게 제출하도록,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도록' 사가미노카미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쓰시마노카미님의) 서장과 별지 청원서를 보내주셨는데, 읽어본 서한에는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E) '쓰시마노카미님은 조선의 역을 맡고 있으니 일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저 나라의 체면만을 오로지 생각하여 2기 헌상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로주들에게 상담해 보았더니 가격에도 지장이 없고 봉공하고 있는 상황도 합당하니 2기 헌상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형편이 좋게 마무리되어 저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돌아가려 하였더니 또 부르셔서 "(F) 쓰시마노카미님이 10만 석 이상의 격식이라는 사실은 막부의 어떠한 기록에도 없다. 이전에는 때때로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 전임 조선어용로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님에게 여쭙어 보아 10만 석 이상 격으로 봉공해왔다고 들었다. 이번에 10만 석 이상 격으로 결정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쪽의 기록에도 잘 적어두기를 바란다. 이 일을 같이 근무하는 가로(家老)에게도 전달하기를 바란다. 이전에 전한 1기 헌상하도록 지시한 서한이 그쪽에 있다면 이후 혼란이 있을 것이니, 앞선 서장은 반납하도록 하라. 이번에 2기로 지시하는 서장을 새로 전하겠다"라고 친절히 말씀하셨다<sup>37)</sup>.

먼저 다다마스가 전한 로주들의 논의 양상을 살펴보면, 쓰시마번 측의 청원에 대한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임 쇼군 이에노부(家宣)의 측근으로서 쇼군과 로주 사이를 중개하는 소바요닌(側用人) 마나베 아키후사는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전례 그대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처음 지시를 변경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C). 쓰시마번 측이 우려하였던 대로 헌상 의례가 한 번 선례로서 굳혀지면 변경이 힘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로주들의 증론은 조선어용로주 마사나오의 발언으로 뒤집혔다. 마사나오가

37)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10月 16日.

‘10만 석 이상’의 가격이 ‘조선에 대한 체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히라타의 서장에 담긴 주장을 로주들에게 전달하자(D), 다른 로주들도 소 가문의 ‘가격’에도 지장이 없고 ‘봉공하고 있는 상황’과도 합당하니 번 측의 청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E). 쓰시마번 측이 노린 바가 절묘하게 맞아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롱 헌상 건의 실무자였던 다다마스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는 이번 청원이 막부의 허락을 얻은 데에 대하여 축하한다는 뜻을 전하고는 있지만(E), 이번 결과가 자신이 판단한 바에 따른 것은 아니며 더욱이 로주가 공식으로 하달하는 문서인 ‘봉서’를 통한 지시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A). 즉 이번 동등롱 2기 헌상의 승인 또한 전임 조선어용로주였던 아베 마사타케에게 구두로 허가를 얻어 ‘10만 석 이상 격’의 봉공을 수행했던 것(F)과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이처럼 다다마스가 쓰시마번의 청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막부 측의 공식 기록에서는 소 가문이 ‘10만 석 이상 격’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B). 도리어 다다마스는 이번 동등롱 2기 헌상 승인을 통해 ‘10만 석 이상 격으로 결정’된 사실을 번 측의 기록에 잘 적어두도록 지시하고 있다(F). 따라서 엔포 연간에 이루어진 가격 문제의 ‘결착’ 또한 특정 로주와 번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朝鮮製’ 銅燈籠의 이력과 그 의미

시점을 앞으로 돌려서 10월 13일에 쓰시마번이 역대 쇼군의 영묘에 헌상한 동등롱의 내역을 적어 다다마스에게 제출한 각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각서 두 통은 히라타가 역대 쇼군의 영묘가 있는 에도 소재 사찰인 간에이지(寬永寺)와 조조지(増上寺)에 사람을 보내어 작성한 것이었다.

각(覺)

다이토쿠인(臺徳院, 2대 쇼군 히데타다[秀忠]님 불전에 석등롱 1기  
위는 간에이(寬永) 9 임신년(1632) 7월 24일, 증조부 쓰시마노카미 요시나리가 헌상하였습니다.

다이유인님 불전에 석등롱 2기  
위는 게이안(慶安) 5 임진년(1652) 4월 24일, 위와 같은 이가 헌상하였습니다.

동(同) 불전에 동등롱 2기 조선제(朝鮮製)  
위는 계사년(1653) 4월 20일, 위와 같은 이가 헌상한 석등롱과 합쳐 총 4기입니다.

겐유인님 불전에 동등롱 1기  
위는 엔포(延寶) 9 신유년(1681) 5월 8일, 조부 쓰시마노카미 요시자네가 헌상하였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10월 13일 소 쓰시마노카미 휘하 야마카와 사쿠자에몬(山川作左衛門)

각(覺)

이전에 등룡을 헌상한 연호 등을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하셨으므로, 별지에 적어 제출합니다. 다이유인님 불전에는 10만 석 이상인 분들 중에도 동등룡을 헌상한 분은 적었으며, 대체로 석등룡 2기씩 헌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일을 위해 아립니다. 이상입니다.

10월 13일

소 쓰시마노카미 휘하 야마카와 사쿠자에몬<sup>38)</sup>

먼저 두 번째 각서는 이에미쓰 시기 이전에 다이묘들이 헌상한 등룡의 재질은 반드시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혹여나 있을 등룡의 재질에 대한 막부 측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미쓰의 영묘는 1720년에 소실되어 버렸기에 등룡도 남아 있지 않아 그 진위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sup>39)</sup>.

첫 번째 각서에 적힌 4명의 쇼군 중 2대 히데타다의 영묘만이 조조지에 있으며, 나머지는 우에노의 간에이지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미쓰의 불전에 소 가문 측이 헌상한 석등룡 2기와 같이 적힌 한 쌍의 '조선제' 동등룡이다. 이 동등룡의 설치 경위를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1651년에 사거한 이에미쓰의 유해는 간에이지에서 법회를 진행한 뒤, 조부 이에야스(家康)가 묻힌 닛코(日光)로 이장되었다. 닛코의 다이유인묘가 조영 중이던 1652년 8월 27일, 소 가문의 인척이었던 마쓰다이라 마사노부는 닛코의 공사 책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며 쓰시마번주가 석등룡을 헌상했어야 하는데, 그 사실이 일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쓰시마번 측은 마사노부에게 “이번에 조선에서 금속 등룡[동등룡] 2개와 삼구족을 주조하게 하여 헌상할 작정이라고 왜관에 전해 두었습니다. 그쪽에서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마사노부는 이러한 사실을 로주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에게도 보고해 두도록 조언하였다<sup>40)</sup>. 이튿날 보고를 받은 다다카쓰는 “조선에 주문한 금속 등룡이 완성되더라도 공사가 끝난 뒤에는 장소가 없으니, 석등룡을 헌상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하여 번 측은 동등룡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석등룡을 주조하여 닛코의 이에미쓰 영묘에 헌상하였다<sup>41)</sup>.

쓰시마번 측이 기다리던 조선의 동등룡 주조가 늦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다.

동래 부사 윤문거(尹文舉)가 계(啓)를 올려 말하기를, “왜차(倭差)가 도주의 서계를 가져왔는데, 대체로 일광산(日光山)의 부처를 모실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해 보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또 향로의 명문 양식을 보니 ‘조선이 주조한 어떤 물건을 어떤 곳에 바친다.’라고 하였는데, 조선 두 자를 다른 줄과 평행으로 썼으니, 매우 무례하고 불공합니다. 수역(首譯) 이형남(李亨男)을 보내어 쟁변시키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예조의 관리에

38) 『家宣公御代替御勤記』坤, 宝永6年(1709) 10월 13일.

39) 西嶋尚子, 주 12) 논문도 이에미쓰 영묘의 경우 등룡의 헌상 주체 외에 다른 정보는 모두 ‘不明’으로 기입하고 있다(48쪽). 단 히데타다 영묘의 등룡 정보를 기입한 표에는 헌상 주체의 고쿠타카와 등룡 재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43쪽).

40) 『江戸藩邸毎日記』, 慶安5年(1652) 8월 27일.

41) 『江戸藩邸毎日記』, 慶安5年(1652) 8월 28일.

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하기를 청하였다. 영의정 정태화 등이 아뢰기를, “도주가 요구한 향로에 새겨 주조하는 글에서 조선이 모처에 바친다(朝鮮獻於某所)는 여섯 글자와 그들의 연호를 빼고, 임진 월일(壬辰月日)이라고만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형남을 보내어 꾸짖고 타이르도록 정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이에 따랐다<sup>42)</sup>.

이처럼 조선에서는 쓰시마번 측의 사신이 요구한 ‘향로’ 주조의 부가 조건인 명문의뢰가 불경함을 이유로 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향로’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쓰시마번이 등룡의 주조도 함께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차왜가 말하기를, “향로와 등룡을 주조한 뒤 일본의 연호를 써넣는 것이 어렵다면, 계사년 4월 20일(癸巳年四月二十日)이라고만 써서 주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필요한 동과 주석 6천여 근은 왜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바쳤다<sup>43)</sup>.

이 사료에서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등룡의 재료를 쓰시마번이 스스로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쓰시마번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선에 동등룡 주조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소군의 영묘에 바칠 물품을 조선에서 받아와 외교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막부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듬해 통신사를 청하기 위해 조선으로 도해한 차왜 등성방(藤成方, 고지마 시키베[小嶋式兵衛])은 “봄에 귀국이 보낸 등룡을 도주가 받들어 東觀山の 전 관백(關白) 秀忠을 모신 원(院)에 바쳤더니, 관백과 집행(執政) 이하가 제도의 정묘함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조선의 성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후 사행에도 또다시 등룡 한 쌍을 보내면 광채가 배로 더할 것입니다<sup>44)</sup>”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조선은 등성방의 청을 받아들여 1655년 통신사 사행 때에도 동등룡을 주조하여 닛코로 보냈다.

다만 히데타다의 영묘는 조조지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의 등룡이 설치된 곳은 이에미쓰의 영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히라타가 작성한 각서에 보이는 ‘조선제’ 동등룡의 헌상 날짜와 쓰시마번의 차왜가 새로이 요청한 명문의 날짜가 같다는 점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쓰시마번이 애초에 막부에 알리지 않은 채 닛코에 바칠 동등룡의 제작을 조선에 의뢰하였다는 사실과 동등룡의 완성 및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석등룡으로 대체하여 헌상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측한다면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을 창출하기 전 본래는 석등룡 헌상에 해당하는 소가문이 조선에서 가져온 동등룡으로 대체하여 기존의 가격 이상으로 닛코의 이에미쓰 영묘에 대한 헌상 의례를 수행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후일 조선으로부터 도착한 동등룡은 소가문이 석등룡 2기를 헌상해 둔 간에이지의 이에미쓰 영묘에 안

42) 『孝宗實錄』9卷, 孝宗 3年(1652) 9月 10日 己卯.

43) 『邊例集要』卷之十二, 「求貿」, 壬辰(1652) 11月.

44) 『孝宗實錄』11卷, 孝宗 4年(1653) 11月 29日 辛酉.

치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유서를 지닌 '조선제' 동등룡이 1709년의 청원 과정 중에 번측의 문서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해당 교섭의 국면 전환은 조선어용로주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시마번은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이 '조선에 대한 체면'을 위한 것이기에 '조선어용'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며, 따라서 동등룡 2기 헌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나갔다. 과거 쓰시마번이 조선에 요청하여 받아온 '조선제' 동등룡이야말로 소가문의 등룡 헌상이라는 사안이 조선에도 알려지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꾸어 말하면 '조선어용'의 산물임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체면'을 상기시키는 물적 증거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5. 나오며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찰을 내리고자 한다.

가장 먼저 쓰시마번의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에 대한 막부 측의 '공인'은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709년 동등룡 2기 승인도 막부의 공식 문서인 '봉서'에 의한 지시가 아니었으며, 실무를 담당한 로주 다다마스는 번의 청원이 승인된 데에 축하를 표하고 있지만, 자신은 번의 청원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다다마스의 발언을 통해 과거 쓰시마번이 실시한 '10만 석 이상' 격의 헌상 의례도 로주들의 구두 허가가 거둬지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결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1678년 혹은 1680년에 '10만 석 이상'의 가격을 막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서술하는 쓰시마번 측 편찬 사서의 기술 또한 일종의 자기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709년의 동등룡 2대 헌상 청원이 승인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 요소는 엄밀히 말하면 막부의 중추부에 자신들의 청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적 파이프(조선어용로주)를 구축해 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이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의 안건이 반드시 '조선 관계'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의 구축 과정에서 전면에 배치된 논리가 '조선에 대한 체면'이었으며, 이것이 '10만석 이상'의 가격이라는 번 측의 주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에 대한 체면'은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에 대한 체면'의 상징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히라타의 각서에 적힌 '조선제' 동등룡이었다. 본래 이 동등룡은 1652년에 쓰시마번이 닛코에 헌상할 목적으로 조선에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해 결국 간에이지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1709년의 교섭에서는 '조선어용'이라는 번의 특수한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자 소가문의 등룡 헌상이 조선에도 알려진 일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 살펴본 쓰시마번의 '10만 석 이상 격'을 둘러싼 청원 과정을 총평하겠다. 해당 가격은 쓰시마번이 조선 외교와 무역을 전담하는 사실에 대한 '외교적 지위'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과거의 통념이었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정설은 어디까지나 가격은 막번 관계상의 대우 문제였으며, 주로 헌상 의례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709년 동등릉 헌상을 둘러싼 교섭 속에서는 쓰시마번이 해당 가격을 '조선에 대한 체면'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어용'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었으며, 청원의 성공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논리를 다른 로주들에게도 대신 설파하였던 조선어용로주 마사나오는 쓰시마번의 '10만 석 이상 격' 주장에 대해 이후 다음과 같은 이해를 보였다<sup>45)</sup>.

이전부터 지행이 10만 석 격이라고 해왔지만, 히젠(肥前, 다시로령)의 지행을 더해도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교역의 이윤을 이모저모 더해 10만 석 이상 격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조선의 제어(朝鮮國の押へ)도 검해왔기에, 종자들을 많이 거느린다고 한다.

헌상 의례를 중심으로 조망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간과되었지만, '10만 석 이상 격' 주장 속에서 '교역의 이윤(조선무역)'이 쓰시마번의 부족한 고쿠타카에서 기인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논리상의 대체재로서 기능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자 조선 무역의 쇠퇴로 그 대체재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쓰시마번은 또 다른 대체재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구축된 논리가 막번 관계의 성립부터 번이 맡아왔던 고유의 역할로 치장된 '조선의 제어'였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가 요소 중 하나로서 강조된 '조선에 대한 체면'이 가격 유지에 필요한 또 다른 논리상의 대체재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바로 이것이 막번제 사회 속에서 쓰시마번이 추구하는 상대적 위치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의 고찰을 기하고자 한다.

45) 이에 대해서는 이해진, 「17세기 말~18세기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 '交通'의 개념적 확장과 '藩屏의 武備'론의 등장」, 『일본역사연구』55, 2021, 24~25쪽 참조. 아래의 사료는 『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御免被蒙仰候記録』(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宝永7年(1710) 6월 15일 기사이다.



## 【토론문 1】

### 〈對馬宗家の '10만 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에 대한 토론문

정성일(광주여대)

#### 1. 이 논문의 특징과 의의

□ 실증 분석: 1709년 '조선제(朝鮮製) 동등롱(銅燈籠) 2기 헌상' 교섭 과정

○ 1680년 사례

- 처음에는 '동등롱 2기' 헌상 지시, 나중에 '동등롱 1기'로 변경 지시(1681.5.8. 헌상)

○ 1709년 사례

- 처음에는 '동등롱 1기' 헌상 지시, 나중에 '동등롱 2기'로 변경 지시
- '朝鮮御用老中'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에 대한 **대마번의 '로비'**가 주효(奏效)

○ 대마번의 등롱 헌상 선례

- 1632년 '석등롱' 1기 → 1652년 '석등롱' 2기

※ 1652.9. 《효종실록》, “差倭가 조선에 와서 日光山에 바칠 향로의 주조를 요청” 1652.11. 《변례집요》, “향로, 등롱 주조 요청, 동과 주석을 왜인 스스로 준비해서 바침”
---

- 1653년 '동등롱' 2기 조선제(朝鮮製) → 1681년 '동등롱' 1기 → 1709년 '동등롱' 2기

○ 의의

- 석등롱(石燈籠) 아닌 '동등롱' 헌상 지시는 대마번이 “10만 석 이상 격(格)임”을 공인받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마번을 “10만 석 이상 격(格)”으로 인정한다는 막부 공식 기록이 없고, 이는 단지 로주 간 비공식 합의(구두 지시)”에 의한 것이다.”는 이유를 들어서, 발표자는 “쓰시마번의 '10만 석 이상'이라는 가격(家格)에 대한 막부 측의 '공인'은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음.

□ 선행 연구와 차별성

- 田中健夫(1975), 田代和生(1981), 荒野泰典(1988), 鶴田啓(1996) 등 전통적인 연구와 등 藤實久美子(1991), 古賀直美(2006), 越坂裕太(2019) 등 최근의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실증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
- 현상 의례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던 대마번[쓰시마번]의 논리를 규명하려고 시도 → 무역이 번성할 때는 '교역의 이윤(조선무역)'을, 무역이 쇠퇴할 때는 '조선에 대한 체면'을 막부 측에 강조

2. 몇 가지 확인할 사항

□ 논문 제목

- <對馬宗家の '10만 석 이상 격' **공인**과 조선 銅燈籠에 대하여>에서 <공인>이 독자(讀者)에게 주는 첫 번째 느낌은 '공인을 했다' '공인을 받았다'는 쪽이 강한데, 발표자는 "막부가 '공인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매듭을 짓고 있어서, 토론자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제목을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기에 무언가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음.

□ 막부의 인식 또는 정책 방향

- 막부가 <對馬宗家の '10만 석 이상 격'>을 **공인하지 않은 이유(理由)**, '구두 지시'로는 <對馬宗家の '10만 석 이상 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발표자가 생각하는지, 논문 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밝히면 어떨지?

□ 1709년 대마번[쓰시마번]의 막부 측[老中] '로비' 방법

- 1709년 교섭에서 처음('동등롱 1기' 현상 지시)과 달리, 나중에 '동등롱 2기'로 지시를 변경한 것은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 朝鮮御用老中)의 '개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함은 분명한데, 이때 대마번[쓰시마번]이 보낸 '문서'만으로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김.
-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마번[쓰시마번]은 조선 인삼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나는 특산품을 예물(禮物), 선물(贈物)로 주면서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막부 측 고위 관료에게 주입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마번[쓰시마번]과 쓰치야 마사나오 사이의 다른 '인연' 또는 '사연'은 없었는지?

(끝)



【발표문 2】

明代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과 담배 유행

김현선(동국대)





# 明代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과 담배 유행

김현선(동국대)

I. 머리말
II. 明代 瘴氣 분포와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
1. 明代 瘴氣 분포지역
2.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
III. 담배의 ‘避寒辟瘴’ 효능과 吸煙 문화의 확산
1. 北邊 군인의 瘴氣 예방과 담배
2. 北邊 군인의 寒疾 예방과 흡연문화의 확산
IV. 맺음말

## I. 머리말

明 중기 도입된 담배는 明末에 사람들의 기호 식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술, 차와 더불어 3대 기호 식품의 하나인 담배의 도입과 확산은 중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의 유입과 흡연문화의 확산, 明末清初 烟禁令과 논쟁, 담배 재배와 생산 등 담배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sup>1)</sup>

담배 확산과 관련하여 담배의 약용적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당시 많은 의서에서 담배의 ‘避寒辟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瘴은 소위 瘴氣를 의미하며, 福建, 廣西, 廣東, 江西, 湖廣, 貴州, 四川 등 남방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瘴氣가 만연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瘴氣에 의한 瘴病 등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지역은 ‘死亡毒氣’, ‘死亡之鄉’으로 불리었다. 즉 瘴氣는 중국 역사상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으며, 사람들의 심리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瘴氣가 발생하는 지역의 사회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각 왕조의 중앙 정부가 南部, 西南部, 西部 변경 民族 지역의 政治, 經濟, 軍事, 文化를 경영하는 과

1) 담배 관련 연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원정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원정식, 「명청시대 담배의 정치·사회경제사적 의의」, 『明清史研究』23輯, 2005; 同, 「18세기 中國社會의 吸煙文化 研究: 담배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吸煙禮俗의 형성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29輯, 2008; 同, 「전근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작물」, 『東洋史學研究』106輯, 2009.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清初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清初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明清史研究』55輯, 2021은 흥타이지의 정치적 의도에 착안하여 만주인 사이에서 담배의 용도를 검토하였으며, 동시에 烟禁令의 실시와 그 정치적 의도를 밝혔다. 이후 재인용한 논문은 원정식, 2005로 표기함.

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淸末까지 瘴氣와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담배가 유입된 후 많은 의사와 사람들은 담배를 '寒을 피하고 瘴을 예방'할 수 있는 영험한 약물로 인식하였다. 특히 明末 전란으로 북변의 군인들이 남방에서 瘴病 예방을 위해 담배를 피웠다. 이후 남방에서 징병된 군인들이 북방을 수비하며 寒을 피하기 위해 흡연하였다. 사회적 불안정과 빈번한 군대의 이동은 흡연 풍조가 중국 사회에 확산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sup>2)</sup>

본고에서는 담배와 흡연문화의 확산을 명대 瘴氣 분포와 담배의 약용적 기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먼저 명대 瘴氣 분포 지역과 瘴病 감염에 대해 살펴본 후, 특히 瘴氣에 취약했던 군인의 감염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군인들 사이에 담배 흡연이 확산되었던 원인을 담배의 瘴氣 예방의 약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후 寒疾 예방의 목적에서 널리 이용된 원인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 II. 明代 瘴氣 분포와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

### 1. 明代 瘴氣 분포지역

중국 남방지역에는 소위 瘴氣라 불리는 毒氣가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 역사상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두려운 존재였다. 瘴氣는 중국 고대 문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그 설명은 매우 추상적이며 합의 역시 광범위하다.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瘴氣는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이며, 그로 인해 병이 나면 그것을 瘴病이라고 한다.<sup>4)</sup>

현대 많은 연구자들은 瘴氣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일종의 열대 질병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惡性瘧疾(Pernicious malaria)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5)</sup> 하지만 고대

2) 담배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보급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①담배의 약용적 효능 ② 선물로서 기능 ③흡연자의 흡연 정취 선전 ④중독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楊國安 編著, 『中國烟草文化集林』 西北大學出版社, 1990, pp.17-20 참조. 원정식, 2005는 명말 흡연 풍조가 빠르게 중국사회에 확산된 계기로 16세기 중반 이후 北虜南倭에서 明清交錯로 이어지는 戰亂의 연속이 초래한 사회질서의 불안정을 지적하였다.

3) 杜勇, 「明清時期中國對吸烟與健康關係的認識」, 『中華醫史雜誌』, 2000; 宋軍令, 「明清時期對烟草藥用價值的認識和利用」, 『農業考古』1期, 2009; 鞠舒雨·徐曉銘·戴建國, 「烟草的中醫藥功效考究」, 『臨床醫藥文獻電子雜誌』31期, 2020은 '避寒辟瘴'과 같은 담배의 효능에 대해 기록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Carol Benedict, Golden-Silk Smoke: A History of Tobacco in China, 1550-20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p.88-109.

4) 金強·陳文源, 「瘴設」, 『東南亞縱橫』7期, 2003은 瘴의 발병 메커니즘과防治에 대해 탐구했으며, 瘴을 瘴病과 瘴氣로 세분하였다. 可中, 「瘴癘爲何物」, 『百科知識』1期, 1994는 瘴氣와 관련하여 일종의 病邪를 가리키며,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自然疫源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 『外臺秘要方』를 보면 “무릇 瘴과 瘧은 나누어 두 개의 이름이나 실은 하나이다. 혹 먼저 춥고 이후 열이 나거나, 혹은 먼저 열이 나고 이후 춥거나 하는데, 嶺南지역은 瘴이라 하고, 江北은 瘧이라 부른다. 이는 방언이 달라서이며, 다른 병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살펴봤을 때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瘧疾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현대 의학에서도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瘧疾로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고대 문헌에서는 瘴病을 '瘴瘧'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惡疾을 의미하는 '瘧'와 결합

문헌에서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며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sup>6)</sup> 더하여 瘴病을 질병이 아닌 문화와 정치적 관념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sup>7)</sup> 본고에서는 瘴氣를 실존하는 질병으로 보고, 질병 기록에 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瘴氣는 대체로 기후가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 습하며, 삼림이 무성하여 모기 등 곤충이 번식하기 쉬운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다. 瘴氣에 의해 발생한 瘴病 역시 일반적으로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였다.<sup>8)</sup> 그런데 瘴氣 분포지역은 고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역사상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戰國 시기에서 西漢 시기에는 秦嶺과 淮河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 지역에 瘴氣가 분포했으나, 隋唐五代 시기에 이르러서는 大巴山과 長江이 그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明清時期에는 南嶺을 경계로 남쪽에 장기가 분포하였다.<sup>9)</sup>

한편 明末清初 저명한 학자인 屈大均是 “唐宋时期에 嶺南 지역을 ‘瘴鄉’이라고 불렀으며, 이곳에서 貶客이 자주 病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明代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屈大均是 “嶺南 지역은 험준한 지역이 모두 평탄해졌으며, 山川이 트이면서 中州의 맑은 氣가 통하여” 瘴氣가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sup>10)</sup> 즉 지리 및 기후 환경과 관련이 깊은 瘴氣는 北人의 南移, 인구 증가와 토지 개간,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 지역 역시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sup>11)</sup>

시켜 ‘瘴癘’라고 칭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와 관련하여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의 初步研究」, 『地理學報』4期, 1993은 비록 瘴氣는 脚氣처럼 전염성이 없는 풍토병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전염성을 지닌 유행성 질병인 惡性瘧疾을 지칭한다고 강조하였다. 可中, 1994 역시 의학위생의 관점에서 瘴氣를 해석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瘧疾, 특히 惡性瘧疾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 6) 『嶺外代答』을 보면 “南方의 病을 모두 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中洲(河南)의 傷寒과 類似하다…… 가벼운 경우 寒熱이 往來하여 瘧疾과 같은 것을 冷瘴이라 한다. 심한 경우 熱만 나고 寒氣는 없으며 더 심한 경우 熱이 왕성하게 쌓여 밤낮으로 甃불에 누운 것 같은 것을 熱瘴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瘧疾과 瘴病은 동일한 질병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히 嶺南 지역의 瘴病 중에서 瘧疾과 증후가 유사한 冷瘴의 경우를 瘴瘴이라 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馮漢鏞, 「瘴氣의 文獻研究」, 『中華醫史雜誌』1期, 1981은 황달, 소갈증, 크레틴병, 쯤쯤가무시병, 표저(瘰癧), 瘴毒發背, 靑腿牙病, 고산병, 셀렌중독, 공기 오염으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유황중독, 수은중독, 수질오염으로 인한 烏腳病(Black foot disease), 癌腫, 꽃가루 알레르기, 매독 등 열대병, 지방병, 기생충병, 수질오염이나 대기 오염으로 야기된 질병 전체를 瘴病으로 보았다. 金強·陳文源, 「瘴設」, 『東南亞縱橫』7期, 2003은 瘴病은 남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總稱이라고 인식했다. 鄭洪·陳朝暉·何嵐, 「“瘴氣”病因學特點源流考」, 『中醫藥學刊』11期, 2004 역시 瘴氣가 惡性瘧疾 외에 다른 질병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7) 張文, 「地域偏見和族群歧視:中國古代瘴氣與瘴病的文化解讀」, 『民族研究』3期, 2005는 瘴氣를 문화적 함의와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瘴氣와 瘴病은 남방 특히나 서남지역에 대한 지역 편견과 민족차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瘴氣와 瘴病 관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소멸은 어떤 질병의 탄생·발전·소멸이 아니며, 변경지역 문화에 대한 편견의 탄생과 발전, 소멸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 8)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의 初步研究」, 『地理學報』4期, 1993, p.305.
- 9) 역사지리학의 각도에서 瘴氣 분포지역의 변화, 장기와 자연환경,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들이 있다.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의 初步研究」, 『地理學報』4期, 1993은 瘴病과 南方지역 개발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2000년 동안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로 瘴氣의 분포 지역이 점차 남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梅莉·晏昌貴·龔勝生, 「明清時期中國瘴病的分布與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1期, 2000은 기후와 人地 관계 변화로 인해 惡性瘧疾 분포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남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대해 지적하였다.
- 10) 龔勝生, 1993, p.314.

더하여 기후변화 역시 瘴氣 분포지역의 변천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하였듯 瘴氣는 주로 기후가 덥고 습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기후가 한랭해지면 瘴氣 분포지역 역시 축소되었다. 중국 역사상 기후는 몇 차례 冷暖交替를 겪었으나 명대 기후는 대체로 한랭건조해져 갔으며, 기후가 한랭해지면서 瘴氣 분포지역 역시 점차 축소되었다.<sup>12)</sup>

明대의 瘴病 분포지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雲南, 廣西, 貴州, 廣東, 湖南, 四川, 福建 등 省에 분포하고 있었다.<sup>13)</sup> 그 중에서도 雲南 지역이 가장 심각하였는데, 각 府州에 모두 瘴氣 기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東南部に 위치한 廣南府에는 “山이 많고 嵐霧가 자욱하며 봄·여름·가을 瘴癘가 유행하고, 겨울에 이르러 비로소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4)</sup> 특히 雲南省의 남부와 서부지역은 瘴氣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었다. 이곳에는 “어떤 (地名)壩에 가려면, 먼저 아내를 시집보내고 다시 관목을 집에 사놓아야 한다”는 가사의 民謠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瘴氣로 인해 雲南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서 그곳에 묻힐 뿐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sup>15)</sup>

廣西 역시 瘴氣가 심각한 지역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였다. 일례로 弘治 14年(1501) 廣西 融縣(融水縣, 融安縣)에서 낮은 불처럼 덥고, 밤은 겨울처럼 추운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疫癘가 발생하여 인근 마을에 전파되었으며, 심지어 일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6)</sup> 수많은 사람이 瘴氣로 인해 사망했으며, 瘴氣 발생 지역은 ‘死亡毒氣’, ‘死亡之鄉’의 대명사가 되었다. 더하여 “生齒不繁”, “土旷人稀” 상태에 놓여 늘 노동 가능한 인구가 부족하였다. 설령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해도 체력이 허약해지면서 힘든 노동을 할 수 없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17)</sup>

## 2.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瘴氣가 분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瘴氣는 토착민보다 처음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景岳全書』에서는 『衛生方』을 인용해 北方에 거주하는 사람이 瘴病에 더 쉽게 감염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1) 梅莉·晏昌貴·龔勝生, 1997, p.41.

12) 龔勝生, 1993, p.314.

13) 梅莉·晏昌貴·龔勝生, 1997

14) (清)黃懋林, 『西車魯日記』卷2. 梅莉·晏昌貴·龔勝生, 1997, p.34에서 재인용.

15) 吳春明, 『百越研究·第4輯』, 廈門大學出版社, 2015, p.156.

16) 龔勝生 編著, 『中國三千年疫災史料匯編』, 齊魯書社, 2019, p.241.

17) 이외에 기존 연구에 의하면 瘴氣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남녀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瘴氣가 분포하는 지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으며, 남녀비율 역시 불균등했다. 남녀비율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宋代 周去非는 “南方의 盛熱은 男子에게 적합하지 않고, 특별히 婦人에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瘴氣 작용의 결과인데, 男性은 疾病에 대한 저항력이 女性보다 낮았으며, 결국 단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龔勝生, 1993, p.313 참조.

廣東에 사는 北人이나 혹은 廣東을 왕래하는 途者は 모두 陰陽이 서로 搏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열 명 가운데 두세 명이 병에 들고, 途者は 열 명 가운데 여덟아홉 명이 병에 걸린다.<sup>18)</sup>

段汝霖의 『楚南苗志』 역시 瘴氣의 만연과 처음 이곳에 온 사람들이 더 쉽게 전염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苗地는 산봉우리가 중첩되고, 嵐霧가 증발하여 오르니 (자욱하고), 四時 맑은 날이 적고 비가 많이 오며, 늘 潮濕하여 괴롭고, 瘴癘의 氣가 쌓이면 苗瘴이 된다. 居民은 쉽게 이 증상에 전염되며 처음 이룬 자는 더욱 심하다.<sup>19)</sup>

따라서 당시인들이 瘴氣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秦漢時代 이래 관료들은 瘴氣가 발생하는 지역에 부임하는 것을 기피하였고, 이곳에 보내지는 것은 그들에게 좌천을 의미하였다.<sup>20)</sup> 또한 瘴氣가 발생하는 지역에 부임하여 瘴病에 걸려 사망했다는 기사는 正史는 물론이고 지방지, 문집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례로 宣德 6년(1431) 都督 山雲이 올린 상소를 보면, 廣西 지역에 부임했던 많은 수의 관료들이 瘴氣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廣西 左·右两江(郁江, 黔江)에 土官衙門 49處를 설립하였으나, 蠻의 性は 無常하고, 원한으로 인한 살인과 쟁탈이 끊이질 않는다. 朝廷에서는 늘 臣(廣西 都督 山雲)과 巡按御史三司가 함께 官理하여 끊어내라 명하였다. 곳곳이 모두 瘴鄉이며 아울러 蠱毒이 있어 3年 동안 관리를 파견하여 그곳으로 갔는데, 죽은 사람이 모두 17명이나 된다.<sup>21)</sup>

瘴氣로 많은 관료가 사망하자 명대 관료이자 인문지리학자인 王士性은 雲南의 “廣南을 지키던 依智高 이후 그 땅은 毒과 瘴이 많아 流官이 감히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sup>22)</sup>

한편 瘴氣가 분포하는 서남지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며,

18) 張介賓, 『景岳全書』卷14, 「性集·雜草證謨」.

19) (清)段汝霖 『楚南苗志』 卷5. 김현선, 「明清時代 兩湖 山岳地域 人口 移動과 疫病」, 『명청사연구』52, 2019, p.228에서 재인용.

20) 徐時儀, 「說“瘴癘”」, 『江西中醫藥』2期, 2005는 “瘴癘”라는 말은 북방의 사람들이 덥고 습하며, 삼림이 뻥뻥한 남방에 도달하여 그 지역 水土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에 감염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와 연관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문화지리적 인상과 이미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고대 관료들이 남방지역으로 좌천되었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한 이민족 사이에 머물며 심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더하여 또한 그곳의 水土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에 감염되면,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은 종종 이러한 답답하고 처량한 마음을 瘴病과 연결시켰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21) 『明史』卷317, 「列傳二〇五·廣西土司」, 趙梳, 2014, p.16.

22) (明)王士性 『廣志釋』卷5, 「西南諸省」.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을 징집하였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을 관료의 형편이 그러했다면, 열악한 군영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sup>23)</sup>

이곳으로 온 군인들이 瘴氣에 노출되어 瘴病에 걸린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洪武 28年(1395) 7月 3日 廣西 都指揮使 韓觀은 兵士들을 통솔하여 宜山 등 縣의 蠻寇 2800여 명을 포획하였으며, 반란군의 僞大王 韋召, 僞萬戶 趙成秀, 韋公旺 등의 머리를 베어 京師로 보냈다. 이때 嶺南 지역은 매우 더웠으며, 官軍 대부분 瘴에 걸리고 말았다. 이에 韓觀은 군대를 철수하여 廣西로 還軍하라고 上命하였다.<sup>24)</sup>

또 다른 사례로 正統 14年(1449) 8월에 중앙 정부에서는 廣西 郁林州 등 지역을 수비하는 154명의 旗兵을 파견하였다. 그 다음해 景泰 元年(1450)에서 景泰 2年(1451) 8月 사이에 병사들이 瘴疫에 감염되어 60명이 사망했다.<sup>25)</sup> 弘治 2年(1489)에는 중앙 정부는 湖廣 官軍 만여 명을 파견하여 潯州, 柳州, 斷藤峽 등 지역에 주둔시켰다. 그런데 많은 官兵이 瘴癘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sup>26)</sup>

이렇듯 瘴氣는 수많은 군인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명조의 통치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심지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철수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였다. 예를 들어 嘉靖 22年(1543) 貴州의 銅仁和 平頭 지역에서 龍子賢과 龍科桑이 반란을 일으킨 후 湖廣의 麻陽 등 지역을 전전하며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였다.<sup>27)</sup> 이에 명 조정에서는 副都御史 萬鏜을 파견하여 토벌을 명하였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며 군량을 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초목이 우거지고 瘴毒이 가득하여 군사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중도에 부대는 귀환을 서둘러야 했다.<sup>28)</sup>

嘉靖 30年(1551)에는 雲南 元江府의 토쑤인 那鑑이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朝弼과 都御史 石簡에게 그것을 토벌하라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다섯 개의 軍으로 나누어 城으로 다가가 공격하였다. 거의 城이 기울어지는 상태가 되었으나, 이내 瘴이 발생하여 부대는 되돌아 가야만 했다.<sup>29)</sup>

더하여 명대 중후기 왜구 등 침입이 빈번해 졌으며, 왜구의 침입 후 瘴病이 빈번하게 유행하였다. 嘉靖 38年(1559) 4月 福建省의 福安縣에 倭寇가 침입하여 縣城이 함락되었으며, 倭寇가 침입한 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가득했

23) 장기 발생 지역으로 처음 온 군인들은 먼 길을 오느라 이미 체력이 매우 허약해진 상태이며, 또 덥고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瘴病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瘴疾로 본다면 토착민에 비해 瘴疾 즉 말라리아에 대한 면역력이 낮았을 것이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일정 정도의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갔을 때 면역력이 없어 쉽게 감염되고 임상증상 역시 비교적 심각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瘴疾에 더 쉽게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4) 趙桅, 『名實錄·清實錄-煙瘴史料輯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4, p.6.

25) 龔勝生 編著, 『中國三千年疫災史料匯編』, 齊魯書社, 2019, p.207.

26) 趙桅, 『名實錄·清實錄-煙瘴史料輯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4, p.34.

27) 高文德, 『中國少數民族史大辭典』, 吉林教育出版社, 1995, p.495.

28) 段汝霖, 『楚南苗地』卷6, 「土志」, 김현선, 2019, p.229에서 재인용.

29) 李良品·彭福榮·王希輝 主編, 『二十五史西南地區土司史料輯錄』, 中國文史出版社, 2006, pp.294-295.

으며, 계속하여 瘴癘이 유행하여 거의 2000여 명이 사망했다.<sup>30)</sup> 또 萬曆 4年(1576) 廣東 羅定州 函口에서 주둔하던 參將 楊照의 部隊에 大疫이 유행했는데, 이때 瘴疫으로 사망한 士卒이 반이나 되었다.<sup>31)</sup>

이렇게 瘴氣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곳에 처음 와본 관료와 군인의 생명은 더욱 크게 위협하였다. 반란 진압 등을 위해 군인들이 징병되었을 때 전쟁을 치루기도 전에 瘴病에 걸려 사망하였으며, 수많은 북변의 군인들이 타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瘴氣로 인한 군인들의 사망은 통치자에게 西南邊境지역을 효율적 管理하고 다스리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다.<sup>32)</sup>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sup>33)</sup>

이에 중앙 정부는 군인을 징병할 때 土兵을 징병하여 “以夷制夷” 혹은 “以蠻攻蠻”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瘴癘의 위험을 피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4)</sup> 혹은 남방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토벌해야 할 때 중앙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대대적 토벌을 통해 瘴癘를 피하고자 하였다. 다만 郭應聘은 “炎荒瘴癘 지역에 수만 군중을 투입하여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으며, 그 소굴을 빨리 파괴해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35)</sup>

### Ⅲ. 담배의 ‘避寒辟瘴’ 효능과 吸煙 문화의 확산

#### 1. 北邊 군인의 瘴氣 예방과 담배

군인들의 瘴氣 감염 사례와 民謠는 군인들이 운남으로 들어갔을 때 瘴氣에 의한 피해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明代 末年 雲南 瘴氣 지역에 있던 官軍이 무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官軍은 瘴氣가 심각한 滇西 지역으로 진군하였다.<sup>36)</sup>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죽거나 병들었다. 이때 오직 한 병영의 군인들만 무사하였으며, 이는 부대 지도자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이 병영의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하여 張介賓은 군대 내에 瘴氣를 막기 위해 담배를 흡연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30) 龔勝生 編著, 2019, pp.320-321.

31) 龔勝生 編著, 2019, p.334.

32) 정철웅, 『明·淸 시대 湖廣 소수민족 지역의 土司와 국가 권력, 1368~1735』, 아가넷, 2021, pp.47-57은 호 광 소수민족 지역에 국가 권력을 침투시키는데 瘴氣로 인한 어려움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3) 馬亞輝, 「瘴氣與邊疆安全: 環境史視闕下清朝西南邊境管理的困境及應對」, 『昆明學院學報』1期, 2021, p.20.

34) 範宏貴, 『華南與東南亞論稿』, 民族出版社, 2014, p.97.

35) 『明史』卷317, 「郭應聘傳」.

36) 陳樹平, 「煙草在中國的傳播和發展」, 郭聲波, 『四川歷史農業地理』, 四川人民出版社, 1993, p.210에서는 張介賓이 언급한 “征滇之役”은 天啓 연간 雲南 永寧土司 奢崇明 반란을 진압한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였다. 王懿之 主編, 『玉煙之光-雲南玉溪卷煙廠發展史』, 雲南人民出版社, 1992, p.45에서는 正統 6年에서 14年(1441-1449) 兵部尚書 王驥가 滇西邊境의 麓川(현 隴川, 瑞麗等地)土司 叛亂을 토벌한 전쟁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배의 유입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天啓 연간의 永寧土司 奢崇明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있다.

담배는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최근 明 萬曆 연간부터 福建, 廣東에서 시작해 후에는 楚(장강 하류와 중류) 지역에 널리 심었다. …습관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한 것은 征滇之役に 병사들이 瘴地로 깊이 들어갔으므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한 營만이 무사하였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그 營의 병사들이 모두 담배를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지금 西南에서는 노소를 불문하고 하루종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sup>37)</sup>

군인들 사이에 담배를 피우며 瘴氣를 예방하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담배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담배가 정말 瘴氣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을까? 만일 담배가 장기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면, 이후에 瘴病에 의한 피해는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에 의한 피해와 그에 대한 걱정은 清代 이르러서도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였다. 일례로 雍正 元年(1723) 雲南 元江에서 “魯魁山之亂”이 발생했는데, 淸朝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官兵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官兵 가운데 약 20명 정도가 瘴에 감염되었고, 결국 元江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雍正 2年(1724) 雲南 威遠에서 改土歸流를 진행할 때도 瘴氣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으며, 瘴病에 걸려 사망한 兵丁만 189명이었다.<sup>38)</sup> 즉, 담배는 더 이상 장기 예방 물질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담배가 장기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sup>39)</sup>

당시 瘴氣에 의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담배 흡연이 아닌 장병 발생률의 자연적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대 지속적인 개발과 기후 한랭화로 인해 장기 분포지역이 축소되면서, 瘴病 발생률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명말 기후는 매우 한랭했으며, 자연스럽게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瘴氣의 분포지역이 축소되었을 것이다. 즉 담배가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瘴病 발생률이 낮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瘴氣의 감소가 담배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담배에 대한 신비한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25年 諸葛亮이 南征을 위해 士兵들을 이끌고 雲南의 매우 무더운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때 사병 대부분이 瘴氣와 熱毒에 감염되었고, 이에 諸葛亮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수소문하였다. 그때 그곳의 토착민은 그에게 “九葉雲香草”를 주었고, 제갈량은 그것을 태워서 士兵들에게 연기를 빨아들이도록 했다. 마침내 瘴毒이 제거

37) 張介賓, 『景岳全書』卷48, 「草正·隰草」, 楊國安 編著, 『中國煙業史匯典』, 光明日報出版社, 2002, pp.638-639.

38) 馬亞輝, 2021, p.21.

39) 다만 瘴病이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瘴疾이나 열대의 풍토병이라면, 瘴疾의 병원체인 모기나 다른 毒蟲 쫓아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군인들이 피우던 담배는 잎을 말아서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사용하는 시가와 비슷하게 냄새가 매우 강렬했다. 매운 담배 연기로 인해 모기가 가까이 올 수 없었을 것이다. 範宏貴, 2014, p.97 참조.



되었으며, 이것이 담배의 시작이 되었다.<sup>40)</sup> 삼국시대 제갈량으로부터 담배가 이용되기 시작되었다는 이 전설은 安徽, 雲南, 貴州, 四川, 陝西 등 지역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다. 제갈량은 중국 사회에서 지혜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또한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sup>41)</sup>

제갈량이 담배를 이용해 瘴氣를 제거했다는 전설로 인해 사람들은 담배가 장기를 치료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약초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담배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이미지가 부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食物本草』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海外에 鬼國이 있는데, 그곳의 풍속은 사람이 病에 걸려 죽을 때가 되면 深山에 버린다. 예전에 國王의 딸이 病에 걸렸는데, 엄격하게 버리고 가버렸다. 정신이 혼미한 중에 짙은 향기가 나고 있어, 보니 누워있는 곳 가까이에 풀이 있었다. 이내 나아가 그 냄새를 맡으니, 곧 깨어나 온몸이 청량해지고,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窟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이 풀을 얻어서 일명 返魂煙이라 하였다.<sup>42)</sup>

더하여 당시 의사들은 담배에 대한 약용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으며, 담배는 약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sup>43)</sup> 특히나 張介賓은 반복해서 담배를 복용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담배의 약용적 효과를 입증하려 했다. 결국 그는 담배를 神劑라고 불렀으며, 담배의 성질과 효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烟草의 味는 辛하고, 氣는 溫하며, 性은 微熱하고, 升하며 陽이다. ……(담배를) 들이 마실 때 반드시 인후를 열고 길게 흡입하여 下焦에 곧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 氣가 上行하면 心肺를 따뜻하게 할 수 있고, 下行하는 즉 肝, 脾, 腎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복용 후에 온몸이 따뜻해져 약간의 땀이 나고, 元陽이 갑자기 왕성해진다. 表證 치료에 사용하면, 일체의 陰邪와 寒毒, 山嵐, 瘴氣, 風濕의 邪가 腠理를 막아 생긴 筋骨疼痛을 쫓아내는데,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神劑이다.<sup>44)</sup>

張介賓 외에 많은 의사들이 담배의 약용적 효능, 특히 장기 예방과 치료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였다. 1694년 『本草備要』를 저술한 汪昂 역시 “風寒과 濕痺, 막힌 氣와 멈춘 痰을 치료하고, 山嵐과 瘴霧를 치료한다”고 언급하였다.<sup>45)</sup> 또한 陳琮은 『烟草譜』에서 『牋外余言』을 인용하여 “담배의 효능은 茶·酒와 같다. 茶는 渴을 멈출 수 있

40) 王懿之 主編, 1992, p.44.

41) 梁從寬 主編, 『河南烟草志·第3卷(評审稿)』, 河南烟草志編纂委員會, 2011, p.1737.

42) 陳琮 『烟草譜』, 「嗅煙返生」, 楊國安 編著, 2002, p.59.

43) Carol Benedict, *Golden-Silk Smoke: A History of Tobacco in China, 1550-20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90. 명말 儒醫들은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에 대체로 개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학파는 새로운 본초 약물과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험했다. 특히 溫朴學派는 열정적으로 담배를 일종의 약물로 받아들였다.

44) 張介賓, 『景岳全書』卷48, 「草正·隰草」, 楊國安 編著, 2002, pp.638-639.

45) (清)汪昂, 鄭金生 整理, 『本草備要』,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9, p.66.

고, 酒는 寒을 막을 수 있다. 담배는 즉 風寒을 치료하고, 瘴穉를 피할 수 있다. (담배를) 삼키고 토하는 사이 온몸에 거의 미친다”고 설명하였다.<sup>46)</sup> 의사들이 언급한 담배의 효능은 사실 실제 담배의 효능과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담배가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瘴氣를 예방해 준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였을 것이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한 의가 역시 적지 않다. 明末 方以智는 『物理小識』에서 “흡연이 肺部 질병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談遷(1593~1656)은 『棗林雜俎』에서 담배의 “성이 燥하고 毒이 있으며,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짧게 언급된 이러한 경고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입하여 피웠다. 더하여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상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담배의 독특한 효과와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하였으며, 담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 속에 담배 흡연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sup>47)</sup>

## 2. 北戍 군인의 寒疾 예방과 흡연문화의 확산

남방에 유입된 담배는 瘴氣를 예방하기 위해 군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이내 북방으로 전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方以智는 “萬曆 末, 漳泉에서 淡巴菰(烟草)를 가진 馬氏가 (담배)를 만들어 淡果肉이라 하였으며, 점차 九邊으로 전파되었다”고 하였다.<sup>48)</sup> 이를 통해 담배가 福建에서 遼東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북방으로 전파된 담배는 남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군인들 사이에 이용되었다. 俞正燮의 『癸巳存稿』卷11, 「吃煙事述」을 보면, “처음에는 오직 南兵이 北方을 수비하며 그것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다.<sup>50)</sup> 즉 북방 수비에 징집된 “南兵”이 담배를 가져와 피운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淸初 張璐의 『本經逢原』에서는 북으로 전파되었던 담배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福建 지역의 사람들이 (담배를) 흡입하여 瘴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되어, 향후 北人이 그것에 기대어 寒을 피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천하에 두루 行하고 있다.<sup>51)</sup>

즉 남방지역에서 瘴氣 예방을 위해 이용되었던 담배는 점차 북방에서 寒을 피하는

46) 陳琮 『烟草譜』, 「性味」, 楊國安 編著, 2002, p.55.

47) Carol Benedict, 2011, p.89-90. 17세기 초 中醫의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동시에 유지되었으며, 이는 유럽에서 담배에 대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학 평가에서 이후 부정적 평가로 점진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것과 다른 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48) 傅立民·賀名倫 主編, 『中國商業文化大辭典』, 中國發展出版社 1994, p.328.

49) 담배의 동북지역으로 유입 경로와 시기와 관련하여 1621년 조선과의 전투와 조선에서 잡혀 온 군인에 의한 유입, 1629년 이후 후금에 잡혀간 명의 북방 군민에 의한 유입, 천계 연간 후금에 귀순한 몽골 부족에 의한 유입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萬曆 연간 징집된 ‘南兵’이 담배를 흡연하면서 남부 연안의 한인이 후금과 사적으로 교역하였고, 이는 담배가 후금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叢佩遠 主編, 『中國東北史·第4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 pp.1059-1062 참조.

50) 楊國安 編著, 2002, p.173.

51) (淸)張璐, 『本經逢原』, 中醫古籍出版社, 2017, p.4.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王露의 『無稽譚』에 실린 「烟筒傳贊」 역시 변경의 군인들이 瘴과 寒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정황을 언급하였다.

淡巴菰는 產自呂宋에서 생산되었는데, 앞서 明代 中國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오직 戍邊의 軍士들이 瘴을 피하고 寒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점차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sup>52)</sup>

명말 담배는 북방지역에서 수비하는 군인들이 寒濕을 막는데 이용하였으며, 이내 중국 각지로 퍼져나가 농민반란군 역시 寒濕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清初 葉夢珠의 『閱世編』은 李自成과 張獻忠 부대가 담배를 통해 寒濕을 防治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煙草는 처음 북건에서 나왔다. 내가 어렸을 때 諸先 조부가 말하길 “福建 煙이 있는데, 그것을 흡입하면 취할 수 있어 乾酒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곳에는 절대 없었다. 崇禎 연간, 畝城에 彭姓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從(者)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本地에 심고 그 잎을 캐어 말리었다. 流寇(李自成과 張獻忠의 군대)가 그것을 먹으며, 寒濕을 피하는데 이용하였다.<sup>53)</sup>

여기서 언급된 寒濕이 단순한 추위를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蝮庵瑣語』에서 기록된 “煙葉은 閩中에서 나왔다. 邊上인이 寒疾에 걸리는데, 이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북방에서 寒疾에 걸렸을 때 담배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54)</sup>

寒疾의 사전적 의미는 寒濕의 邪가 일으키는 질병을 말한다.<sup>55)</sup> 그렇다면 寒疾 예방을 위해 담배가 이용된 원인인 무엇일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萬曆 46년(1618)에서 天啟 2년(1622)까지 內地에서 약 230만의 군인이 징집되어 遼東 지역으로 들어갔다. 징집된 군인 가운데 南兵이 매우 많았으며, 이들은 북방에서의 寒濕과 寒疾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이용하였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 倪朱謨의 『本草匯言』, 葉夢珠의 『閱世編』 등은 담배가 瘴氣 뿐 아니라 寒疾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의사와 지식인의 이러한 설명은 사람들의 기대를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더하여 명말 기후가 매우 한랭해졌으며,<sup>57)</sup> 河北, 河南, 浙江, 江蘇, 山東, 江西, 湖

52) 王露, 「烟筒傳贊」, 楊國安 編著, 『中國烟草文化集林』, 西北大學出版社, 1990, p.222.

53) (清)葉夢珠, 來新夏點校, 『閱世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67.

54) 王逋 『蝮庵瑣語』, 謝國楨 著, 謝小彬·楊璐 主編, 『謝國楨全集·第4冊』, 北京出版社, 2013, p.304.

55) 韓成仁·黃后金·王德全, 『中醫証病名大辭典』, 中醫古籍出版社, 2000, p.450. Carol Benedict, 2011, p.94는 담배가 인삼 등과 유사하게 傷寒을 치료하는 溫性藥物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담배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煙草譜』, 『本草備要』, 『怡曝堂集』, 『樊榭山房集』에서는 ‘寒’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食物本草』, 『馮氏錦囊秘錄』, 『食物本草會纂』에서는 ‘風寒濕痺’, 『本草匯言』은 ‘霜露風雨之寒’, 『閱世編』은 ‘寒濕’, 『景嶽全書』는 ‘寒毒’, 『本草綱目拾遺』는 ‘寒癘’, 『梅谷偶筆』은 ‘寒邪’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蝮庵瑣語』에서는 ‘寒疾’ 병명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북방에서 담배를 피운 목적이 傷寒이 아닌 寒 즉 추위를 막거나 추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56) 叢佩遠 主編, 2006, p.1059.

北, 湖南 등 많은 지역에서 疫病이 유행하였다.<sup>58)</sup> 당시 河南省 荻嘉縣의 상황을 살펴 보면 崇禎 9年에서 13年(1640) 동안 旱災와 蝗災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아울러 병사와 도적이 약탈하고, 癘疫이 횡행하였다. 백성이 병사들에 죽고, 도적에게 죽고, 굶주림과 추위로 죽고, 疫에 걸려 죽으니 100명 가운데 한두 명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였다.<sup>59)</sup>

극심한 추위과 기근, 더하여 난생 처음 보는 역병이 사회를 휩쓸었지만, 마땅한 치료책은 없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가고 있었다.<sup>60)</sup> 그런데 『梅谷偶筆』을 보면, “그 氣는 芳香 辛粹하고, 그 功當은 癘疫을 피하고, 瘴癘를 내쫓고 寒邪를 흩어지게 한다”고 하여 담배가 癘疫을 피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王士禎의 『香祖筆記』 역시 “근래 京師에서 또 鼻煙을 만들어, 明目을 밝게 할 수 있으며, 더욱이 疫을 피하는 功이 있다”고 하며, 담배의 疫病 예방 기능을 언급하였다.<sup>61)</sup>

瘴氣와 寒疾을 피하기 위해 이용된 담배는 시간 지나면서 ‘百疾’은 물론이고 ‘癘疫’까지 예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었다. 명말청초 역병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지만 아무런 치료책도 없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시에 신비한 약물로 여겨진 담배에 희망을 걸고 역병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담배는 그 약리적 효능에 힘입어 급속히 퍼져나갔다.

담배가 확산되면서 1638년 崇禎帝는 烟禁令을 下令하였으며, 淸의 太宗 역시 烟令을 내렸다.<sup>62)</sup> 다음해 肅宗제는 더욱 엄격한 烟令을 반포했으며, “嗜煙者死”의 규정을 반포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고자 하였다.<sup>63)</sup> 이와 관련하여 王逋의 『蚓庵瑣語』는 烟令 실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崇禎癸未(1643) 禁煙의 令이 내려졌으나, 민간에서 담배를 재배하면 問徒에 처해졌는데, 법은 가볍고 죄는 重하니, 犯者가 전과 같았다. 이윽고 犯者를 斬에 처하는 下令이 내려졌다. 오래지 않아 軍中에 病寒이 치료되지 않아 마침내 그 禁이 느슨해졌다. <sup>64)</sup>

57) 일반적으로 1500~1700년 사이를 ‘소빙기(Little Ice Age)’로 보고 있으며, 명 중후기는 바로 이에 해당한다. 기후사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竺可楨,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中國科學』2期, 1973은 17세기가 매우 한랭했던 시기이며 1620년에서 1720년 사이가 가장 한랭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김문기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적어도 1577년 이후부터 심각한 한랭화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소빙기 기후는 명대 자연재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明末江南의 氣候와 崇禎 14년의 奇荒」, 『중국사연구』37, 2005; 同, 「17세기 江南의 小氷期 氣候」, 『명청사연구』27, 2007; 同,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氣候變動」, 『역사와 경계』 77, 2010 참조.

58) 龔勝生, 「中國疫災的時空分布變遷規律」을 보면 중국 역사상 한랭한 기후와 疫病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랭기에는 疫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온난기에는 疫病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고 했다. 17세기 한랭한 기후 환경에서 疫病이 대유행하였다. 명청시대 기후와 역병 발생의 관계는 김현선, 「明末 兩湖지역 기후변동과 疫病」, 『中國史研究』130輯, 2021 참조.

59) 龔勝生, 2019, p.449.

60) 1640년대에는 중국 전역에서 명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역병이 유행했다. 당시 저명한 의사들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이 역병을 ‘疔瘡瘡’, ‘疔疽瘡’ 이라고 불렀는데, 증상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페스트와 부합한다.

61) 楊國安 編著, 2002, p.55.

62) 청대 烟禁令과 관련하여 임경준, 2021 참조.

63) 國家烟草專賣局 主編, 『中國烟草年鑑：1991-1995』, 1996, p.391.

64) 王逋 『蚓庵瑣語』, 謝國楨 著, 謝小彬·楊璐 主編, 『謝國楨全集·第4冊』, 北京出版社, 2013, p.304.

당시 연금령에도 불구하고, 戍邊의 兵士들이 담배를 피우며 寒을 물리쳤다는 인식 속에 兵部尚書 兼薊遼總督 洪承疇는 煙禁을 해제할 것을 청하였으며, 崇禎 末年 禁煙의 일은 점차 중간에서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sup>65)</sup>

####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담배와 흡연문화의 확산을 명대 瘴氣 분포와 담배의 약용적 기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 남방지역에는 소위 瘴氣라 불리는 毒氣가 널리 분포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다. 瘴氣는 대체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습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明代에는 주로 雲南, 廣西, 貴州, 廣東, 湖南, 四川, 福建 등 省에서 장기가 발생하였다.

瘴氣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으며, 특히 처음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였다. 그런데 瘴氣가 주로 분포하는 서남지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중앙 정부는 군인들을 징집하여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곳에 처음 온 북변의 군인들은 쉽게 瘴病에 걸렸으며, 많은 군인들이 瘴病으로 사망하였다. 심지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군인 목숨을 잃어 철수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였다.

그런데 明代 末年 瘴氣가 만연한 雲南 지역에 있던 官軍이 무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官軍은 瘴氣가 심각한 滇西 지역으로 진군하였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瘴病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오직 한 병영의 군인들만 무사하였으며, 이는 官軍 통솔자의 주의를 끌었다. 통솔자는 조사를 통해 이 병영의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내 담배를 피우며 瘴氣를 예방하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남방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은 담배를 피우며 瘴氣를 예방했다.

瘴氣를 예방한다는 담배의 효능은 입증할 수 없으며, 당시 瘴病의 감소는 지속적인 환경 개발과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명대 중후기 瘴氣 분포 범위는 점차 축소되었으며, 瘴病에 의한 피해 역시 점차 감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담배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와 의사들의 담배 효능에 대한 설명, 상인들의 선전으로 瘴病에 걸리지 않은 원인이 담배라고 믿었다.

곧이어 담배는 북방으로 전파되었으며, 북방을 수비하던 南兵들은 寒濕과 寒疾을 막기 위해 담배를 이용하였다. 명말 기후는 매우 한랭해졌으며, 河北, 河南, 浙江, 江蘇, 山東, 江西, 湖北, 湖南 등 많은 지역에서 疫病이 유행하고 있었다. 극심한 추위와 기근, 더하여 난생처음 보는 역병이 사회를 휩쓸었지만, 마땅한 치료책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담배가 寒濕과

65) 中國煙草通志編纂委員會, 『中國煙草通志·第五卷』, 中華書局, 2006, p.1871.

寒疾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심지어 百病과 癘疫 까지 없앨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땅한 치료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담배가 癘疫을 막아줄 것이라 기대하였으며, 담배는 이러한 약용적 기능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사료집

- (清)葉夢珠, 來新夏点校, 『閩世編』, 上海古籍出版社, 1981  
(清)張璐, 『本經逢原』, 中醫古籍出版社, 2017  
(清)汪昂, 鄭金生 整理, 『本草備要』,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9  
龔勝生 編著, 『中國三千年疫災史料匯編』, 齊魯書社, 2019  
楊國安 編著, 『中国烟草文化集林』, 西北大学出版社, 1990  
楊國安 編著, 『中國煙業史匯典』, 光明日報出版社, 2002  
趙梔, 『明實錄·清實錄·煙瘴史料輯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4  
中國煙草通志編纂委員會, 『中國煙草通志·第五卷』, 中華書局, 2006

### 2. 연구서

- 정철웅, 『明·清 시대 湖廣 소수민족 지역의 토司와 국가 권력, 1368~1735』, 아카넷, 2021  
Carol Benedict, *Golden-Silk Smoke: A History of Tobacco in China, 1550-20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郭聲波, 『四川歷史農業地理』, 四川人民出版社, 1993  
範宏貴, 『華南與東南亞論稿』, 民族出版社, 2014  
謝小彬·楊璐 主編, 『謝國楨全集·第4冊』, 北京出版社, 2013  
吳春明, 『百越研究·第4輯』, 廈門大學出版社, 2015  
王懿之 主編, 『玉煙之光-雲南玉溪卷煙廠發展史』, 雲南人民出版社, 1992  
梁從寬 主編, 『河南烟草志·第3卷(評审稿)』, 河南烟草志編纂委員會, 2011  
李良品·彭福榮·王希輝 主編, 『二十五史西南地區土司史料輯錄』, 中國文史出版社, 2006  
趙梔, 『名實錄·清實錄·煙瘴史料輯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4  
叢佩远 主編, 『中國東北史·第4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  
韓成仁·黃后金·王德全, 『中醫証病名大辭典』, 中醫古籍出版社, 2000

### 3. 논문

- 김문기, 「明末 江南의 氣候와 崇禎 14년의 奇荒」, 『중국사연구』 37, 2005  
김문기, 「17세기 江南의 小氷期 氣候」, 『명청사연구』 27, 2007  
김문기,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氣候變動」, 『역사와 경계』 77, 2010  
김현선, 「明清時代 兩湖 山岳地域 人口 移動과 疫病」, 『명청사연구』 52, 2019  
김현선, 「明末 兩湖지역 기후변동과 疫病」, 『中國史研究』 130, 2021  
원정식, 「명청시대 담배의 정치·사회경제사적 의의」, 『명청사연구』 23, 2005  
원정식, 「18세기 中國社會의 吸煙文化 研究-담배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吸煙禮俗의 형성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29輯, 2008

- 임경준, 「담배 태우는 만주인들-清初 만주인의 담배문화와 烟禁令-」, 『明清史研究』 55, 2021
- 可中, 「瘴癘爲何物」, 『百科知識』1期, 1994
- 龔勝生, 「2000年來中國瘴病分布變遷的初步研究」, 『地理學報』4期, 1993
- 龔勝生, 「中國疫災的時空分布變遷規律」, 『地理學報』6期, 2003
- 鞠舒雨·徐曉銘·戴建國, 「烟草的中醫藥功效考究」, 『臨床醫藥文獻電子雜誌』31期, 2020
- 金強·陳文源, 「瘴設」, 『東南亞縱橫』7期, 2003
- 杜勇, 「明清時期中國對吸烟與健康關係的認識」, 『中華醫史雜誌』, 2000
- 馬亞輝, 「瘴氣與邊疆安全: 環境史視閥下清朝西南邊境管理的困境及應對」, 『昆明學院學報』1期, 2021
- 梅莉·晏昌貴·龔勝生, 「明清時期中國瘴病分布與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2期, 1997
- 徐時儀, 「說“瘴癘”」, 『江西中醫藥』2期, 2005
- 宋軍令, 「明清時期對烟草藥用價值的認識和利用」, 『農業考古』1期, 2009
- 張文, 「地域偏見和族群歧視: 中國古代瘴氣與瘴病的文化學解讀」, 『民族研究』3期, 2005
- 鄭洪·陳朝暉·何嵐, 「“瘴氣”病因學特點源流考」, 『中醫藥學刊』11期, 2004
- 竺可楨,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中國科學』2期, 1973



## 【토론문 2】

### 〈明代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과 담배 유행〉에 대한 토론문

이상훈(한양대)

본 발표에서는 명대 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 문제와 그 인식 및 대응 과정에서 담배가 유행하게 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명 중기 이후 담배와 흡연 문화 확산의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담배의 약용적 기능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담배 확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본 발표의 주장은 상당히 독창적인 점이 있다.

다만 논리 전개 및 사료 해석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여 본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머리말**에서 명대 담배 확산과 관련한 선행 연구 성과 정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명대 담배 확산의 요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머리말에서 서술한다면 본 발표의 연구사적 의의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론 II.1.明代 중국의 瘴氣 분포**에서 ‘瘴氣’의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현대 많은 연구자들이 瘴氣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일종의 열대 질병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한 뒤 ‘하지만 고대 문헌에서 瘴氣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며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또한 瘴病을 질병이 아닌 문화와 정치적 관념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본고에서는 瘴氣를 실존하는 질병으로 보고, 질병 기록에 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발표자가 어떠한 이유로 瘴氣를 실존하는 질병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본론 II.1.明代 중국의 瘴氣 분포**에서 각주 9번 ‘瘴氣는 중국 전통의학 중 邪氣 이론에서 왔으며, 이 이론은 남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潮濕霧氣에서 왔으며, 이것은 남방의 지리와 기후 환경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서술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본론 II.1.明代 중국의 瘴氣 분포**에서 明代의 瘴病 分布지역을 설명하며 雲南 지역의 瘴病이 가장 심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운남의 각 府州에 모두 瘴氣 기록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그 근거 자료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府州에 모두 瘴氣 기록이 있다고 해서 운남 지역의 瘴病이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다음으로 **본론 II.2.北邊 군인의 瘴病 감염**에서 明朝 官과 兵의 瘴氣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시한 뒤 ‘이렇듯 瘴氣는 수많은 官兵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명조의 통치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고 서술한 부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발표자가

제시한 사례들이 명조가 瘴氣로 인해 통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지만 그것으로 '명조의 통치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론 Ⅲ.1.北邊 군인의 瘴氣 예방과 담배**에서 발표자는 명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담배가 瘴氣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지속적인 개발과 기후 한랭화로 인해 瘴氣 분포 지역이 축소되면서 瘴病 발생률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 한랭화와 瘴氣 분포 지역 축소 및 瘴病 발생률 감소의 상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3발표】**

**海澄에서 厦門으로 : 16~17세기 복건 해외무역 창구의 변화**

채경수(경상국립대)



# 海澄에서 廈門으로 : 16~17세기 복건 해외무역 창구의 변화

채경수(경상국립대)

- I. 서론
- II. 明朝의 開海와 海澄의 성쇠
- III. 鄭氏集團의 등장과 安海의 대두
- IV. 明清交替의 격동과 廈門의 부상
- V. 결론

## I. 서론

용경 원년(1567) 명 제국은 福建 漳州府의 海澄縣을 제국의 공식적인 대외 무역 창구로 삼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海澄은 원래 오랜 세월 연해 지역 밀무역의 거점으로 기능해왔던 月港이었고, 置縣의 결정 자체도 불과 한해 전에 이뤄진 것이었다. 海澄 開港은 가정 연간부터 이어져 온 명조의 후기왜구에 대한 대응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든 문제였다. 불과 수년 전 王直이라는 거물이 제거되었지만 왜구의 활동은 종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건과 광동에서는 한층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말하자면 명조는 후기왜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뒤 해상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해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한 것이었다.

강희 23년(1684) 청 제국은 공식적으로 開海를 선언하였다. 명와 달리 청의 개해는 연해 전 지역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것이었고, 연해 4성에 해외무역에 대처하기 위한 상관인 海關을 설립하였다. 청조의 개해 역시 4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정씨집단과의 대립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든 문제이다. 양자의 차이는 청조가 명조와 달리 정씨집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 해상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해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복건 지역의 閩海關은 명 후기 이래 지역의 중심 항구였던 海澄 대신에 廈門에 자리 잡았다. 명대 廈門은 海澄을 외부 해상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였다. 120여 년 만에 민남 지역 내 해외무역의 중심지는 내륙 가장 깊숙한 위치에서 바다로 가장 열려있는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海澄은 명대 복건 연해 지역의 해외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는 소재이다.<sup>2)</sup> 비단 복건 지역뿐만 아니라 명조의 해양 정책을 통시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에서

1) 채경수, 「가정 말기 '새로운 왜구'의 등장과 명조 해방 정책의 변화」, 『동양사학연구』 149, 2019, pp.114-27.

도 海澄을 명 후기 해양 정책의 변화를 상징하거나 혹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소재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sup>3)</sup> 廈門 역시 閩海關의 소재지로서 청대 복건 연해 지역의 해외무역과 상관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비중 있는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sup>4)</sup> 문제는 두 지역에 관한 연구가 명대사 혹은 청대사의 맥락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두 지역의 근접성과 상호보완 혹은 경쟁적 성격, 17세기에 두 항구의 역내 우열이 뒤 바뀌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다면 海澄과 廈門의 경제적 위상 변화는 명·청 교체라는 정치사적 흐름 속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청의 해양 정책을 하나로 묶어 그 연속과 단절을 분석한 연구가 적지 않지만 대체로 海禁과 海防으로 대표되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복건 지역의 세밀한 사정에까지 관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sup>5)</sup> 명·청 교체기 복건 연해 지역 무역구조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은 주로 정씨집단에 관한 연구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다.<sup>6)</sup> 여기서는 민남 지역의 무역 중심이 海澄에서 곧장 廈門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

- 
- 2) 명 후기 海澄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남민구, 「萬曆年間 海澄縣 상선 징세와 그 배경」, 『東洋史學研究』 149, 2019; 조영현, 「明 後期 月港 開港과 壬辰倭亂」, 『史叢』 90, 2017; 채경수, 「海澄 개항과 새로운 교역망의 형성」, 『明清史研究』 54, 2020; 한지선, 「嘉靖年間 東南沿海社會와 月港의 開放」, 『中國史研究』 90, 2014; 黃友泉, 「明代東南沿海土紳與海疆治理—兼論明代月港部分開禁政策藍本的構畫」, 『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0-2; 劉濤, 「戴城改良의福船与大航海时代漳州月港发展考」, 『閩商文化研究』, 2019-1; 吳春明, 「月港—馬尼拉航路對中華文化史的貢獻」, 『南方文物』, 2019-3; 張永欽, 「論明代漳州月港在海內外貿易交流中的地位」,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1; 陳尙勝, 「隆慶開海·明朝海外貿易政策的重大變革」, 『人民論壇』, 2018-3; 林耀卿, 「漳州月港在古代海絲之路的歷史地位」, 『東方收藏』, 2018-6; 蘇惠蘋, 「族譜所見明清時期中菲貿易的月港海商」, 『沈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1; 任軍, 「全球化視野下明代月港“走私”興起的社會學研究」, 『閩商文化研究』, 2015-6; 林惠玲, 「月港時代漳州的國際化與地方化」, 『閩商文化研究』, 2015-6; 塗志偉, 「大航海時代世界格局下月港地位的變遷」, 『閩商文化研究』, 2015-6.
- 3) 한지선, 「明代 海禁政策 研究」,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第3編; 李慶新, 『明代海外貿易制度』,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第4章; 李金明, 『明代海外貿易史』,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0, 第6·7章; 鄭永常, 『來自海洋的挑戰—明代海貿政策演變研究』, 稻鄉出版社, 2004, 第7章; 晁中辰, 『明朝對外交流』, 南京出版社, 2015, 第8章-第1節; 晁中辰, 『明代海禁與海外貿易』, 人民出版社, 2005, 第8章; 陳尙勝, 『懷夷與抑商: 明代海洋力量興衰研究』, 山東人民出版社, 1997, 第8章. 명조 해양정책을 연구한 몇몇 학자는 海澄 開港이 일어난 1567년을 연구의 하한선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는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웅변한 사례라 할 수 있다(Li Kangying, *The Ming Maritime Trade Policy in Transition, 1368 to 1567*, Wiesbaden : Harrassowitz, 2010; 척양, 「海禁與朝貢: 明朝官方海外貿易研究(1368-1567)」,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4) 廖聲豐·符剛, 「試論“一口通商”時期閩海關的商品流通」, 『江西財經大學學報』, 2010-02; 邱普艷, 「從道光『廈門志』看清朝前期的廈門海關」, 『中國地方志』 2010-02; 張靜, 「清代前期閩海關的設置與福建沿海城市的興盛」,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5; 黃國盛·李森林, 「清代閩海關沿革」, 『文史知識』, 1995-04; 許毅明, 「閩海關(福建常關)歷史沿革初探」, 『海交史研究』, 1992-01; 陳希育, 「清代前期的廈門海關與海外貿易」,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03; 許毅明, 「泉州海關的設立及其歷史演變」, 『海交史研究』, 1988-01.
- 5) 王日根, 『明清海疆政策與中國社會發展』, 福建人民出版社, 2005; 楊國楨 等著, 『明清中國沿海社會與海外移民』, 高等教育出版社, 1997; 盧建一, 『明清海疆政策與東南海島研究』, 福建人民出版社, 2011; 萬明, 『中國融入世界的步履: 明與清前期海外政策比較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徐明德, 『論明清時期的對外交流與邊治』, 浙江大學出版社, 2006.
- 6) 林仁川, 『明末清初私人海上貿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Cheng Wei-Chung(Zheng Weizhong), *War, Trade and Piracy in the China Seas 1622-1683*, Brill, 2013; Hang, Xing,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 1620-17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특히 遷界令 실시 문제를 泉州와 漳州的 지역적 갈등 구도의 시각에서 분석한 元廷植의 연구는 본 연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각을 제시하였다(元廷植, 「清初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東洋史學研究』 81, 2003).

석이 요구된다.

본문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명조가 海澄을 공식적인 대외 무역 창구로 지정한 이후 발생한 다양한 정치·군사적인 이슈들이 무역항 海澄의 興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鄭芝龍과 그 일족이 명말·청초 閩南에서 국가권력에 상당하는 위상을 획득함으로써 安海가 쇠락해가던 海澄을 일정 기간 대체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정씨집단과 청조의 장기 대결하는 과정에서 廈門이 새로운 역내 해외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후 대청제국의 해양 질서에서도 위상을 유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말까지 민남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안보 상황과 해외무역 구조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海澄, 安海, 廈門이라는 세 항구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통해서 그려내고자 하였다. 세 지역은 매우 인접한 곳으로 서로 간의 직선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세 곳은 인접한 데다가 항구로서의 성능도 엇비슷해 보이지만 해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지정학적 위상은 내륙을 장악한 국가권력이 해상세계 혹은 해상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 II. 明朝의 開海와 海澄의 盛衰

복건 연해 지역은 바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복건 지역은 경작지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인구압력을 받고 있었고, 동시에 일본, 류큐, 동남아시아 해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국을 동아시아 해상세계와 연결하는 창구로서 기능을 담당해왔다. 泉州와 漳州로 크게 구분되는 민남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활발한 복건 연해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지역이었기에 해상세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sup>7)</sup>

당대부터 원대까지 대표적인 대외 무역항으로 각광을 받던 천주는 명대에 들어서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다. 해금으로 대변되는 명조의 엄격한 대외정책이 일차적인 장애 요소였지만, 내부적 문제도 있었다. 홍무 4년 三佛齊의 선박이 천주에 입항하였다는 기록이나,<sup>8)</sup> 홍무 7년 잠시 시박사를 설치했을 때, 泉州가 廣州, 寧波와 더불어 그 입지로 선정되었고 영락 연간에도 천주에 시박사를 설치했던 등은 천주가 최소 명초까지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sup>9)</sup> 그러나 홍치 15년(1502) 유구 사신의 조공 루트가 泉州에서 福州로 옮겨졌던 데서 알 수 있듯, 지속적 토사 유입으로 항구의 기능을 잃어가던 천주는 기존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점차

7) 해외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Ng Chin-keong, *Trade and society, the Amoy network on the China Coast, 1683-1735*, NUS Press, 1983(2015 再刊), pp.9-41.

8) 『明太祖實錄』卷六十八 洪武四年 九月 二十八日 丁丑條.

9) 『明史』卷81, 食貨志五-市舶條; 『明太宗實錄』卷二十二 永樂元年 八月 十二日 丁巳條.

해외무역의 주도권을 인근 漳州로 넘기게 되었다.<sup>10)</sup>

漳州的 대두는 海澄의 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다. 용경 원년(1567) 福建巡撫 塗澤民의 건의가 수용되면서 새로 설치된 海澄縣은 명조의 공식적인 대외 무역항이 되었다. 원래 해당 위치에는 밀무역 집단의 근거지 月港이 있었다.<sup>11)</sup> 『明實錄』에서 海澄 置縣의 이유를 ‘이 지역에 도적이 많기 때문[以其地多盜故]’이라고 한 것처럼,<sup>12)</sup> 이상의 조치는 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장악력 회복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sup>13)</sup> 명조는 해금의 부분적 완화로 극심한 저항을 피하는 동시에 공식창구인 해징을 통해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연해 지역에 대해 안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sup>14)</sup>

개항 이후 海澄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빠르게 지역 거점항구로 자리 잡아갔다. 용경 6년(1572) 漳州知府인 羅靑霄의 건의로 상선에 대한 공식적인 징세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은 3천 냥 정도였던 연간 세액은 3년 후에 두 배인 은 6천 냥이 되었다. 다음 해인 만력 4년(1576)에는 은 1만 냥, 만력 11년(1583)에는 은 2만 냥, 만력 22년(1594)에는 은 2만 9천에 도달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sup>15)</sup> 세액 증가는 당연히 공식 무역의 성장을 의미한다. 공식 무역의 성장을 밀무역의 쇠락과 직결시킬 수는 없겠으나 명조가 제시한 당근이 상당수 지역 상인에게 호소력을 가져 이들을 제도권 무역체계 속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천주인이나 장주인 중에서도 해징 무역의 기득권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해징의 독점구조에 당연히 불만을 품었다. 초기 해외무역 허가는 商稅와 舶稅만 내면 제한 없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력 3년(1575) 처음 商引을 발급하고 引稅를 걷기 시작했지만, 인세 자체의 액수가 크지 않았고, 목적지나 선박의 종류도 재량에 맡겨졌다. 만력 17년(1589)에 이르면 발급되는 상인의 총수가 88장으로 제한되었고 목적지도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후 통제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하는 구조였다.<sup>16)</sup>

안보 문제로 해외무역이 일시 통제되는 경우, 상인들은 수용하여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일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택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당시 福建巡撫 許孚遠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買穀·捕魚의 허가를 받은 뒤 밀무역을 시도하는 상인들에 대해 보고했다. 허부원은 포용 정책을 통해 24척의 밀무역 선박을 제도권 속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성공은 그 자체로 상인들의 높은 일탈

10) 李東華, 『泉州與我國中古의海上交通』, 臺灣學生書局, 1986, pp.232-40.

11) 林仁川, 『明末清初私人海上貿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pp.142-6.

12) 『明世宗實錄』卷五百六十六 嘉靖四十五年 十二月 八日 甲午條.

13) 海澄 置縣과 二十四將의 반란 사건 등 지역 안보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王日根·黃友泉, 「海洋區域治理視域下的月港“二十四將”叛亂」, 『江海學刊』, 2012-5; 李賢強·吳宏岐, 「明代福建月港“二十四將”叛亂與設縣問題再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7-2, 2017-6; 佐久間重男, 「中國嶺南海域の海寇と月港二十四將の反亂」,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2.

14) 木岡さやか, 「明代海禁体制の再編と漳州月港の開港」, 『史窓』 64, 2007, pp.55, 60.

15) 張燮, 『東西洋考』卷1, 「餉稅考」, pp.132-3.

16) 張燮, 『東西洋考』卷1, 「餉稅考」, p.132.



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sup>17)</sup>

만력 27년(1599)부터 시작된 鑛稅使 高案의 활동은 여러 의미에서 해징 무역에 타격을 입혔다. 고채는 자신의 공적 지위를 앞세워 약 16년 동안 해징의 무역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갈취하였다. 그는 지역의 무뢰 등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공적 시스템에 개입하여 이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다.<sup>18)</sup>

만력 30년(1602)부터 진행되었던 ‘황금산 탐색’ 사건은 張巖이라는 인물의 허황된 정보를 믿은 고채가 중앙 조정에게 압력을 가해 마닐라에 탐색대를 파견했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희극적 소동이었지만,<sup>19)</sup> 그 파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마닐라의 스페인 당국은 이를 명조가 마닐라를 침공하려는 전조로 보아 마닐라 거주 중국인을 압박했고, 2만 명 이상의 재지 중국인이 학살당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는 양자의 외교적 대립으로까지 비화하였고 해징-마닐라 무역망을 붕괴의 위기로 몰고 갔다. 결국 福建巡撫 徐學聚의 적절한 대응으로 잘 무마되었지만 이는 고채가 해징 무역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정작 고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은 채 이후에도 건재한 권력을 과시했다.<sup>20)</sup>

기득권 세력에게는 재앙이었던 고채는 불만 세력에게는 돌파구로 인식되기도 했다. 만력 32년(1604) 大泥(파타니)에서 활동하던 해징 상인 李錦은 고채와 VOC(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중개하는 모험을 감행했다.<sup>21)</sup> 그는 고채가 VOC의 비원인 중국무역 창구 획득을 가능케 할 기회를 강조했고, VOC 함대를 澎湖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동향 상인 潘秀와 郭震을 해징에 잠입시켜 고채에게 VOC의 명의로 뇌물을 제공하여 통상의 길을 열고자 하였다.<sup>22)</sup>

뇌물을 받은 고채는 福建總兵 朱文達과 협력하여 이를 허가하려고 했지만,<sup>23)</sup> 福建巡撫 徐學聚와 南路副總兵 施德政이 일사불란하게 강경 대처를 함으로써 이를 저지했다.<sup>24)</sup> 황제가 고채의 뜻을 수용하지 않아 VOC에 대한 호시 허가가 좌절되자 “해상의 사람들이 모두 북쪽을 향해 만세를 불렀다[海上人悉北向稱萬歲]”는 『東西洋考』의

17) 張巖, 『東西洋考』 卷1, 「餉稅考」, p.133. 허부원의 조치와 그 파장에 대해서는 남민구, 「1594년 福建巡撫 許孚遠의 呂宋 사신단 파견-7명의 중국관원」 파견의 전말, 『명청사연구』 54, 2020를 참조.

18) 鑛稅使 시기 高案의 활동과 그 의미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는 蘇惠蘋, 「海洋社會變遷下的福建官紳與海商-以高案事件為中心的考察」, 『閩臺文化研究』, 2014-03, pp.22-29; 張桂林, 「稅璫高案亂閩述略」,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02, pp.140-144; 林仁川, 「明代漳州海上貿易的發展與海商反對稅監高案的斗爭」,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2-03, pp.80-85.

19) 중앙 조정에서는 左都御史 溫純을 비롯한 관료들이 허무맹랑함과 불순한 의도를 비판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만력제는 고채의 주장을 수용했다(『明神宗實錄』 卷374, 萬曆三十年 七月 二十七日 丙戌條).

20) 채경수, 「海澄 개항과 새로운 교역망의 형성」, 『명청사연구』 54, 2020, pp.65-71.

21) 李錦, 潘秀, 郭震 등이 공식 무역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인지는 확실치 않다. 大泥 역시 商引이 배정된 공식 무역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수익성 높은 지역인 마닐라 무역에 종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식 무역 질서에 소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2) 『東西洋考』 卷6, 「外紀考-紅毛番」, pp.127-8.

23) 『東西洋考』 卷8, 「稅璫考」, p.156.

24) 『東西洋考』 卷6, 「外紀考-紅毛番」, pp.128-9; 『明神宗實錄』 卷403, 萬曆三十二年 十一月 十一日 丁亥條.

구절에서 드러나듯, 해징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고채는 기존의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었다.<sup>25)</sup>

고채의 농단이 16년간 기존 무역 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렸음에도 해징의 위상은 유지되었다. 만력 44년(1616) 推官 蕭基가 올린 「恤商釐弊凡十三事」는 어두웠던 고채의 시대를 딛고 해징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었다. 여기에는 폐단을 극복하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sup>26)</sup> 동아시아 해양 세계에서 해징-마닐라의 무역 루트가 가지는 위상이 건재했기에 이는 충분한 가능한 판단이었다.<sup>27)</sup> 그러나 해징-마닐라 무역 루트는 그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압박에 봉착하게 되었다.

VOC에게 해징-마닐라 무역망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1609년 휴전협정 체결로 네덜란드가 사실상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대결은 종식되었다. 하지만 유럽 밖에서의 대결은 오히려 치열해졌고, 이는 주로 VOC가 스페인의 해외식민지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형태였다.<sup>28)</sup> 1610년대까지 양자는 주로 향료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했지만, 1616년의 향료제도 원정 실패로 인해 스페인은 향료제도를 포기하고 마닐라로 후퇴했다. VOC는 전선을 북쪽으로 옮겨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의 동아시아 무역망을 공략해 들어갔다.<sup>29)</sup>

일본 방면에 대한 공략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졌다. 히데요시에 이어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던 도쿠가와 막부는 종교적 색채 없이 순수하게 교역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VOC를 반겼다.<sup>30)</sup> 1600년 규슈에 좌초했던 VOC 선박 데 리프데(de Liefde)가 일본 측에 구조된 것을 계기로 1609년 나사우 공작(Prince Marurice of Nassau)이 파견한 사절단이 막부에게 무역 허가와 관세 면제의 특혜를 받았고, 같은 해 히라도에 최초의 상관이 설치되었다.<sup>31)</sup>

중국 방면에 대한 공략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1601년 광주 방면에서 이뤄진 최초의 시도는 마카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포르투갈인들의 방해로 좌절되었고,<sup>32)</sup>

25) 『東西洋考』 卷7, 「餉稅考」, pp.156-7. 『東西洋考』는 16세기 해양 세계에 대한 높은 정보성으로 인해 주목 받고 있지만, 편을 따로 할당할 정도로 고채가 복건 주재 기간에 저지른 악행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莊孝羽, 「張燮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20, pp.70-2).

26) 『東西洋考』 卷7, 「餉稅考」, pp.135-6.

27) Tremml-Werner, Birgit, *Spain, China, and Japan in Manila, 1571-1644 : local comparisons and global connection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5, pp.143-5.

28) 1609년 네덜란드의 저명한 법률가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자유의 바다(Mare Liberum)』이라는 책을 통해 어떤 국가도 바다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주장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모든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며 무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VOC의 공격은 부당하게 빼앗긴 자유무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행위로 정당화되었다(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손고은 옮김, 『셀던의 중국지도- 잃어버린 항해도, 향료 무역 그리고 남중국해』, 너머북스, 2018, pp.82-4).

29) Giraldez, Arturo, *The Age of Trade*, Rowman & Littlefield, 2015, pp.94-5.

30) Giraldez, Arturo, *The Age of Trade*, Rowman & Littlefield, 2015, pp.106, 108-9.

31) 村井章介·岩井正敏·荒野泰典 編, 『地球史的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3, p.19; 古慧雯, 「十七世紀荷日貿易中臺灣所扮演的角色」, 『經濟論文叢刊』 46-2, 2018, pp.211-2.

32) Wills, John E. Jr., "Maritime Europe and the Ming", Wills, John E. Jr. ed., *China and Maritime Europe, 1500-1800 : Trade, Settlement, Diplomacy, and Missions*, Cambridge ; New York :

1604년 해징 방면으로 이뤄진 시도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향료제도를 둘러싼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1610년대 후반부터 VOC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VOC 함대는 1610년대 후반부터 스페인의 역내 핵심 거점인 마닐라를 공략했다. 그 목적은 마닐라 점령보다는 항로 봉쇄에 있었다.<sup>33)</sup> VOC는 마닐라로 향하는 상선이 해당 항로의 높은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들어 목적지를 VOC 측 항구로 바꾸도록 유도하려 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마닐라의 약점을 공략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였다.<sup>34)</sup> VOC의 적극적 행보는 해징-마닐라 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었다. 『東西洋考』는 만력 45년(1617)에 이미 VOC 함대가 마닐라를 포위한 뒤 그곳에 무역하러 오는 중국 선박을 공격·약탈하여 상인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기록하였다.<sup>35)</sup>

1621년 7월 9일 바타비아 평의회는 지난 몇 년간 펼친 봉쇄 전략의 한계를 본국 이사회에 보고했다. 봉쇄 전략으로는 마닐라에 타격은 가할 수 있었지만, 중국 상인들을 바타비아로 유인할 수는 없었다.<sup>36)</sup> 같은 해 11월 바타비아 평의회는 중국 연해에 '합법적이고 이익이 되는 무역 거점'이라는 대안을 VOC가 마련하지 못하는 한 중국 선박은 마닐라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상인의 진술을 근거로 본국 이사회에 보고했다.<sup>37)</sup> VOC는 광주와 해징 둘 중 한 곳에 대한 배타적 무역 거점 확보를 결정했다.<sup>38)</sup> 첫 번째 목표는 마카오였다. 하지만 전력상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마카오 수비대의 견고한 방어를 뚫는 데 실패했고,<sup>39)</sup> 수정 계획에 따라 함대의 목표를 海澄 앞바다의 澎湖로 조정했다.<sup>40)</sup>

VOC는 1622년 7월 10일 평화를 점거한 후 互市 개설 교섭을 시도했지만, 복건 당국은 매우 강경하게 반응했다. 장기간의 군사·외교적 줄다리기를 끝에 VOC는 1624년 8월 15일 평화를 포기를 선언하고, 대만 서남부의 大員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 VOC가 大員에 상관을 설치하자 역내의 무역 구도가 크게 흔들렸다. 1627년에는 중국 밀무역상이 180척에 달하는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大員으로 몰려들었다. 1628년 명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6.

33) *The Age of Trade*, Rowman & Littlefield, 2015, p.92, 95.

34) Ruurdje Laarhoven, Elizabeth P. Wittermans, "From Blockde to Trade: Early Dutch Relations with Manila, 1600-1750", *Philippine Studies* vol.33, 1985, pp.488-9.

35) 『東西洋考』卷6, 「外紀考-紅毛番」, p.130, "萬曆四十五年, 在呂宋港口迎擊華商, 大肆劫掠, 船主苦之." 사실 세부적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紅毛(네덜란드)를 「列國考」에 넣지 않고 日本과 더불어 「外紀考」에 넣은 것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이었다. 흥모는 일본과 더불어 해징의 무역을 저해하는 대표적 존재로 인식되었다(『東西洋考』, 「凡例」, p.21, "或曰, 日本·紅夷, 何以特書. 書其梗買舶者也.")

36)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2.

37)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3.

38)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4, 6-9.

39) Garret, Richard J., *The Defence of Macau: forts, ships and weapons over 450 years*, Hongkong University Press, 2010, pp.11-3.

40) 陳宗仁은 1622년 VOC의 평화 점거가 단순한 플랜B가 아니라, 스페인이 大員(Lamang)을 점령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陳宗仁, 「一六二二年前後荷蘭東印度公司有關東亞貿易策略的轉變-兼論荷蘭文獻中的Lamang傳聞」, 『臺灣歷史學報』 35期, 2005, pp.288-94).

조가 해상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연해 방어를 담당하는 南路副總兵 俞咨臯와 결탁한 밀무역집단이 생사를 중심으로 한 대량의 중국 상품을 공급했다. 1629년 대만 총독 피터르 나위츠의 보고에 따르면 1627~8년 VOC의 대일본 수출품 중 중국산 생사는 입고가의 68.6%, 총수익의 78.3%를 차지했다.<sup>41)</sup>

大員의 대두는 당연히 해징-마닐라 무역 구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지만 1620년대 말까지 교역망 자체는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VOC는 여전히 마닐라에 대한 봉쇄 등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야 했으며, VOC를 등에 업으려 했던 신흥 중국계 밀무역 집단 수장 鄭芝龍은 복건-광동 길목의 南澳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한 뒤 VOC의 깃발 아래 그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서양에서 오는 선박은 통과시키고 마닐라에서 오는 선박을 공격하여 약탈했다.<sup>42)</sup> 福建巡撫 朱一馮의 보고에 따르면 천계 7년(1627) 조정의 인가를 받고 해징을 출발한 선박은 모두 43척이었고 그중에서 천주와 장주로 무사히 돌아온 선박은 겨우 12척이었다.<sup>43)</sup> 그러나 해징의 결정적 몰락과 새로운 무역 중심지의 대두는 1630년대부터 진행된 鄭氏集團의 지역 권력화와 명·청 교체라는 거대한 정치적 동란을 통해 만들어진 국면 속에서 진행되었다.

### Ⅲ. 鄭氏集團의 擡頭와 安海의 得勢

鄭氏集團의 창설자인 정지룡은 福建 泉州府 南安縣 石井 출신이다. 그는 천계 원년(1621) 18세에 고향을 떠나 광주로 간 후, 약 십 년간 日本, 臺灣 등지를 떠돌며 밀무역에 종사하였다. 천계 4년(1624) 海澄 출신 顏思齊의 밀무역 조직에 가담한 뒤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고, 이듬해 顏思齊가 사망하자 조직을 이어받았다.<sup>44)</sup>

조직을 이어받은 정지룡은 VOC와의 동업 관계를 구축하여 조직을 장악했고, 때마침 발생한 민남 지역의 대기근을 이용해 크게 세력을 불렀다.<sup>45)</sup> 천계 7년(1627) 자신을 진압하려는 南路副總兵 俞咨臯의 군세를 차례로 격파한 뒤 역으로 그를 하문성으로 몰아넣고 포위했다.<sup>46)</sup> 이 사건은 명 중앙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工科給事中 顏繼祖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俞咨臯를, 兵科給事中 張鼎延이 관리 책임이 있는 福建巡撫 朱一馮를 탄핵했다.<sup>47)</sup>

해임된 朱一馮에 이어 福建巡撫에 취임한 熊文燦은 정지룡 포섭을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했고, 비대해진 조직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정지룡이 이에 호응하였다.

41) 채경수, 「淸朝 臺灣 영유 결정의 해양사적 고찰」, 『명청사연구』 55, 2021, pp.125-31.

42) Cheng Wei-Chung, *War, Trade and Piracy in the China Seas 1622-1683*, Brill, 2013, pp.36-43.

43) 『鄭氏史料初編』 卷1, 「兵部題行兵科抄出福建巡撫朱題稿」, p.5.

44) 川口長孺, 『臺灣鄭氏紀事』, 卷之上, pp.2-3; 江日昇, 『臺灣外記』 卷1, pp.3-5, 13-15.

45) 『海濱大事記』, 「閩海海寇始末記」, p.9, “天啟六年春, 泉州海盜鄭芝龍與弟芝虎據海島, 截商粟, 樹旗招兵, 犯中左所. 初, 泉州饑民剽擄海上, 出沒無恆, 而芝龍爲之魁. (中略) 七月, 鄭芝龍劫商船, 勢寢大, 其黨謀攻廣東海豐嵌頭村以爲穴. 芝龍初只聚船十餘隻, 漸至百隻. 及福海嚴米禁, 饑民附者益衆, 遂達千艘.”

46) 江日昇, 『臺灣外記』 卷1, pp.25-30.

47) 『崇禎長編』, 崇禎元年正月二十七日條; 崇禎元年三月二十日條.

송정 원년(1628) 구월 정지룡은 명조로부터 防海遊擊이라는 공식 직함을 획득했다.<sup>48)</sup>

명군에 가담한 정지룡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연이어 발생하는 과업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sup>49)</sup> 첫 번째 과업은 자기 조직의 잔당을 포함한 연해의 해적들을 제거하는 문제였다. 정지룡의 수하였던 李魁奇는 정지룡 등 수뇌부의 명군 가담에 불만을 품은 잔당을 규합하여 해적 활동을 이어갔다.<sup>50)</sup> 정지룡은 연해 지역의 민병대와 어부를 동원하여 수적 열세를 극복했고,<sup>51)</sup> 송정 3년(1630) 사월에는 이괴기를, 팔월에는 이괴기 집단의 잔당인 종빈 집단을 제압하여 복건 연해의 주요 해적 세력을 모두 소탕해냈다. 명조는 정지룡의 공훈을 인정하여 그에게 提督銜을 부여했다.<sup>52)</sup>

송정 4년(1631) 명조는 정지룡을 福建·廣東·江西의 산악 교계에서 발생한 鐘凌秀 반란 진압에 투입했다. 처음에는 1천 명 이하의 소규모 반란집단에 불과했던 鐘凌秀 무리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관군을 물리치고 江西에서 廣東으로 연결되는 교역로인 九龍新道를 장악하여 통과세를 거둠으로써 수만 명 규모의 거대 반란 세력으로 성장했다.<sup>53)</sup>

정지룡의 부대는 규모가 특별히 크지 않았고 내륙 전투 경험도 많지 않았기에 큰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종능수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황의 극적 반전을 경험한 福建, 廣東, 江西의 당국자들은 앞다투어 정지룡의 활약을 중앙 조정에게 보고했고,<sup>54)</sup> 병부에서도 그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보고를 올렸다.<sup>55)</sup>

종능수 반란에서 맹활약한 정지룡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다시 복건 전선에 투입되었다. 송정 5년(1632) 구월 劉翥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해적세력이 등장해서 연해 지역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이다. 유향의 배후에는 그를 이용해서 숙원 사업인 중국 진출을 달성하려는 VOC가 도사리고 있었다. VOC는 표면적으로는 정지룡

48) 『靖海志』附錄, 「鄭芝龍受撫」, p.100.

49) 鄭芝龍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설령 그의 유용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충성심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에 한시적 용도로만 정지룡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정지룡이 활동하던 시기 同安知縣을 역임했으며, 현지의 사정을 자세히 담은 『靖海紀略』을 지었던 曹履泰는 정지룡을 烏附和 鍼砭에 비유하며 위기 상황에서 잠시 쓸 수 있을 뿐 參苓과 五穀처럼 계속 사용할 수는 존재라고 평가했다(『靖海紀略』附錄, 「跋」, p.79, “烏附可攻毒, 而續命必藉參苓. 鍼砭可偶試, 而養生必資五穀. 閩之用芝龍, 烏附也, 偶試之鍼砭也. 選將鍊兵, 舉賢治賊, 參苓五穀也.”).

50) 『明季北略』, 卷5, 「張延登請申海禁」, pp.90-1, “近據偵探, 自李芝奇叛鄭芝龍而去其黨, 若陳成宇·白毛老·赤紫哥·桂叔老, 竄入閩粵之界, 約船六百餘號, 釜游不定, 彼荒歉無所得食海洋寥廓, 順風一葦可航, 萬一復來, 爲害更烈.”

51) 『靖海紀略』卷2, 「上蔡道尊」, p.35, “鄭芝龍得以次第發舟, 皆好機括也. 中左單虛, 附近鄉兵, 約有二千餘人, 分爲三十二社. 職令其每社立一社首, 每十人編爲一甲, 已親往料理矣.”

52) 『臺灣鄭氏紀事』卷之上, p.7; 『崇禎長編』, 卷31, 崇禎三年二月二十六日丙子條; 卷58, 崇禎五年四月四日辛未條.

53) 『鄭氏史料初編』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p.37.

54) 『鄭氏史料初編』卷1, 「會勦廣東山寇鍾凌秀等功次殘稿」, pp.42-4; 『崇禎長編』卷59, 崇禎五年 五月 二日 己亥條; 卷61, 崇禎五年 七月 十二日 戊申條; 卷62, 崇禎五年 八月 九日 甲戌條.

55) 『明實錄閩海關係史料』附錄2, 「鄭氏史料初編補輯-兵部行總理盧象昇咨稿」 p.175.

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단시일 내에 그를 통해 대중국 무역 창구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sup>56)</sup> 유항 세력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福建省城 福州의 입구인 閩安鎮을 공격해 약탈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고,<sup>57)</sup> 명조는 정지룡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정지룡은 절강·복건 연해 각지로 파견되어 유항 세력을 몰아내는 한편으로,<sup>58)</sup> 교섭을 통해 VOC를 설득하고자 하였다.<sup>59)</sup> 복건 연해 지역에서 구축되어 팽호로 물러났던 VOC가 정지룡과 교섭을 진행하자 불안을 느꼈고, 기습적으로 大員의 VOC 요새를 차지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다.<sup>60)</sup> 이 사건으로 인해 VOC와 유항의 연합은 파탄에 이르고, 유항은 세력을 이끌고 광동 연해로 달아났다. 이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양광총독 옹문찬은 토벌을 위해 정지룡을 소환했고, 승정 8년(1635) 사월 정지룡은 마침내 유항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sup>61)</sup>

李魁奇, 鍾斌, 鍾凌秀, 劉香 등을 연파함으로써 정지룡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게 되었다. 북쪽의 동란으로 연해 지역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던 명 조정에서는 정지룡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연해 지역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정지룡의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부분으로까지 여겨졌다.

승정 12년 3월 泉州府 同安縣 출신의 工科給事中 傅元初가 올린 개해 건의 상소는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잘 반영한 글이다. 부원초의 개해 건의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개해를 통해 전국 각지의 군사적 위기에 대응할 군비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개해가 연해 지역의 안보 상황 자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부원초는 명조가 紅毛(네덜란드) 때문에 開洋之稅를 포기했으나 실효성이 없었으며, 정지룡에게 맡기면 파생되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62)</sup>

중앙 조정의 상황과는 별도로 정지룡은 명군에 가담한 직후부터 고향인 泉州의 安海에 새로운 밀무역 거점을 설립하였고,<sup>63)</sup> 해외무역의 중심을 海澄에서 安海로 옮겨오는 데 성공했다.<sup>64)</sup> 밀무역 집단일 때부터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

56)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121.

57) 『崇禎長編』卷63, 崇禎五年 九月 二日 丁酉條.

58) 『崇禎長編』, 卷65, 崇禎五年 十一月 二十日 甲寅條.

59) 程紹剛,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p.144-5; 村上直次郎 譯注, 中村孝志 校注, 『バタヴィア城日誌1』, 平凡社, 1970, pp.170-1.

60) 村上直次郎 譯注, 中村孝志 校注, 『バタヴィア城日誌1』, 平凡社, 1970, pp.209-10.

61) 『臺灣鄭氏始末』卷1, p.6.

62)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第26冊, 「福建」, pp.434-5. 유사하면서 한층 강력한 주장을 승정 16년(1643) 戶部尚書兼翰林院學士인 倪元璐도 펼쳤다(『倪元貞奏疏』卷9, 「臚陳生節疏」).

63) 安海는 예전부터 해상의 요지로 지목되었다. 가정 연간 해방의 주역 朱純은 핵심 방어지점으로 安海, 梅嶺, 桐山 세 곳을 지목했다. 梅嶺이 광동 쪽, 桐山이 절강 쪽 해로를 통제했다면, 安海는 천주로의 진입로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明世宗實錄』卷347, 嘉靖二十八年四月十二日辛亥條).

64) Cheng Wei-Chung, *War, Trade and Piracy in the China Seas 1622-1683*, Brill, 2013, pp.55-76; 『荷蘭人在福爾摩莎』, 聯經出版事業公司, 2000, p.119.

던<sup>65)</sup> 정지룡은 유자고와의 대결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천주 유력층의 삶과 권익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호의를 얻어냈다.<sup>66)</sup> 명군에 합류한 다음에는 효과적인 해적 토벌로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았다.<sup>67)</sup> 천주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전후 사정이 어쨌든 鄭芝龍과 安海의 대두는 수십 년간 漳州와 海澄에 밀려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해외무역에서 천주의 위상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송정 13년(1640) 팔월 27일, 정지룡은 복건 지역의 군무를 총괄하는 福建總兵이 되었다.<sup>68)</sup> 명조는 불과 4년 후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정지룡 일족은 이후에도 南明政權에 대한 후원과 해외무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복건 연해 지역에서 명조의 권력을 계승한 존재로 활동하였다.<sup>69)</sup> 당연히 安海 역시 海澄을 대신하는 지역 무역 거점으로 기능을 이어갔다.

블로(博洛)가 이끈 청군은 순치 3년(1646) 팔월 汀州에서 隆武帝를 사로잡은 후 잔존 거점을 하나씩 점령해나갔고 시월 19일 漳州를 끝으로 복건 전역을 사실상 평정했다. 용무정권을 포기한 정지룡 일족은 청군을 막는 대신 병력과 자원을 긁어모아 安海로 집결했다. 청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정지룡이 빠르게 투항을 결정했기에 安海는 전화를 모면했지만, 정지룡이 북경으로 소환되고 휘하 세력 상당수가 이탈하자 安海의 호시절은 허망하고도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sup>70)</sup>

## V. 明清交替의 激動과 廈門의 浮上

청조에 투항하지 않은 정씨집단의 잔당이 저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거점으로 낙점된 곳은 廈門이었다. 하문은 명대부터 높은 군사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인식되었다.<sup>71)</sup> 천계 3년(1623) 정월 24일 福

65) 江日昇, 『臺灣外記』 卷1, p.31; 『崇相集選錄』, 「寄張蓬玄」, pp.69-70; 『明熹宗實錄』 卷87, 天啟七年 八月二十日 癸丑條.

66) 『靖海紀略』 卷1, 「答朱明景撫臺」, pp.3-4. 『臺灣割據志』의 기록에 따르면 정지룡의 공격 목표가 장주 일대에 집중된 것은 그가 천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장주인들은 정지룡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반면 천주인들은 그를 포섭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충돌했다(『臺灣割據志』, p.1, “芝龍泉人, 故侵漳而不侵泉. 漳人議勦, 泉人議撫, 兩郡異議紛然.”).

67) 부원초는 앞선 상소의 끝에 정지룡이 연해의 안보와 무역을 통제하도록 해야 하며, 송대에 시박사가 ‘천주’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자신 혼자 뜻이 아니라 복건 지역 사회의 공론임을 강조했다(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第26冊, 「福建」, p.435).

68) 『崇禎實錄』, 崇禎十三年八月二十七日丙子條.

69) 정지룡은 남명정권 중 특히 복건에 수립된 隆武政權에 깊이 관여하였다. 정씨 일족은 형식적 관료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와 재정을 능단하며 隆武政權을 위락파락하였다. 『明季南略』, 卷11, 「閩紀-鄭森入侍」, p.315, “時內外文武濟濟, 然兵餉·戰守機宜俱鄭芝龍爲政. 鴻逵·芝豹皆其弟也. 故八閩, 以鄭氏爲長城. 芝龍開府於福州, 坐見九鄉, 入不揖, 出不送.” 보다 자세한 내용은 南炳文, 『南明史』, 1992, pp.140-56.

70) 南炳文, 『南明史』, 南開大學出版社, 1992, pp.156-9.

71) 廈門은 中左所라는 별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명 초 衛所의 설치 및 재배치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宋代부터 嘉禾嶼라고 불렸던 이곳은 泉州 同安縣에 속해 있었고, 元代에도 嘉禾千戶所를 설치하였다. 홍무 20년(1387) 江夏候 周德興이 복건 연해 지역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연해 지역의 방어를 위해 永寧衛를 세웠고, 그 중 中·左 2개의 所가 통합되어 中左所라는 이름으로 이 섬에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에는 섬 자체를

建巡撫 商周祚는 VOC의 팽호 점거에 관한 보고에서 廈門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紅夷가 유월 우리 澎湖에 쳐들어와서는 사람을 보내 互市를 요구했습니다. 말은 공순했지 만 청한 바를 허락하지 않자 5척의 배를 보내 우리 六敖를 침범했습니다. 六敖는 漳浦에서 매우 가까우니 형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중략) 적당들은 결국 다시 銅山을 넘보지 못하고 外洋으로 배를 띄워 옛 浯嶼에 정박했습니다. 이곳은 中左所[廈門]에서 겨우 一潮之水가 떨어진 곳입니다. 中左所는 同安과 海澄의 문호입니다. 洋商들이 海澄에 운집하니 오랑캐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탐내왔습니다.<sup>72)</sup>

보고에서 상주조는 中左所, 즉 廈門을 漳州의 입구인 海澄과 泉州의 입구인 同安을 보호하는 대문[門戶]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 만력 45년(1617) 通判 王起宗의 건의로 공관을 圭嶼로 옮기기 전까지 해징 입항 선박은 진입 전에 하문에 정박해서 조사받아야 했다.<sup>73)</sup>

淸朝와 鄭氏集團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인해 전통적인 廈門의 전략적 입지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과거의 하문이 내륙 정권이 연해 지역을 무질서한 외부 해상세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파제였다면, 이 시기의 하문은 해상세력이 내륙의 강적을 연해 지역을 무대로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교두보로 기능하였다.

廈門에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것은 鄭彩·鄭聯 형제였다. 그들은 정지룡의 조카로 정씨집단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sup>74)</sup> 정채 형제는 하문에 주둔한 채 상황을 지켜모다가 용무제가 사망하자 곧장 舟山에 있던 監國 魯王의 휘하로 들어갔다.<sup>75)</sup> 청군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던 魯王政權은 정채 형제의 가세를 크게 환영했고, 근거지를 하문으로 옮겨 옴으로써 정권의 명운을 이들 형제에게 의탁했다.<sup>76)</sup>

鄭成功은 鄭芝龍의 장자였지만 직할 병력이 없었기에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南澳로 피신하여 수천 명의 세력을 규합했고 숙부인 鄭鴻逵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기반을 닦았다. 청 측은 정씨일족이 연합하여 기각지세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이들은 상반되는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정채 형제는 노왕정권을 지지했고 청군에 수세적이었으나, 정성공은 영력정권을 지지했고 적극적인 공세로 연해 근거지를 신속하게 회복하려 했다.<sup>77)</sup>

中左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廈門志』 卷2, 「分域略-沿革」, pp.15-6).

72) 『明熹宗實錄』 卷30, 天啟三年 正月 二十四日 乙卯條, “自六月入我澎湖, 專人求市, 辭尚恭順, 及見所請不允, 突駕五舟犯我六敖. 六敖逼近漳浦, 勢甚岌岌. (중략) 賊遂不敢復窺銅山, 放舟外洋, 拋泊舊浯嶼, 此地離中左所僅一潮之水. 中左所爲同安·海澄門戶, 洋商聚集於海澄, 夷人久垂涎.”

73) 王起宗은 公館의 圭嶼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廈門 驗船의 3가지 불편함을 제시했지만, 입지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천주 소속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東西洋考』 卷7, 「餉稅考-公署」, p.153).

74) 鄭彩·鄭聯은 隆武政權에서 받은 작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집단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들이었다(鄧漪, 『明季遺聞』 卷4, 「福建·兩廣」, p.97; 『小腆紀年』 卷10, pp.501-2).

75) 『臺灣外記』 卷2, p.96; 『續明史紀事本末』, 卷7, 「閩海遺兵」, p.149.

76) 『靖海志』 卷1, p.14; 翁洲老民, 『海東逸史』 卷12, 「列傳九-張名振」, p.9.

77) 『鄭成功傳』, 「清史列傳鄭芝龍傳」, p.41.



정성공은 청군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안정적 거점이 절실히 필요했다. 연해 지역에 힘들게 거점을 마련해도 청군의 증원 병력에 퇴각하기를 수년째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채 형제가 하문과 금문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에 정성공은 鼓浪嶼라는 작은 섬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순치 7년(1650) 팔월 정성공은 정채가 부재한 틈에 기습을 감행하여 정련을 제거하고 하문을 차지했다. 하문을 차지함으로써 정성공은 대규모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속하게 연해 지역에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순치 8년(1651) 정성공이 광둥 지역으로 진출한 틈에 福建巡撫 張學聖의 명을 받은 泉州總兵 馬得功이 하문을 기습하여 일시적으로 점거했지만, 수군 역량이 거의 없는 청군은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sup>78)</sup> 하문은 제해권에서만 우위를 지닌 작은 해상 세력이 거대 육상세력을 상대하기에 최적의 거점이었다.

하문을 차지한 정성공은 현지 세력의 호응에 힘입어 민남 연해 지역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정성공이 민남 연해 지역을 장악한 뒤, 노왕정권의 잔당을 흡수하고 광둥의 反淸勢力과 연계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자 청조는 정성공에 대한 포섭을 시도했다. 청조는 정성공에게 투항하면 海澄公으로 삼아 연해 지역을 통제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sup>79)</sup>

청조가 정성공을 '海澄公'으로 임명한 것은 음미할 가치가 있는 대목이다.<sup>80)</sup> 청조는 훗날 黃梧에게도 '海澄公'의 타이틀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황오의 경우, 자신이 지키던 해징을 바치면서 투항했기 때문에 海澄公이라는 타이틀이 자연스럽지만,<sup>81)</sup> 정성공의 경우에는 해징과 연결 지을 특별한 연고가 없었다. 정성공의 입장에서 해징은 뒤늦게 확보한 지역에 불과했다.

바다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초기의 청조는 鄭成功, 黃梧와 같은 존재들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연해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사시에 이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곳에 이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오랜 세월 명조의 통제 속에서 대양의 창구로 기능했던 해징은 최적의 입지였다. 만약 정성공이 청조의 제안을 받아들였거나 청조가 조기에 정씨집단을 제압했다면, 해징이 부흥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씨집단은 이후 30년간 저항을 이어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조는 海禁과 遷界라는 폐쇄적인 對洋政策을 사용해야 했기에 해징은 부흥은 실현되지 못했다.<sup>82)</sup>

연해 지역에서 정씨집단의 영향력 확대는 본거지 하문의 위상 변화로 이어졌다. 순치 12년(1655) 유월 청조는 연해 각성의 바다에 엄격한 해금령을 발동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씨의 선단은 연해 각지를 자유롭게 오고 갔으며, 각지 상인

78) 『泉州府志選錄』, 「志事-紀兵」, p.3; 『三藩紀事本末』 卷4, 「鄭成功之亂」, pp.76-7.

79) 채경수, 「鄭氏集團의 變貌와 淸朝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157, 2021, pp.291-2.

80) 반면 영력정권은 같은 시기 정성공을 漳國公에 임명하였다(『小腆紀年』 第5冊-卷18, p.864).

81) 『淸世祖實錄』 卷一百三 順治十三年 八月 十七日 壬辰條.

82) 강희 19년(1680)에 올린 보고에서 福建水師提督 萬正色은 총 3만 명의 병력을 복건 연해 13개 핵심 거점에 포진하는 계획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海澄에만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5천 명을 배치하였고, 廈門·金門·定海·銅山·南澳에 각각 3천 명을 배치하였다. 이는 당시 청조가 해징을 복건 연해 지역 안보의 중추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福建通志臺灣府』, 「疏議」, pp.411-2).

들은 청조의 감시망을 피해 정씨집단과의 거래를 시도했다.<sup>83)</sup> 정씨집단에 협력했다가 발각된 상인 중에는 유난히 천주 출신이 유난히 많았다. 史順 등 일군의 천주 상인들은 밀수로 상의 관료를 매수하여 밀무역 루트를 장기화 시키려고 시도했고,<sup>84)</sup> 천주 상인 李楚와 楊奎는 정성공이 발급한 '통항 허가증[牌票]'를 가지고 暹羅로 해외 밀무역을 시도하다가 청군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sup>85)</sup>

순치 15년(1658) 정월 右都督 蘇明이 올린 揭帖은 하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밀무역 루트의 단면을 보여준다. 순치 13년(1656) 칠월에 황오와 함께 청조에 투항해온 소명은 정씨집단의 사정에 상당히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는 청조가 정씨집단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문으로 들어가는 대량의 물자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하문에는 자체적 생산력이 거의 없지만 복건과 광둥 각지에서 몰려드는 奸商들의 선박으로부터 막대한 물자가 유입되고 있어 정씨가 막대한 병력과 대함대를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한 정씨 토벌은 요원함을 지적했다.<sup>86)</sup>

순치 18년(1661) 팔월 황오의 건의에 따라서 청조가 천계령을 내렸을 때, 그 취지가 정씨집단과 연해 상인들의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87)</sup> 해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해 지역 상인들은 감시망을 피해 하문 중심의 무역 질서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나가사키에 들어오는 복건 선박의 수는 청조의 해금 상황과는 무관하게 강희 2년(1663)까지 일정한 숫자가 유지되다가 강희 3년(1664)부터 급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천계령 실시도 아니고, 정성공의 대만 공략도 아닌, 청조가 VOC와 연합하여 하문을 공략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鄭經이 연해 지역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 약 20년 동안 연해 지역에서 출발하여 나가사키로 입항한 중국 선박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sup>88)</sup> 즉 정씨집단의 비호를 상실한 하문은 해외무역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오랫동안 상실했다.

청조는 하문을 확보하여 연해 지역에서 정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씨집단의 재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청조는 천계 상태를 해제할 수 없었다. 삼번의 난 발발 한 해 전인 강희 12년(1673) 福建總督 范承謨는 천계의 장기화로 인해 복건 연해 경제가 파탄 수준 위기에 봉착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민심의 이반이라는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sup>89)</sup> 범승모의 우려

83) 대표적 사례로 福寧 연해 지역의 林行可集團을 들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채경수, 「遷界令의 전략적 의미 재검토」, 『明清史研究』 48, 2017, pp.79-81을 참고.

84) 『明清史料』 己編-第4本, 「福建巡撫殘件」, p.393.

85) 『明清史料』 己編-第5本, 「兵部題爲李楚楊奎違禁出海事本」, pp.407-9.

86) 『明清史料』 丁編-第2本, 「右都督蘇明殘揭帖」, p.182.

87) 『明清史料』 丁編-第3本, 「嚴禁通海勅諭」, p.257.

88) 채경수, 2017, pp.90-1.

89) 채경수, 2017, pp.88-9.

가 타당했다는 점은 삼번의 난 시기 연해 지역으로 재진출한 정씨집단에 대한 복건 연해의 주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통해 증명되었다.

강희 13년(1674) 정경의 군대가 복건에 진입하자 연해 지역 주민들은 열렬하게 환영했다. 정경은 하문과 해징을 장악한 후, 두 곳을 중심으로 연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정경은 이를 견제하려다가 실패했고, 순식간에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했다.<sup>90)</sup> 정경에 대한 연해 지역민의 지지는 해외무역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경은 대만 중심의 무역을 고수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해 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무분별하게 징발하는 근시안적 행보로 인해 연해 지역민의 지지를 급속히 상실했다.<sup>91)</sup>

강희 19년(1680) 이월 海壇을 상실함으로써 원정 실패가 기정사실이 되자 정경은 심복인 劉國軒에게 지휘를 일임하고 먼저 대만으로 귀환했다. 청군의 공세를 막아내면서도 잔존 병력을 보존하여 철수해야 했던 유국헌에게는 보루가 되어줄 안정적인 거점이 필요했고 하문이 그 역할을 맡았다. 유국헌은 마지막까지 하문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대만으로 완전히 철수시킨 다음에 하문을 포기하고 물러났다.<sup>92)</sup>

강희 22년(1683) 유월 복건수사제독 시랑이 이끄는 함대가 팽호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같은 해 칠월 鄭克塽 등이 투항을 함으로써 청조와 정씨집단 간의 오랜 대립이 종식되었다.<sup>93)</sup> 정씨집단을 제거한 후, 청 제국은 해양정책에서 두 가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는 정씨집단의 오랜 근거지인 대만을 제국의 영역으로 흡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천계와 해금이라는 극단적인 대양 봉쇄정책을 해제한 것이었다.

대만 영유는 향후 청 제국의 적극적 해양정책의 시금석에 해당하는 조치였다. 대만 영유는 원래 비용은 큰 데 반해 실익이 적은 조치로 인지되었다. 많은 신료가 대만을 버리고 팽호만 취하는 명조의 소극적 방어전략을 답습할 것을 주장했고, 심지어 강희 제조차 “대만은 탄환과 같은 작은 땅이라 얻어도 더해지는 것이 없고, 잃어도 손해나는 것이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영토적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福建水師提督 施琅는 대만 영유를 제국의 해양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팽호만 유지해서는 연해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 제국은 대만 영유를 결정했고 이를 위해 1만 명 규모의 臺灣鎮을 신설했다.<sup>94)</sup> 연해 지역의 다른 성과는 달리 수사제독의 직위도 복건에서는 청 말까지 유지되었다.<sup>95)</sup>

90) 『臺灣通紀』 卷2, pp.71-2; 『臺灣外記』, 卷6, pp.266-90.

91) 채경수, 2017, pp.95-8.

92) 『廈門志』 卷16, 「舊事志-紀兵-國朝」, p.672; 『臺灣通紀』 卷2, pp.94, 97.

93) 『清聖祖實錄』 卷111, 康熙二十一年 十月 二十五日 丁巳條.

94) 채경수, 「清朝 臺灣 영유 결정의 해양사적 고찰」, 『명청사연구』 55, 2021, pp.139-141.

95) 강희 원년(1662)에 浙江과 福建에 처음 설치된 水師提督은 강희 3년(1664)에 廣東에도 설치되었다. 강희 7년(1668) 모두 폐지되었다가 삼번의 난을 계기로 강희 14년(1675) 浙江, 강희 16년(1677) 福建의 수사제독 직위가 부활하였다. 浙江水師提督은 강희 18년(1679)에 다시 폐지되었지만, 福建水師提督은 광서 28년(1902)까지 유지되었다. 가경 15년(1810) 廣東水師提督이 부활하기 전까지 복건은 제국 내에서 水師提督이

천계와 해금 해제 역시 연해 지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다. 강희제는 강희 22년(1683) 시월 19일 兩廣總督 吳興祚의 건의를 계기로 천계 해제[展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부분적인 천계 해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씨 집단이 건재한 상황에서 천계 해제는 요원한 일이었다.<sup>96)</sup> 吳興祚의 건의가 있고 이를 후 康熙帝는 明珠의 자문을 받아들여 江南, 浙江, 福建, 廣東 4성에 직접 중앙의 大臣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를 시행하고 재지 관료들을 만나 천계 해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합해 올 것을 명하였다.<sup>97)</sup> 강희제가 이 문제를 안보와 연결하여 생각했다는 점은 복건과 광둥으로 파견된 杜臻과 石柱에게는 모든 안건에 대해 福建水師提督 施琅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98)</sup>

강희 23년(1684) 사월 16일, 강남·절강 실사단으로 파견되었던 工部侍郎 金世鑑이 500석 이하 소형선박에 대한 해상무역과 어로 활동 허가를 요청했고, 강희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복건·광둥 실사단은 칠월 중순에야 돌아왔지만, 오월 18일 강희제가 신임 臺灣總兵 楊文魁와의 접견에서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할 것 당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희제의 심중에는 이미 開海 결심이 내려져 있었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강희제는 복건·광둥 실사단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천계 해제에는 호의적이었지만 開海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던 石柱를 직접 논파하였다. 강희제는 해금이 정씨집단에 대응하는 조치였으므로, 정씨집단이 소멸한 현재 불필요한 해금 연장은 밀무역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고 1~2년 정도의 開海 유예를 주장한 석주를 몰아붙였다.<sup>99)</sup>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청조는 강희 23년(1684) 시월 25일 開海를 공식 선언했다. 해당 기사는 비교적 간략하지만, 그 속에는 청 제국 해양정책의 새로운 기초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 첫째, 해양 안보 차원에서는 臺灣-澎湖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여 이를 해상 안보의 기둥으로 삼았다. 둘째, 直隸·山東·江南·浙江·福建·廣東 등 연해 모든 지역에 대해 違禁貨物 금지를 제외한 일체의 해금 조치를 철회하였다.<sup>100)</sup>

開海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보에 있지 않았다. 강희제는 개해 자체에 호의적이었고 왕래하는 선박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강희 25년(1686) 督理 閩海稅務戶部郎中 胡什巴이 선박의 크기에 따른 징수체계 확립을 건의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나<sup>101)</sup> 강희 28년(1689) 대규모 해외무역상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어로와 생

편제된 유일한 지역이었다(『清代職官年表』, 中華書局, 1980, pp.2601-3).

96) 吳興祚 이전 시기에 부분 혹은 전면적인 展界를 건의한 인물로는 福建總督을 역임한 李率泰(재임:1656~64), 范承謨(재임:1672~74), 姚啓聖(재임:1678~83) 외에 江寧巡撫 慕天顏(재임:1676~81) 平南王 尚之信 등이 있다(『清聖祖實錄』 卷18, 康熙五年 正月 二十六日 丁未條; 卷77, 康熙十七年 九月 二十八日 丙寅條; 卷94 康熙二十年 二月 七日 辛卯條; 『清經世文編』 卷26-戶政1, 「請開海禁疏」; 卷84-兵政15, 「條陳閩省利害疏」).

97) 채경수, 「鄭氏集團의 變貌와 清朝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157, 2021, pp.303-4.

98) 『康熙起居注』, 康熙22年 11月11日, 中華書局, p.1101-2.

99) 채경수, 「鄭氏集團의 變貌와 清朝의 對應」, 『東洋史學研究』 157, 2021, p.305.

100) 『清聖祖實錄』 卷117, 康熙二十三年 十月 二十五日 丁巳條.

계형 교역에 대해서는 면세하기로 한 결정<sup>102)</sup> 등은 강희제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을 통한 통치 기반 안정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복건 閩海關의 입지로는 선정된 곳은 하문이었다. 청조가 복건의 해관을 해징이 아닌 하문에 설치했다는 점은 변화한 지역의 무역 구도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양 세계에 대해 청조가 명조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조의 상대적 진취성은 무엇보다 해상세계에 대한 제국의 대처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장기간의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청조는 결국 강력한 해상세력인 정씨집단을 힘으로 제압했다. 또한 정씨집단의 근거지인 대만에 대한 직접 통치를 결정했고 복건-평호-대만을 연결하는 해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수군 역량을 유지했다.<sup>103)</sup> 바다 방향으로부터의 침입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하문의 약점은 만약 제국이 안정적으로 해역을 장악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뀔 수 있었다.

## V. 결론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민남 연해 지역에서는 안보 상황 변화와 해외무역의 구조가 상호 간에 긴밀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대외 무역 창구가 海澄에서 安海로, 安海에서 廈門으로 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내륙의 국가권력과 외양의 해상세력 간의 관계 변화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었다.

16세기 말 내륙의 국가권력인 명조는 해상세계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이었기에 외양으로의 접근성은 있지만, 동시에 내륙에서의 통제가 쉬운 입지를 가진 海澄을 제국의 공식 무역 창구로 지정했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梅嶺[=南澳]가 해상세계와의 접근성은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海澄이 낙점된 것은 내륙 방향의 안정적 통제가 담보되지 않는 외양 접근성은 내륙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대한 결격사유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1630년대 초까지 명조의 대외 무역 창구였던 海澄은 그 기간에 수많은 정치·군사적 우여곡절에 시달렸다. 礦稅使 高案의 횡포와 VOC의 진출은 언뜻 외부에서 발생한 변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海澄의 해외무역 독식 구조로 인해 초래된 일이기도 했다. 해징 무역구조의 기득권에서 탈락한 세력들은 고체라는 중앙 조정 발변수에 영합해서 기존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해징-마닐라 간에 형성된 공고한 무역 네트워크가 스페인의 역내 기득권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VOC를 자극했기 때문에 VOC가 평호 진출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씨집단의 등장 역시 이 맥락 속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101) 『清聖祖實錄』卷126, 康熙二十五年 六月 五日 丁巳條.

102) 『清聖祖實錄』卷140, 康熙二十八年 閏三月 十日 丁未條.

103) Po, Ronald C, *The blue frontier: maritime vision and power in the Qing Emp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121-8.

정지룡과 그 휘하 세력이 명군의 일원이 된 사건은 내륙의 국가권력과 泉州계 해상 세력의 결합과 상호의존이었다. 당시 명조는 외부 해상세력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룡 집단을 우익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했고, 정지룡은 자신이 획득한 공식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연해 지역의 무역을 독식하였다. 정지룡은 천주의 입구인 安海를 거점으로 삼았고, 安海는 海澄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1644년 명조가 멸망한 후 남명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이 구도는 청군의 복건 진출로 인해 무너졌다. 정지룡은 용무정권을 버리고 청조에 투항함으로써 지역 내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청조는 정지룡을 북경으로 소환해 버렸고 安海의 호시절은 갑작스럽게 끝나버렸다. 정성공을 비롯한 휘하 인사 상당수는 정지룡의 행보에 반발하여 독자노선을 취했다.

廈門은 反淸노선을 취한 정씨집단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다. 연해 지역의 島嶼는 전통적으로 해상세력의 근거지로 애용되어왔고, 하문은 민남 연해에서 가장 큰 섬이자, 민남 내해의 교통을 통제하는 곳이었다. 이로 인해 명조는 언제나 廈門을 명군의 통제에 두고자 하였다. 鄭彩 형제, 그리고 鄭成功은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연해 지역을 손에 넣었다. 廈門은 정씨집단의 새로운 근거지이자 지역 밀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제해권이 없는 사태에서 감행된 청조의 해군은 오히려 하문을 더욱 살찌우는 역효과를 낳았다.

1683년 정씨집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한 청조는 대만 영유를 결정했다. 대만-평호-복건으로 이어지는 해상 라인에 대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청조의 해양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기초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민해관의 입지는 이러한 기초에 부합하여 결정되었다. 바다를 향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제국의 영향권 속에서 민남 지역의 대외 무역항구는 더는 바다로부터의 위협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기에 바다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점인 하문이 민해관 입지로 결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토론문 3】

## 〈海澄에서 廈門으로 : 16~17세기 복건 해외무역 창구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남민구(동국대)

발표문은 명청교체기 鄭氏集團의 활동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福建의 해외무역 창구가 海澄縣 月港에서 廈門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당시 鄭氏集團의 활동은 청조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이 해상 교역에 있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은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져 왔다.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는 부족했던 명청 교체기의 격동이 福建을 대표하는 해외무역 기지로서의 海澄의 쇠퇴와 廈門의 부상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규명한 데서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康熙 연간 4개 창구 중 하나인 閩海關의 설치, 나아가 근대 ‘아모이(Amoy)’ 海關 개설 역사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체적으로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月港과 閩海關 설치 배경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에 의하면, 명중기 왜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海澄 月港이 설치되었던 반면, 청대에는 鄭氏集團 세력 진압이 완료된 후에 閩海關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鄭氏集團의 투항이 있은 후에도 南明 세력이 완전히 평정된 것은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는 투항 이후에 閩海關이 설치되었지만, 鄭氏集團 혹은 南明 세력과 연관된 해상 세력은 계속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陳尙義 세력은 山東·浙江·福建·廣東 등지를 누비며 鄭氏集團의 일환이라는 것을 표방하였다. 藍鼎元이나 陳汝咸 등 당시 연해 지역 지방관들이 陳尙義 세력에 관하여 남긴 기록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康熙 말년까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sup>1)</sup>

이는 투항 이후에도 福建을 비롯한 중국 동남 연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였으며, 閩海關 설치의 문제의 미해결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康熙 23년(1684) 廈門에는 閩海關이 설치되었지만 동시에 같은해 臺廈兵備道가 신설(관청은 대만 소재)되었고, 이후 강희 25년(1686) 廈門海防同知 신설, 雍正 5년 興泉道 관청을 섬 안에 설립하는 등, 廈門에 대한 군사 기지로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또한 鄭經 시기에 이르면 鄭氏集團은 상업 세력의 면모가 두드러져 청 당국과 교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鄭氏集團 내에 反清復明의 명분이 갖는 설득력이 약화되고, 이들 세력이 지방 해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청

1) 관련 논문으로 丁晨楠, 「18세기 초 朝鮮燕行使의 陳尙義 해적집단 관련 정보 수집활동」, 『東方學志』178, 2017.3, pp.27~58 참조.

조는 이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閩海關을 통하여 민간 해상을 廈門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민간 해상을 잔당 세력과 단절시키거나 잔당 세력으로의 변모를 차단하고자 했다면, 청조는 명조의 방식을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청조는 해상에 불안이 잔존하였을 때 오히려 廈門을 비롯한 4개 항구를 열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鄭氏集團의 성장과 함께 海澄의 지위가 安海와 廈門으로 옮겨갔지만, 安海의 경우 그 시기가 짧고 海澄과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지위를 놓고 海澄과 계속 경합하였을 수도 있다. 廈門은 海澄과 가깝고 장기간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기에 海澄이 廈門의 영향력에 흡수되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海澄·安海·廈門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海澄이 쇠락해 가는 과정도 함께 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福建 지역 및 무역 경로 변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16세기 중반 이후, 명조는 일본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시키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실제론 밀무역이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隆慶 연간 이후 福建 月港을 출항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무역은, 마닐라(Manila) 등 해외 거점을 매개로 한 대일 간접 무역 기능을 수행하였다. 반면 중일 혼혈아라는 鄭成功의 출생 배경, 복명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의 講兵 등을 고려하였을 때, 鄭氏集團의 일본과의 연계 및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서 대일 창구들이 열렸다. 이로써 명 중기 이후 해외무역을 전담하던 海澄縣의 역할은 鄭氏集團의 활동과 함께 쇠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鄭氏集團의 활동이 福建 내 해외무역 창구의 이전은 물론, 福建 이외 지역에서의 해외무역 창구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福建 海澄은 廣東과 浙江의 두 항구 사이에 끼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福建 泉州·漳州 등지의 지역 사회 차원에서 위기를 의식하였고, 海澄보다 더 돌출되고 더 넓은 廈門으로 창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4쪽 최하단 문단 내용 중, 고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위 '기득권 세력'과 고채와 협력한 '불만 세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나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사소한 의문 사항으로, 명대에도 月港 일대는 물이 얕아 큰 배는 먼바다에 정박하고 작은 배들이 큰 배에서 화물을 싣고 항구로 운반하였다는 사실이 『東西洋考』에 기재되어 있는데, 토사 적체가 海澄 쇠퇴와 관련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하다.



**【발표문 4】**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김성수(서울과기대)



##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김성수(서울과기대)

1. 알탄한 시기 불교적 예의의 회복과 선물
2. 아바다이한과 와치르바니
3. 홍타이지와 마하칼라
4. 맺음말

### 1. 알탄한 시기 불교적 예의의 회복과 선물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까지 몽골은 크게 동서로 분열하여 대치했고 쿠빌라이, 우구데이, 아릭부케의 후손이 차례로 칸에 등극했지만 통합에 이르지 못했다. 15세기 중엽 아릭부케 계열을 지지하며 세력을 키웠던 오이라드가 잠시 몽골 통일의 중심이 되려는 듯 했지만 1454년 수장 에센이 사망하자 쿠빌라이계를 지지하는 동부 몽골 세력이 대두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등장한 것이 다얀한(1473~1479~1516 또는 1464~1487~1524)이었고 그의 등장을 전후해 몽골초원의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sup>1)</sup>

1508~09년 달란테리군 전투 승리 후, 다얀한은 우익 이성제후를 제압하고 자신의 아들을 분봉하여 六萬戶를 조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다얀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르스·볼로드(1484~1519)이며 알탄한(1508~1582)은 그의 일곱 아들 중 둘째였다. 알탄한은 다얀한 六萬戶의 일원으로 서로는 오이라드, 동으로는 오논 일대의 오랑한을 공격하며 전공을 세웠고 청해호 일대로 남진하여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sup>2)</sup> 이 글에서 다를 불교 예의와 교역을 포함한 물질 교류의 확대는 이러한 다얀한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알탄한의 생애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알려진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osiba*, 일명 『알탄한전』을 중심으로 알탄한의 활동 내용,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 교단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사이에 형성

1) 김성수, 「몽골 제국 붕괴 이후 쿠빌라이계의 활동과 그 한계」, 『몽골학』 39, 2014, 30~44면.

2) 김성수(2014), 위의 글, 53~55면;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82~90. 오랑한은 오논 유역에 거주하는 부족으로 칭기스한의 사후 헨타이 지역 보르지긴의 무덤을 지키는 부족으로 임명되었다. 그 전통은 다얀한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다얀한의 사후 차하르 등이 앞장서 이들을 공격했고 결국 오랑한은 투바지역으로 서진하게 되었다.

된 예의와 그 가운데 교환된 선물의 내용을 고찰해 보겠다.<sup>3)</sup>

다얀한의 六萬戶가 티베트 불교 교단과 관계를 확대하고 상당한 규모의 물적, 인적 교류를 행했던 이유가 경제적 이득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얼마나 이득이었고 얼마나 손해였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더욱이 어렵다. 다만 여러 자료에서 언급한 몽골에서 티베트로 보내진 보시 물품을 볼 때 양자의 관계, 특히 몽골측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주요한 배경이 아니었을 것임은 대개 동의하는 지점이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명과의 조공무역, 그에 수반된 馬市가 주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티베트와의 관계가 몽골 특정 세력의 정치 지위를 제고하는 데 역할 했다면 그 이익은 보시 물품의 수량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임도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

Serruys(1967, 1975), 조원(2021)에 따르면, 1408년 이래 15세기 전반에 걸쳐 명과 오이라드 사이에 거의 매년 1~2차례 조공 사신이 왕래했다. 심지어 에센의 아버지 토곤 시기인 1437년에는 한 해에 여섯 차례 조공 사절이 명조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공물에는 낙타, 양 등 가축과 靑鼠, 貂鼠, 銀鼠 등 모피, 옥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품목은 말이었다.<sup>4)</sup> 몽골의 주요 정치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명은 이러한 조공무역을 이용해 그들을 길들이고자 했지만 몽골측도 山西 大同을 비롯해 古北口, 通州 등 京師 일대를 침범하며 명조를 압박해 시장을 쟁취했다. 명조가 변경 교역을 통해 말 수요를 해결했다면 몽골은 곡물, 비단, 소금, 생활용구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요구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곡물과 비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명말까지 지속되었다.

군마로 제공된 말은 몽골에서만 조달된 것은 아니었다. 1558년 티베트 공략 이후 알탄한은 하미(哈密) 동북 잘라만산을 향해 원정을 떠났다. 오이라드 방면에 대한 원정을 단행해 오치라이·타이시가 이끄는 골리·밍간, 즉 호이드 오이라드를 굴복시키고 투르판 지역으로 사신 오이징·자이상을 파견했다.<sup>6)</sup> 그는 많은 지식, 조상들에 관한 일, 의례에 해박한 사람으로 이슬람교도인 샤·칸을 만나 차가다이의 계보를 읊었다. 그 자신이 차가다이의 후예였던 샤·칸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여 좋은 말을 공물로 바쳤다. 아르고막(aryumay)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야생 종마와 길들인 암말을 교배하여 얻은 망아지를 부르는 아르곤(aryun)에서 파생된 말이다. 잘 달리기로 유명하며

3) 『알탄한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문명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해제]알탄한전」을 참조. [http://cces.snu.ac.kr/bbs/board.php?bo\\_table=archives&wr\\_id=27](http://cces.snu.ac.kr/bbs/board.php?bo_table=archives&wr_id=27)

4) 조원, 「明·오이라트 通貢·互市の 양상과 성격」, 『몽골학』 67, 2021, 155~182면. Henry Serruys,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II,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1400-1600)*,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14,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67; Henry Serruys, "Sino-Mongol Trade during the Ming", *Journal of Asian History*, Vol.9-1, 1975, pp.34~56.

5) Henry Serruys, "The Dearth of Textiles in Traditional Mongolia", *Journal of Asian History*, Vol.16-2, 1982, pp.125~140.

6)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09에 의하면, 골리·밍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골리·밍간을 호이드 오이라드의 다른 말로 보는데 예케·밍간, 나이만·밍간으로 불리기도 한다.

투르크멘, 사마르칸트를 통해 몽골과 타림분지 여러 오아시스로 수입되었다. 이는 서부 오이라드와 타림분지에서 알탄한에게 보내는 공물 목록에 자주 등장하는 품목이었다. 즉, 중앙아시아 몽골초원을 연결하는 광범한 말의 유통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rruys(1975)가 예로 든 1574년 馬市에서 명조가 구입한 말은 대략 34,000필이며 가격을 환산해보면 당시 말 1필을 평균 은 5.09兩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그러나 이 숫자는 매우 개략적인 것이며 말의 종류나 지급된 은의 함량 등은 모두 무시된 계산으로 실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알탄한은 이미 大同 鎮羌堡, 宣府 新開口 등지에서 마시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지만, 그가 명과 평화조약을 맺고 안정적인 교역의 상대로 자리를 잡는 데는 1571년 隆慶 和議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8)</sup>

1570년 알탄한이 아끼는 손자 다이칭·에제(?~1583)가 명조의 변경도시 敗胡堡로 망명했다. 회담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명조가 부치네베라는 사신을 보내 다이칭·에제의 귀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알탄한은 장자 쎅게·두렝(1522~1586)과 함께 다이칭·에제가 망명한 敗胡堡를 비롯해 宏賜堡, 威遠 등지를 포위하였는데 대체로 현재 산서성 대동시 인근 지역이다.

낭기야드國(=南人들의 나라, 즉 명조)의 대소 관원이 겁에 질려 ‘바안다라’라는 通事를 [쎅게·두렝에게] 보냈다. 하늘을 날 듯 부드러운 말로 “그대의 동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칭호, 곡물과 무역(=조공과 호시)을 주어 중국(Kitad)과 몽골이 평화롭게 될 것이니 붉은 전각을 불태우는 일은 멈춰주시오.”<sup>9)</sup>

“붉은 전각”은 기사의 다른 부분에도 등장하는 “조상의 붉은 전각(töröl-ün ulayan ger)”을 의미한다. 이것을 북경 외곽에 위치한 명조 황릉의 부속 건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명조의 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이칭·에제의 망명 사건이 촉발한 1571년 용경화회의의 결과 알탄한은 수이왕(Süi Wang, 順義王), 혼돌런한(알탄한의 동생, 하르친)과 쎅게두렝(알탄한의 장자)에게는 도도리호·장존(Dudulihu Jiangjun) 즉 都督同知에 해당하는 칭호와 관직이 주어졌다. 그 외 61명의 몽골 귀족에게 指揮同知, 指揮僉事, 正千戶, 副千戶, 百戶 등의 관직을 주었다.<sup>10)</sup> 이 때 대량의 금은과 가축, 진귀한 모피, 용이 수놓인 蟒衣 등 다양한 물품을 하사했는데 이를 몽골측 사서에서는 “우익 3만의 관료들이 모두 생각한대로 특별한 칭호와 많은 선물을 무엇이든 마음에 들도록 [명조가] 내어 주었다. 매년, 매달 끊임없이”로 묘사하고 있다.<sup>11)</sup> 당시 알탄한

7) Henry Serruys, “Sino-Mongol Trade during the Ming”, *Journal of Asian History*, Vol.9-1, 1975, p.52.

8) 민경준, 「16세기 明蒙 변경의 몽골 漢人」, 『역사와 세계』 36, 효원사학회, 2009, 53~97면.

9)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20-121.

10) Henry Serruys, “Four Documents Relating to the Sino-Mongol Peace of 1570-1571.” *Monumenta Serica* 19, 1960.

1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을 비롯한 우익 3만호 투메드, 하르친, 용세부 등 몽골 귀족들은 寧夏의 紅山, 清水營과 大同 得勝堡, 宣府 張家堡 등지에서 시장을 열고 교역권을 얻었다.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명과의 교섭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얻게 된 알탄한은 용경화의 직후 아싱라마를 만나 티베트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이는 지난 40년간 후호노르, 즉 청해 지역에서 쌓아온 알탄한과 우익 3만호의 영향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했다. 알탄한의 청해 원정은 1532~34년과 1558년 크게 두 차례로 나눠 전개되었다.<sup>12)</sup>

1532년, 1534년 알탄한은 형 메르겐·지농과 함께 두 차례 싱홀라(銀川 서쪽 賀蘭山)를 넘어 청해호 일대로 진군했다. 청해호 동부에 위치한 고르발진(三角城)<sup>13)</sup>으로 진군한 알탄한은 이바리·타이시(Ibari Tayisi, ?~1533)와 함께 다얀한에 대항했던 보르하이·타이시를 추격하여 그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혔다.<sup>14)</sup> 알탄한의 청해 원정은 이렇게 다얀한에 대항했던 우익 異姓 제후들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투메드 몽골은 청해 일대의 티베트 세력과 접촉하게 되었다. 또한 티베트, 몽골 어느 쪽의 요구가 더 컸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몽골과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가 소환되었다.

上天의 복으로 태어난  
세상의 군주 성스러운 복다·알탄·세첸한  
고귀한 팍바라마와 세첸한 돌이 만든  
비견할 수 없는 불법과 정치를 생각하고  
낮에는 잊지 않고 밤에는 잠들지 않으며  
강건하고 빛나는 영민한 마음 속에서 소망해온 것처럼  
옛날에 쌓은 福德의 힘으로  
힌 양의 해(1571년)에 아싱이라는 이름의 라마가 왔다.<sup>15)</sup>

아싱을 만난 알탄한은 불법에서 말하는 三寶가 무엇인지, 眞言 「옴마니바드메훔」의 의미는 무엇인지, 八正道가 무엇인지 물었다. 물론 아싱라마를 만난 것으로 알탄한이 처음 불법을 접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sup>16)</sup> 그러나 적어도 이 과정은 알탄한의 나라

---

century. Brill, 2003, p.126.

12) 14세기 전반에도 몽골에서 불교 승려들의 활동이 확인되며 명으로부터 티베트 승려가 몽골로 파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청해 진출 이전 몽골 사회가 완전히 티베트 불교계와 절연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Serruys, Henry. "Early Lamaism in Mongolia", pp.181-216, *Oriens Extremus* 10, 1962; Serruys, Henry. "Additional Note on the Origin of Lamaism in Mongolia", pp.165-173, *Oriens Extremus* 13, 1966.

13) 현재 청해호 동부 青海省 海晏縣.

14) 1542년 메르겐·지농 사후에도 알탄한은 청해 일대로 진군하여 보르하이를 추격해 타격을 입혔지만 번번히 보르하이는 탈출했다. 1558-59년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93.

15)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29

16) Henry Serruys, "Early Lamaism in Mongolia", *Oriens Extremus* 10, 1962, pp.202-206; Henry

전체가 불법에 귀의하고 교단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앞에 언급한 “복다·알탄·세첸한”과 元世祖 쿠빌라이·세첸한에서 사용된 공통된 칭호에서 쿠빌라이 시대의 전통을 회복하겠다는 알탄한의 의지가 보인다. 이듬해인 원송이해(1572년)에는 “잃어버린 다이두(大都)를 닮은 흑호트(青城)를 계획하고, 열 두 투메드 그의 큰 나라가 모이게 하여, 뛰어난 기술자들로 짓고 꾸미게 했다.”에서 보이듯이 대도에 비견할 아름다운 도시를 大靑山 남쪽 黃河에서 멀지않은 곳에 건설하게 했다. 이곳은 현재 내몽고자치구의 흑호트 서쪽 마이다르조(美岱召, 壽靈寺) 인근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해서 아싱라마가 알탄한에게 아뢰었다. “성스러운 복다·세첸한과 팍바라마(1235~1280) 둘의 방식을, 政教를 세우는 예로 삼는다면, 여기 서쪽 우리 티베트의 영원한 땅(위장, dbus gtsang)이 있습니다.”<sup>17)</sup> 아싱라마는 곧이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생겨나고 이것이 티베트의 군주와 승려에 의해 동쪽에서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승려들은 쯙카바, 3세 달라이라마 소남가초(1543~1588) 등 겔룩 교단과 관련된 사람들로 과거 팍바라마가 속했던 사카 교단의 승려들은 아니었다. 아싱라마의 조언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성스럽고 위대한 한이시여, 만약 불교를 이끌고자 한다면 옛날 팍바라마와 세첸한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조·린뽀체를 비롯한 모든 불상을 섬기면서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승려들에게 음식물(jed), 차(manja) 등을 보시하십시오. 달라이라마를 정중히 초대하고 완벽히 갖춘 보시품을 널리 보내십시오. 활불들이 세운 크고 작은 사원에서 공덕으로 만든 간주르와 단주르를 비롯한 모든 경전을 모셔 오십시오.”<sup>18)</sup>

아싱라마의 권유로 알탄한은 1575년 달라이라마 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sup>19)</sup> 사신은 초청장과 함께 “금, 은, 보석, 가축 등 완벽하게 갖춘 비교할 수 없는 모두를 기쁘게 할 보시품”을 가지고 낫선 투버드(티벳)로 갔다.<sup>20)</sup> 라사 제봉사원에서 달라이라마를 배알한 사신은 곧 잡치알로 돌아왔고 달라이라마를 맞이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사원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지체없이 10개월 만에 다시 달라이라마 앞에 당도했

Serruys,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II,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1400-1600)*,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14,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67, pp.270~27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29

17)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35

18)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38

19) 1575년의 사신 파견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571년~1574년 사이에 아싱라마의 권유로 알탄한이 사신을 티베트에 파견한 적이 있다. 이때 달라이라마가 알탄한에게 淨瓶을 보내 알탄한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정병 속의 물을 마셨다고 전하고 있다. 陳慶英 馬連龍 譯, 『達賴喇嘛三世·四世傳』,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2, p.162를 참조.

20)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40

다.<sup>21)</sup> 라사에 도착한 알탄한의 사신은 이번에는 석가모니像 앞에서, 즉 조강 사원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났고 알탄한이 보내는 많은 선물과 함께 만달라를 헌상했다.<sup>22)</sup>

이윽고 1575년 라사를 방문한 몽골 사신에 대한 답례로 1576년 달라이라마로부터 알탄한에게 사신이 파견되었다. 닥롱낭소와 다얀키야는 알탄한과 그의 부인 중겐(1551~1612)에게 달라이라마의 서신, 종교적인 물품과 함께 “깨끗한 불법의 金剛結(ariyun burqan nom wcir-tu janggiy-a)”을 선물했다.

이에 호응해 알탄한은 그의 동생 하르친의 혼들렌, 조카 용세부의 다이칭 등 우익 3만호의 수장과 함께 무게가 백 시지르(sijir)에 해당하는 금으로 만든 인장, 몸에 맞게 만든 옷, 대량의 금과 은 등을 보시했다.<sup>23)</sup> 여기에서 백 시지르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분명하지 않다. 吉田順一 等(1998)에서는 珠榮嘎(1990)를 따라 시지르를 중국의 도량형 兩으로 번역했고, Elverskog(2003)에서는 시지르를 그리스에 기원을 두었고 소그드와 투르크를 거쳐 내륙아시아 교역에서 광범하게 사용된 무게 단위로 이해했다.<sup>24)</sup> 전자의 경우 대략 명대의 1兩이 37.3g에 해당하고, 후자에서 언급한 1시지르가 약 16.05g에 해당하므로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 金印의 무게는 3.7kg이거나 혹은 1.6kg에 달할 수 있다.<sup>25)</sup> 라사 로브링카에 소장된 달라이라마의 인장 중 7세 달라이라마에게 청조가 보낸 金印이 있다. 이 금인은 230兩의 금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인의 무게는 약 8257그램이다.<sup>26)</sup>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해도 인장의 무게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1576년 11월 알탄한 측에서 사신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라사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 함께 청해 잡치얄로 올 예정이었다. 이듬해 1577년 6월 라사에 도착한 사신들은 알탄한의 서신과 함께 많은 보시품을 전달했는데 그 중 “모임에 제공된 차(čiyulyan-u cai)”가 주목된다. 앞서 아싱라마가 알탄한을 설득해 처음 사신을 티베트로 파견할 때도 기타 보시품과 함께 차를 보내고 간주르와 단주르 등 경전을 요구하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서는 한데 모인, 집합한 승려들(bursang quwaray-ud quraysad)에게 대량의 차를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1435년 洮州 馬市에서

21) 알탄한은 1573년부터 청해호 인근에 사원 건설을 계획하여 1577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잡치얄사원(*Chab tsha theg chen chos 'khor gling*, 仰華寺)이다. 따라서 1575년 어느 시점에 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사원 건설과 관련해 알탄한은 명조에 여러 차례 기술자들을 요청했고 인력과 물자가 명조 관할지역을 통과해 잡치얄로 집결되어 명조에 이 사원의 건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22)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41

23)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147

24) 珠榮嘎, 『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p.102; 吉田順一 等, 『アルタン・ハーン伝研究』, 東京: 風間書房, 1998, p.154;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262. 珠榮嘎와 吉田順一 等은 모두 兩으로 번역했지만 珠榮嘎는 이것이 위구르어 sitir에서 온 sijir임을 밝히고 실제 무게는 1량보다 조금 많은 1兩2錢8厘라고 보았다.

25) 박흥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9, pp.464~467.

26) 歐朝貴 其美 編著, 「西天大善自在佛所領天下釋教普通瓦赤拉坦喇達賴喇嘛之印」, 『西藏歷代藏印』, 西藏人民出版社, 1991, pp.57~58



말 13,000필과 차 약 859,000斤이 교환되었다고 하니 티베트와 명조 사이 茶馬 교역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7)</sup> 티베트에서 환영받는 차를 승려들이 운집한 법회에 제공함으로써 몽골이 대량의 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매년 정월 한 달 동안 거행되는 신년기원대법회 뉘람첸모를 미리 주재하고 1578년 정월 초3일, 달라이라마는 청해를 향해 떠났다. 몽골 우익 각지로부터 3만호의 영수들이 청해호 東岸 찻치알로 모여들었다. 달라이라마를 영접하기 위해 알탄한은 달라이라마가 장강 상류 通天河를 통과한 무렵부터 자신의 족손들, 신하들을 여러 무리로 나눠 보시품과 함께 보내 성대한 환영 행사를 이어갔다. 금과 은으로 만든 만달라, 금 안장과 마구, 보석, 대량의 가축을 헌상했다.<sup>29)</sup>

드디어 1578년 5월 15일(양력 1578년 6월 19일) 찻치알 사원의 서쪽에서 달라이라마와 알탄한이 만났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쇠남닥바(bsod nams grags pa, 1478~1554)의 전세자<sup>30)</sup>, 승려들과 함께 자리했고, 알탄한은 부인 중건과 함께 五色國(tabun öngge ulus)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sup>31)</sup>

오색국은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에 특정 민족이 살고 있다고 이해하는 몽골의 전통적인 지리 개념으로 각 민족은 또한 특정 색깔로 식별된다. 중앙에는 푸른 몽골, 동쪽에는 하얀 고려, 서쪽에는 노란 투르크, 북쪽에는 검은 탕구트, 남쪽에는 붉은 중국이 위치한다. 오색국을 모두 이끌고 왔다는 의미는 곧 온세상을 이끌고 왔다는 것으로 세계의 지배자로서 몽골의 위상을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실제로 1571년 명조와의 용경화의 이후 몽골과 남쪽 한인이 화합하게 되어 마침내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알탄한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달라이라마를 맞이하기 위해 사원을 건설하고 다양한 불사를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몽골, 한인, 티베트 승속이 모두 모였음을 강조했다.

이때 오색의 백성들은 백 시지르의 금으로 만든 만달라, 천 시지르로 만든 銀椀, 옥과 크리스탈, 금, 은 등 보석과 의복, 금 안장과 마구로 장식한 좋은 말, 낙타, 나귀, 소, 양 등을 헌상했다.<sup>32)</sup> 이어지는 만남에서 달라이라마는 경전의 위대함, 불법에서

27)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48~149

28) Henry Serruys,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II,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1400-1600)*,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14,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67, p.312

29)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52~154

30) 쇠남닥바는 15대 간덴치바(간덴사원의 주지)로 2세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3세 달라이라마의 스승이다. 1539년 제불사원 심강롱마(gzims khang gong ma)의 전세자로 지정되었으므로 3세 달라이라마와 함께 청해에 온 승려는 쇠남닥바를 잇는 심강롱마 활불 계통의 새로운 전세자인 것으로 보인다.

3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55~156

32)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57~158

말하는 세 가지 지혜(shes rab rnam pa gsum)<sup>33)</sup> 등을 설법하고 불교와 무관한 우상 옹공(onggyun)을 모아 불살랐다. 우익 몽골이 불교에 온전히 귀의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이후 달라이라마와 알탄한은 입장을 교환하는데 알탄한은 달라이라마에게 金印을 헌상하고 달라이라마는 알탄한에게 銀印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 『3세 달라이라마전』에도 다음과 같은 장면을 전하고 있다.

[옹공을 불태우고 동코르에게 비구계를 전수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탄한이 병을 얻어 소남가초가 그를 위해 「三界佛母供施儀軌」<sup>34)</sup>의 법사를 행했는데 매우 영험했다. 어느날 밤 소남가초가 꿈에 無量壽佛<sup>35)</sup>이 나타나 알탄한의 머리맡에 병을 두고 灌頂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두고 소남가초는 장래 꽤 오랜 동안 알탄한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알탄한은 감사를 표하고자 금으로 만든 머리장식, 寶瓶, 五佛鈴杵, 淨瓶<sup>36)</sup> 등 각종 관정에 필요한 도구와 황금 백량으로 만든 금인을 헌상했다. 이 금인에는 五爪龍과 팍바문자 「rdo rje 'chang ta la'i blama'i tham ka(바즈라다라[Vajradhara] 달라이라마의 인)」가 새겨져 있었으며 印盒은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외에도 珍珠法衣와 華蓋, 가죽으로 안을 대고 五爪龍을 수놓은 大紅外套, 銀鼠皮로 안을 댄 黃絲料大紅披風, 방석과 등받이, 새가 있는 長壽圖案의 두꺼운 모직 방석, 색이 화려한 華蓋, 등받이와 팔걸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마구를 갖춘 白馬 다섯 필, 銀器 천 건, 20명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옷감과 彩靴 등 대량의 선물을 헌상했다. 알탄한이 소남가초에게 바친 존호는 '달라이라마 와치르다라' 즉 金剛持遍主이며 소남가초가 알탄한에게 준 칭호는 '法王 大梵天'이었다.<sup>37)</sup>

칭호와 인장의 교환, 대량의 보시가 행해졌다. 이는 달라이라마와 알탄한 사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달라이라마를 영접하기 위해 찻치알에 모인 알탄한의 족손들이나, 이 지역 전교에 앞장섰던 승려에 대한 칭호 수여, 보시도 계속되었다. 특히 우익 3만호 세속 군주에 대한 불교식 칭호 梵封의 수여는 장래 겐룩 교단에 의한 몽골 전교가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sup>38)</sup>

이윽고 과거 송첸감보와 같은 법왕들의 예를 따라 귀족 자제들이 출가하여 달라이라마로부터 계를 받는 행사가 이어졌다. 우익 3만호 영수들의 자제를 포함하여 백여

33) 수행이 완성되어 완전히 얻게 된 깨달음, 즉 아누다라사막삼보디(anuttara-samyak-sambodhi, 無上正等正覺, 究竟覺)에 이루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배움(triśikṣā) 戒(śīla), 定(samadhi), 慧(prajña)를 이르는 말이다.

34) 삼계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이르며 육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한다.

35) 無量壽(Amitābha)는 헤아릴 수 없는 빛을 가진,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서방 극락정토를 주재한다.

36) 寶瓶과 淨瓶은 산스크리트 군디카(Kundika)에서 유래한 말로 부처님께 바치는 물을 담거나 灌頂에 사용하는 물을 담는 佛器의 일종이다. 水瓶 또는 음역하여 군지(軍持), 군치가(裙雉迦)라고도 한다. 五佛鈴杵 또한 佛具로서 수도자가 손에 쥐고 번뇌를 멀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대개 금강령, 금강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金剛界 五佛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五佛鈴杵라고 하였다. 참고로 五佛은 金剛界五佛, 五方佛을 의미하는데 大日如來(Mahāvairocana)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阿闍(Akṣobhya), 無量壽(Amitābha), 寶生(Ratna-sambhava), 不空成就佛(Amogha-siddhi)이 위치한다.

37) 陳慶英 馬連龍 譯, 『達賴喇嘛三世·四世傳』,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2, pp.176~177

38) 김성수, 「불교적 禮儀를 통해 본 17세기 내륙아시아」, 『명청사연구』 50, 2018, pp.95~101

명의 몽골인이 달라이라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출가했다. 알탄한은 이에 황금 백량, 백은 삼 천량, 마구, 비단, 포와 함께 알탄한 자신의 옷 한 벌을 예물로 바쳤다. 알탄한의 보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싱라마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곧바로 라사에 파견하여 조강사원 석가모니상 앞에 천 시지르로 만든 만달라 등 공양품을 헌상하고 세라·데봉·간덴 등 라사 3대 사원의 승려에게 차 보시를 하였으며 티베트 각지의 승속 영수에게 예물을 보냈다.<sup>39)</sup>

앞에서 살펴본 알탄한과 3세 달라이라마의 1578년 만남을 전후해서 가축과 귀금속, 의류, 차 등을 제외하고 주목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만달라와 인장이다. 먼저 인장의 경우 1576년 알탄한이 티베트로 보낸 백 시지르 금인에 대해서는 『3세 달라이라마전』에 언급이 없다. 그러나 찻치얄에서 만나 알탄한으로부터 받은 금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五爪龍과 팍바 문자 「rdo rje 'chang ta la'i blama'i tham ka(바즈라다라(Vajradhara) 달라이라마의 인)」가 새겨져 있었으며 印盒은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인장 윗 부분에 용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전하는 이 금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라사 로브링카에 같은 印文의 銅印이 소장되어 있어 알탄한이 준 금인의 복제품으로 추정된다.<sup>40)</sup>

달라이라마에게 보내진 선물 중 만달라(Mandala, dkyil 'khor, 壇, 聚集, 輪圓具足 등으로 번역)의 비중도 상당히 보인다. 金剛乘의 수행 방법 중 다라니를 암송하는 것과 함께 불법승에 대한 공양이 강조되는데 이 때 우주 형성 원리를 형상화하여 우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만달라이다. 만달라는 평면과 입체 만달라로 나눌 수 있는데 평면은 탕카로 불리는 회화 형식이고 입체 만달라는 대개 사각형 또는 원형의 단을 만들고 진귀한 보물들로 장식한다. 이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첩경을 구하는 세속 군주가 고승의 도움을 받아 금강승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알탄한은 달라이라마에게 과거 팍바가 쿠빌라이에게 했듯이 자신에게도 吉祥歡喜金剛(Hevajra, 금강승의 本尊 중 하나)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청했고 달라이라마는 이를 허락했다.<sup>41)</sup> 또 다시 많은 보시가 행해졌다. 일곱 가지 보물과 여덟 가지 공양이 순서대로 진행되었다.<sup>42)</sup>

39) 陳慶英 馬連龍 譯, 『達賴喇嘛三世·四世傳』,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2, p.177;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63~164. 두 자료에 모두 아싱라마와 도르지 박시를 대표로 조강에 만달라를 공양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라사 3대 사원 승려들에 대한 차 공양과 티베트 곳곳의 승속 영수들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내용은 『3세 달라이라마전』에 전한다.

40) 歐朝貴 其美 編著, 「多吉鏘達賴喇嘛之印」, 『西藏歷代藏印』, 西藏人民出版社, 1991, p.47

4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64~165

42) 일곱가지 보석은 금, 은, 라피스라즐리(청금석), 크리스탈, 루비 등 붉은 보석, 마노 등인데 때로는 여기에 하얀 산호, 코넬리안(紅玉髓)이 들어가지도 한다. 여덟 가지 공양은 세수하는 물, 발을 닦는 물, 꽃, 향, 등, 향수, 음식, 음악을 의미한다. Henry Serruys, “The Seven Jewels in Mongol Literature”, *Mongolian Studies*, Vol.2 1975, pp.133~134;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p.166~167

## 2. 아바다이한과 와치르바니

1582년 알탄한이 사망했다. 이듬해 봄 장남 생계두렝이 계승했지만 1586년 초 사망했고 그의 아들 нама다이·세첸·홍타이지가 즉위했다. 順義王의 칭호와 명과의 교역 권도 함께 계승했다. 1586년 нама다이의 즉위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 중 할하 몽골의 아바다이한과 3세 달라이라마에 대해 주목하려고 한다. 암도와 캄 등 동부 티베트에서 전교활동을 이어가던 달라이라마는 알탄한의 사망 이후 여러 차례 흑호트로 초대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1585년 드디어 흑호트를 방문하여 생계두렝과 중견부인을 만났다. 알탄한을 위한 여러 佛事를 행하던 중 생계두렝이 65세를 일기로 사망했고 아들 нама다이가 그를 계승했다. 이 때 흑호트를 방문한 할하의 아바다이한과 달라이라마의 만남을 17세기 중엽 저술된 사강세첸의 *Erdeni-yin tobči* 『蒙古源流』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세 달라이라마가] 그 한(=아바다이)에게 말하기를, “손을 뺀어 내가 가진 불화 중 한 장을 고르시오.”라고 하자, [아바다이한이] 손을 뺀어 마침 잡은 것이 와치르바니(執金剛)의 화상이었고, 곧 그것을 취했다. [아바다이한이] 귀환하려다가 말하기를, “제게 ‘와치르’로 시작하는 한(qayan) 칭호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자, [달라이라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 몽골의 정치에 방해가 될까 걱정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지만, 재차 간청하자, ‘와치르한(金剛汗)’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달라이라마가 말하기를, “이 와치르한의 畫像은 화재에도 훼손되지 않은 신통력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엄지손가락 크기의 석가모니 사리, 白銅으로 만든 불상, 인도로부터 가져온 여러 신통력 있는 불상을 주었다. 커다란 호랑이 게르 등 여러 물품을 선물로 주었고 [다시] 말하기를, “그대는 이제 와치르바니의 화신입니다.”라고 하고, ‘노몬-예케-와치르한(Nom-un yeke wačir qayan, 佛法大金剛汗)’의 칭호를 내렸다.<sup>43)</sup>

3세 달라이라마는 아바다이한을 만나 탕카를 선물하는데 아바다이한 스스로 고른 것은 執金剛, 즉 와치르바니의 화상이었다. 와치르바니는 헬레니즘을 품은 간다라 미술에서 비롯되어 석굴암의 금강역사로 이어진 유서 깊은 대승불교의 보살(bodhisattva)이다. 다만 그의 역할이 불교의 수호자로서 부처의 힘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護法神(dharmapāla)의 일종으로도 분류한다.<sup>44)</sup>

헬레니즘의 신상을 제작하던 간다라 지역의 석공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줄곧 석가모니를 지켰던 불교의 수호자로서 고안한 것이 와치르바니였다. 신체적으로는 헤라클

43) 烏蘭, 『“蒙古源流”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0, 437면

44) 바즈라파니(執金剛)의 간다라 기원과 금강역사로의 전래에 대해 임영애, 「중국 석굴의 금강역사: 복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275~303면;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 32, 2008, 199~211면; 임영애, 「인도와 간다라의 執金剛神」, 『강좌미술사』 2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333~353면.

레스를 닮았으며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인드라의 바즈라를 손에 들게 되었다.<sup>45)</sup> 바즈라는 석가모니와 불법을 수호할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모든 중생과 파괴할 수 없는 만물의 굳건함을 상징한다. 이런 까닭으로 바즈라파니는 대승불교의 주요 보살 중 하나로 이해되어 티베트에서는 관음, 문수와 함께 3대 怙主(rigs gsum mgon po)로 불리며 각각 석가모니의 자비, 지혜, 힘을 상징한다.<sup>46)</sup> 여기에서 확장되어 티베트 역사에서는 토번의 젠보 중 송젠감보(605~617~650), 치송데젠(730~756~797), 치죽데젠(803~841)을 각각 관음보살, 문수보살, 금강수(바즈라파니)의 화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47)</sup> 세속 군주를 바즈라파니의 화신으로 이해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바다이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와치르한’이라는 칭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상황을 18세기 초 룽상프린레가 쓴 『1세 젠준담바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sup>48)</sup>

그 후 遍知一切 소남가초(=3세 달라이라마)가 몽골에 왔을 때 그(=아바다이한)가 가서 알현했다. 福田과 施主가 한 뜻이 되었고, 딱모두 교단 도제겔보의 불(火)로도 파괴할 수 없는 탕카(sku thang me thub ma)를 주었다. 또한 동시에 [아바다이한에게] 도제겔보(=와치르한, 바즈라 라자, 금강왕)의 칭호를 주었다.<sup>49)</sup>

위의 두 기사 모두 아바다이한이 흑호트를 방문하여 3세 달라이라마를 만났고 佛畫한 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다만 『蒙古源流』에서는 아바다이 스스로 와치르바니가 그려진 탕카를 선택하고 칭호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1세 젠준담바傳』에서는 탕카 한 점을 달라이라마가 선물했는데 마침 딱모두 교단의 창시자 도제겔

45) Katsumi Tanabe, ‘Why Is the Buddha Śākyamuni Accompanied by Hercules/Vajrapāṇi?: Farewell to Yakṣa-theory’, *East and West*, Vol. 55 No. 1/4, Istituto Italiano per l’Africa e l’Oriente, 2005, pp.369~374. 초기 불교에서는 바즈라파니가 석가모니의 제자 아난다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주요한 존재로 부각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Peter D. Sharrock, “Garuḍa, Vajrapāṇi and Religious Change in Jayavarman VII’s Angkor”,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40, No. 1, Feb., 2009, pp.125~127를 참조.

46) 17~19세기 불교의 영향 아래 저술된 몽골 역사서에서는 대체로 칭기스한을 와치르바니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관음보살의 땅 티베트, 문수보살의 땅 중국, 와치르바니의 땅 몽골이라는 전통 관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관념의 출현은 특정할 수 없으나 16~17세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Vesna A. Wallace, “How Vajrapāṇi Became a Mongol”, *Buddhism in Mongolian History, Culture and Society*, edited by Vesna A. Walla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188~195를 참조.

47) 토번의 기틀을 마련한 송젠감보(605~617~650), 송젠감보의 5세손 치송데젠(730~756~797), 치죽데젠(khri gtsug lde btshan, 803~841)을 의미한다. 치죽데젠은 랄바첸(ral pa can)이라고도 한다. 763년 토번이 장안을 점령하는 등 치송데젠의 시기 토번은 최전성기를 누렸다. 김성수 譯註, 「吐蕃傳」, 『舊唐書 外國傳 譯註』下, 동북아역사재단, 2011을 참조.

48) 1세 제브준단바의 親傳弟子 룽상프린레가 저술한 전기문이다. 1세 제브준단바의 가계와 그의 일생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룽상프린레가 밝혔듯이 티베트에서 수학하던 1660년에서 1679년 사이에는 제브준단바 곁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룽상프린레는 1686년부터 여러 차례 제브준단바에게 전기문 작성을 청했다. 번번히 사양하다가 1709년 집필을 허락했다. 따라서 이 자료는 1709년에서 룽상프린레가 원적하는 1715년 사이에 집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룽상프린레 『1세 제브준단바傳』으로 약칭. 김성수, 「1세 제브준단바호독토와 17세기 할하 몽골」, 『동양사학연구』 83, 2003, 47~53면.

49) “Life and Works of Jibcundamba I”, *Śata-piṭaka Series*, Indo-Asian literatures, vol.294, reproduces by Lokesh Chandra, New Delhi, 1982: #418-419.

보(rdo rje rgyal po, 1110~1170)가 그려진 탕카였고 자연스레 도제겔보(와치르한, 金剛王)의 칭호도 주었다고 했다. 두 자료에서 모두 “화재에도 파괴되지 않은 신통력 있는” 탕카를 선물로 주고 그에 상응하는 도제겔보~와치르한 칭호를 수여했다고 전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蒙古源流』에서 와치르바니의 화상을 선택했고, 『1세 쩍준담바傳』에서는 팍모두의 도제겔보가 그려진 탕카를 주었다고 했다. 와치르바니와 팍모두 교단의 도제겔보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와치르바니는 호법신이며 도제겔보는 역사적 인물이므로 이 양자는 동일시될 수 없다. 다만, 종교적으로 도제겔보와 와치르바니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추적해 볼 여지가 남는다.<sup>50)</sup> 둘째는 와치르라는 한의 칭호가 달라이라마는 왜 몽골의 정치에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고 했을까?

롭상프린레가 할하 몽골 출신으로 쩍준담바의 친전제자라는 점, 쩍준담바가 아바다이한의 장자 직계 증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팍모두교단 도제겔보가 그려진 탕카를 얻었다는 고사는 비록 한 세기 이전의 일이라는 하나 아바다이한의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반면 『蒙古源流』의 기사는 실제 사건보다 약 80년 뒤, 『1세 쩍준담바傳』 보다는 약 50년 앞서 알탄한이 이끌던 우익 3만호의 후손 사강세첸에 의해 저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익의 입장이 녹아들어 윤색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와치르바니의 화상과 와치르한의 칭호를 요구한 것이 다얀한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아바다이한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당시 우익 3만호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당시 상황에서 달라이라마가 몽골의 정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잠시나마 주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때 많은 사카의 승려들이 네 갈래로 나뉘었다. 당시 상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념과 군사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팍모두 교단으로 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의미와 일치할 것이다. “토양(sa)은 안으로부터 붕괴될 것이고 수태지(phag)는 토양을 뒤엎고 짓밟을 것이다. 야르룽(yar klungs)으로부터 바즈라파니(Vajrapāṇi, 執金剛)의 화신이 나타날 것이다.” …… 그 후로 위대한 왕(몽골의 대칸)이 다라카체(da ra kha che < 蒙文 daruḡa)와 금책을 지닌 사자들을 보내 대시두(ta'i si tu, 大司徒)의 칭호와 인장을 수여하였다.<sup>51)</sup>

50) 도제겔보의 탄트라 수행과 바즈라파니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사다나(Sādhana), 둠바첸보(sgrub pa chen po) 등 여러 탄트라 수행에서 바즈라파니가 연결되어 있어 이 점은 장래 고찰이 필요하다. 바즈라파니가 도제겔보의 이담(yidam)이었을 가능성,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호법신의 일종으로 특정 탄트라 수행의 주재자로서 경전이나 만달라에 등장하는 도제겔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담(yi dam), 즉 本尊이라는 것은 밀종의 용어로 만달라를 구성하는 붓다, 보살, 명왕 등을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밀종 수행자들은 이담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데 평생 하나의 본존을 선택한다. 수행자는 이 본존이 자신을 보호하는 護法이라고 믿으며 수행에서 성과를 얻게 되면 본존 또한 본존이 수행자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진전된 수행과정에서 수행자와 합일되어 成佛에 이르게 한다고 이해된다. 본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남성은 勇夫, 明王으로 부르며 여성 본존은 佛母, 空行母, 明妃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이담의 하나로 언급된 명왕(持明者, vidyā-dhara)은 여래불의 화신, 보살 등의 화신이며 眞言과 만달라 중 등장하는 明(vidyā)이 체현된 것을 의미한다. 그 빛은 지혜를 의미하며 강력한 지혜로 모든 악귀와 장애물을 파괴한다. 주로 분노존으로 표현되며 이 존재가 여성인 경우는 明妃라고 칭한다.

위에 인용한 자료는 5세 달라이라마 약왕로상가초가 1643년에 저술한 *rdzog ldan gzhon nu'i dga' ston*의 일부이다.<sup>52)</sup> 元末 사카교단이 쇠락하고 팍모두 교단이 성장하여 티베트의 대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야르룽으로부터 바즈라파니의 화신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야르룽 지역을 근거로 하는 팍모두 교단이 사카 교단을 대신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바즈라파니는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실상 몽골에게 이러한 예는 생소하지 않다. “전륜성왕이며 와치르바니의 화신인 칭기스한”이 그것인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몽골제국 붕괴 이후 불교가 다시 몽골 사회에 대두하기 시작하는 16세기 후반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차간투흐 *Čayan teüke*(白史)에서 칭기스한은 와치르바니의 화신으로 묘사된다.<sup>53)</sup> “와치르가 들어가는 한 칭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음미해 볼 부분이다. 그나마 아바다이한은 다얀한의 막내아들 게레센제의 후손으로 칭기스한과의 혈통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로부터 수여된 범봉의 예가 몽골 전체로 확장되면서 칭기스한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와치르바니의 화신이라는 수사를 붙여 해당 세속군주의 정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보인다. 라사 포탈라 紅宮의 벽화 중 상제가초(5세 달라이라마의 제자)와 구시한의 손자 달라이한(재위 1671~1696)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이한은 바즈라파니로 묘사되고 있다.<sup>54)</sup>

### 3. 흥타이지와 마하칼라

앞서 1571년 아싱라마가 언급했듯이 “성스러운 복다·세첸한과 팍바라마 둘의 방식을, 政教를 세우는 예로 삼아” 시작된 몽골 우익과 티베트 겐룩 교단의 연결은 정치적으로 다얀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몽골 정계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겐룩 교단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주를 확보하기 위해 16세기 말~17세기 초에 걸쳐 서로는 오이라드, 동으로는 만주에까지 겐룩 교단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몽골이든 그렇지 않든 내륙아시아의 정치세력에게 겐룩 교단은 쿠빌라이 세첸한(1215~1260~1294)과 팍바라마(1235~1280)의 권위를 소환하는 창구로 역할 했다. 쿠빌라이계를 자처하는 다얀한계의 후손으로서 알탄한은 물론 그

51) Ņag-dBañ Blo-bZaṅ rGya-mTSho, *A History of Tibet*, Translated from Tibetan by Zahiruddin Ahmad, Indian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Bloomington, Indiana, 1995, p.139

52) Zahiruddin의 영역본 외에도 G. Tucci, *Tibetan Painted Scrolls*, La Libreria dello Stato, Rome, 1949; 郭和卿, 『西藏王臣記』, 民族出版社, 北京, 1983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53) *Arban buyan-tu nom-un čayan teüke*,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 pp.76~77

54) Yumiko Ishihama, “The Dalai Lama as the Cakravartī-rāja as Manifested by the Bodhisattva Avalokiteśvara”, *Cahiers d'Extrême-Asie*, Vol. 24, 2015, p.179

와 혈연적으로 전혀 무관한 만주에 이르기까지 세첸한의 칭호는 내륙아시아를 둘러싸고 패권을 다투는 모두에게 쟁취의 대상이었다. 이런 칭호가 티베트 불교계와의 연결을 통해 알탄한에게, 다시 반 세기 뒤인 1630년대 중반 만주국의 홍타이지에게 부여되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팍바가 쿠빌라이에게 헌상했다고 전해지는 마하칼라(Mahākāla, nag po chen po)와 함께 전해져 홍타이지의 정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몽고 대원국 **세조 쿠빌라이 수려한(수려한 < 蒙文 세첸한)**의 때에 팍바·라마(Paksba Lama)가 마하칼라 불상을 금으로 주조하여 오대산에 모셔 제사지냈다. 사카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지냈다. 그 후 샤르바·퀴투투·라마(Šarba Kūtuq-tu Lama < 蒙文 샤르바 호툽토 라마)가 불려 대원국의 후에 몽고 차하르국에 가지고 가서 제사 지냈다. 하늘의 때를 받은 **만주국의 수려한(=홍타이지)**이 福德과 武威로 차하르국을 토벌하려 纛旗를 서쪽으로 가리키자 차하르국의 사람들이 스스로 도망쳐 정치는 무너지고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항복해 왔을 때 머르겐·라마(Mergen Lama)는 마하칼라 불상을 가지고 항복해 왔다.<sup>55)</sup>

『內國史院滿文檔』 천총 8년 12월 14일(1635년 2월 1일) 기사에서 원 세조 쿠빌라이가 사용하던 “영명한, 지혜로운 한(sečen qayan)”이라는 칭호는 팍바와 쿠빌라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마하칼라상을 매개로 만주 홍타이지에게 전해졌다. 만주문 사료에서 말하는 “大元國의 수려한”과 “만주국의 수려한”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세계를 수호하는 호법신 마하칼라는 대략 8~9세기 사이 동아시아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金剛乘의 전래와 함께 벽화나 두루마리 그림 탕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타림분지 남부 호탄과 하서회랑 서쪽 돈황에서 확인되며 11~12세기가 되면 몽골 남서부 알라산 에치나 黑水城 유적에서 마하칼라의 그림과 관련 기도문이 다수 발굴되었다.<sup>56)</sup> 티베트에서도 비슷한 시기 닝마 교단 등에서 호법신으로 수용하다가 사카 교단에서 크게 발전시켜 티베트는 물론 몽골에도 영향을 주었다.

위의 인용문에 언급한 마하칼라는 1274년 무렵 팍바가 쿠빌라이에게 헌상한 것이

55) 楠木賢道 等 譯註, 『內國史院滿文檔: 天聰八年』, 東洋文庫, 2009, p.390. 유사한 내용이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藏學研究中心 合編, 『清初五世達賴喇嘛檔案史料選編』, 「盛京蓮花淨土實勝寺建成皇太極親往行禮償賜」, 中國藏學出版社, 2000, p.3~6에도 실려 있다. 자료의 번역은 김성수, 「불교적 禮儀를 통해 본 17세기 내륙아시아」, 『명청사연구』 50, 2018, p.120을 참조.

56) 謝繼勝, 『西夏藏傳繪畫: 黑水城出土西夏唐卡研究』, 河北教育出版社, 2002, pp.134~142. 마하칼라의 형태는 다양한데 팔이 2~8개, 머리가 1~4개 등이며 이에 따라 손에 들고 있는 지물과 수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투찌가 소개한 마하칼라상의 예를 들어보면, 괴수의 형상을 한 4개의 팔을 가진 검은 마하칼라는 머리가 4개인데, 가운데 머리는 파란색으로 벌린 큰 입으로 사람을 물고 있고 왼쪽의 머리는 흰색으로 괴기스럽게 웃고 있다. 오른쪽 붉은 얼굴은 가장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가운데 머리 위 중앙에 위치한 머리는 검은색이다. 모든 머리에는 눈이 3개씩 있다. 첫 번째 오른손에는 바즈라 모양의 손잡이를 한 의례용 칼 디국(gri gug)을 들고 왼손에 잡고 있는 두개골을 자르고 있다. 이 두개골은 컵으로 사용되며 악마의 피가 넘치고 있다. 또 다른 한 쌍의 손 중 오른손은 칼, 왼손은 세 갈래로 나뉜 창을 쥐고 있다. 왼쪽 겨드랑이 아래 음식이 담긴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다. 장매물을 만드는 악마 객(bgegs)을 밟고 있다. 머리에는 두개골로 만든 화환을 쓰고 있고, 허리띠에는 방금 절단된 인간의 머리가 매달려 있으며 그를 둘러싸고 춤추는 듯 후광이 이글댄다. Giuseppe Tucci, *Tibetan Painted Scrolls*, Vol. 2, SDI Publications, 1999, pp.589~590를 참조.



다. 1269년 티베트 사카로부터 돌아온 팍바는 蒙古新字, 즉 팍바문자(八思巴文字)를 쿠빌라이에게 헌상하고 문서와 인장을 팍바문자로 교체하여 제작하는 일에 관여했다. 이 때 쿠빌라이는 팍바를 五臺山 壽寧寺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불사를 행하게 했는데 거기에는 마하칼라에 대한 불사도 포함되었다. 1273년 양양, 번성이 함락되고 1274년 바얀이 총사령관이 되어 남송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이 감행되고 있었다. 1276년 남송 정벌을 목전에 둔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때였다. 그런 이유로 당시 팍바가 헌상한 마하칼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험한 호법신으로 여겨졌다.<sup>57)</sup>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몽골제국 시대 국가 차원에서 마하칼라(大黑天)에 대한 숭배와 공정을 중심으로 한 탄트라불교의 수행 즉, 秘密大喜樂禪定, 演揲兒法(Yantra)이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이는 팍바 라마 등 사카 교단에 의해 전해진 람제(lam 'bras), 즉 道果法(지향하는 길을 따라 열매를 얻는다, 집착을 끊고 無我的 상태에 이르는 노력)의 일부분에 해당한다.<sup>58)</sup>

남송정벌과 제국의 번영을 상징했던 바로 그 마하칼라가 1635년 목덴(盛京)에 등장했다. 흥타이지가 국호를 大清으로 바꾸고 滿蒙漢의 제국 출범을 선포하기 직전, 만주국은 세첸한의 칭호와 마하칼라를 통해 몽골제국의 계승자임을 자임하게 되었다.

1638년(송덕3) 8월 12일(음) 마하칼라를 봉안할 蓮華淨土實勝寺가 완공되었다. 흥타이지가 당시 티베트의 권력자 짱바한 덴종왕보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연꽃이 만발한 盛京에서”라고 언급한 것도 실승사의 건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up>59)</sup> 1636년(송덕1) 가을 시작되어 2년 만에 건설된 이 사원은 다섯 칸 大殿, 대전의 동서에 각각 세 칸 廂房, 대전 앞에 세 칸 天王殿, 승려의 숙식과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와 부속 건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하칼라는 그 중 서쪽 상방에 봉안되었다.<sup>60)</sup>

이후 마하칼라는 1694년 강희제에 의해 북경으로 옮겨지는데 P. K. 크로슬리는 그 원인을 할하 복속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마하칼라는 역사적으로 몽골의 정치 권력과 밀접히 연결된 호법신으로 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마하칼라에 대한 제사는 북경으로 옮겨지는 것이 마땅했다.<sup>61)</sup> 특히, 1691년 갈단의 공격으로 할

57) 陳慶英, 『帝師八思巴傳』, 中國藏學出版社, 2007, pp.137~142;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제155집, 2021, pp.163~166

58) 秘密大喜樂禪定은 사실상 도과법에서 설명하는 欲樂定이라는 수행법이며 이것은 『吉祥喜金剛本續』(Hevajra Tantra)의 수행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沈衛榮, 『大元史與新清史: 以元代和清代西藏和藏傳佛教研究爲中心』, 上海古籍出版社, 2019, pp.117~122을 참조. 여기에서 沈衛榮은 『大乘要道密集』 연구를 통해 원대 불교 密宗은 사카 교단의 道果法, 大手印法을 중심으로 하지만 쯤닝, 샬루 등 티베트의 불교 교단의 밀종 의례는 물론 앞서 티베트 밀종의 영향을 이미 받은 西夏, 중국 등지의 밀종 의례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개 『大乘要道密集』은 원대 팍바라마에 의해 집대성되고 漢譯되어 元末 출간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沈衛榮의 연구에서는 사카 이외 다양한 계통의 밀종 儀軌가 포함되어 모두 83편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沈衛榮, 『藏傳佛教在西域和中原的傳播: 『大乘要道密集』研究初編』,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7을 참조.

59) 김성수, 「五世 달라이라마 北京행의 배경과 17세기 내륙아시아 네트워크」, 『명청사연구』 제29집, 2008, pp.133~135

60) 『太宗文皇帝實錄』 권43, 崇德3년 8월 壬寅條

61) Pamela Kyle Crossley, *A Tran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240.

하가 청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론노르 會盟을 통해 할하는 청조에 복속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이 된 제브준담바호톡토, 투세투한 등 할하의 귀족 약 만 명이 일시적으로 북경에 머물게 되었으니 이때 마하칼라를 북경으로 옮기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었다.<sup>62)</sup> 이에 강희제는 궁궐의 동측 성문 東華門 밖 과거 도르곤의 睿親王府가 있던 자리에 사원을 건설하고 그곳에 마하칼라를 옮겨 왔으며 1776년부터 이 사원을 普度寺로 불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마하칼라는 중일전쟁 중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sup>63)</sup> 비록 팍바가 헌상했다고 하는 마하칼라는 소실되었으나 雍和宮을 비롯한 북경의 사원 곳곳에는 불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마하칼라가 안치되었고 호법신의 대표로서 그의 지위는 滿蒙 지배층의 정치적 연대만큼 굳건했다.<sup>64)</sup>

#### 4. 맺음말

이 글은 “명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추적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sup>65)</sup> 이 기획의 지역적 한계를 동유라시아로 규정한 것은 중화제국으로서 명청과 함께 밀접히 연결되어 있던 내륙아시아를 한데 묶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몽골제국의 시대를 넘어 중앙유라시아는 점차 동서로 분리되는데 서쪽에서는 제정러시아가 시베리아는 물론 카스피, 아랄해 남쪽을 향해 세력을 확장했고, 동쪽에서는 청조가 명을 아우르며 서진하여 러시아와 청조에 의한 중앙아시아의 동서 분할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나 청조의 확장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62) Pamela Kyle Crossley, *A Tran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315. 당시 제브준담바호톡토, 투세투한 등은 돌론노르(內蒙古自治區 錫林郭勒盟 多倫縣, 張家口 북동), 북경, 열하 피서산장(承德) 등을 오가며 강희제를 따라 신년행사, 가을 수렵, 오대산 순행 등에 참석했다. “Life and Works of Jibcundamba I”, *Śāta-piṭaka Series*, Indo-Asian literatures, vol.294, reproduces by Lokesh Chandra, New Delhi, 1982: #511-513. 金成修, 『明清之際藏傳佛教在蒙古地區的傳播』, pp.203~207의 번역을 참조.

63) 팍바가 쿠빌라이에게 헌상한 마하칼라는 실전되었으나 현재 기메 박물관에 소장된 마하칼라 석상을 통해 대강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메 박물관 소장품은 1292년 제작된 것으로 쿠빌라이의 궁정에서 네와리(Newari) 양식을 꽃피웠다고 알려진 아니게(Anige, 阿尼哥, 1245~1306)가 제작했거나 관련한 작품이었다고 추정한다. 기메 박물관 소장품에는 아자박시(A tsa bag shi)의 후원으로 1292년에 제작했다는 명문이 바닥에 새겨져 있다. 오대산에 모셨다가 후에 西夏가 위치했던 곳으로 옮겼다고 전하며 이것을 샨르바 호톡토(Šarpa Khutughtu)가 립덴칸(1604~1634)에게 헌상했고, 1634년 만주가 립덴칸에게 승리를 거둔 후 메르겐라마(Mergen lama, 만주시리 판디타라고도 함)가 목덴으로 가져와 흥타이지에게 헌상했다. 만주를 이를 만달라를 형상해 건설한 실승사에 봉헌했다. Patricia Berger,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2003, p.24를 참조.

64) F. D. Lessing, *Yung-Ho-Kung: An Iconography of the Lamaist Cathedral in Peking with Notes on Lamaist Mythology and Cult*, Stockholm, 1942, pp.73~74

65) 최근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 연구팀의 활동에 힘입어 몽골제국기 물품의 유통과 문화사적 의의를 밝힌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 연구도 그간 몽골제국기와 관련하여 전개된 관련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경제·정치 네트워크-」,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아니었으며,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초원의 주축이었던 몽골계 정권의 활동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

몽골제국 이후 재편된 중앙유라시아 정세는 제정러시아와 청조, 다시 뒤이어 등장한 사회주의 정권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영향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영향 아래 놓였던 중앙아시아나 청조에 복속되거나 주변부에 놓였던 내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몽골의 영향은 지속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명조의 九邊에서 다시 청대 藩部로 재편되는 동유라시아 내륙 지역은 몽골에 의한 새로운 정국의 재편을 맞이했다. 16~17세기 초 몽골의 여러 정파는 제국 질서의 회복을 시도했고 여기에 티베트 일부 교단도 적극 참여하면서 여러 계층의 승려와 사원, 교단, 시주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불교적 예의 속에서 선물의 교환은 일상화 되었고 시주나 승려의 지위에 따라 교환되는 선물의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주요 교단과 사원의 경제 활동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몽골을 중심으로 내륙아시아에서 불교적 예의가 확산되는 것은 몽골제국 시대 쿠빌라이 세첸한과 팍바라마의 관계를 회복함과 연결되어 있었다. 불교적 예의는 시주와 승려 사이의 선물 교환을 수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고 작은 인적·물적 교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알탄한, 아바다이한, 홍타이지 세 명의 군주가 티베트 불교계와 접촉하면서 교환한 선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정치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16세기 다얀한의 부상은 쿠빌라이계로의 정계 재편을 의미했다. 다얀한의 손자로서 다얀한 六萬戶 정권의 수호자로 등장한 알탄한은 명조와의 교역권을 확보하고 오이라드, 오랑한과 암도 일대의 異姓 제후들을 제압하면서 다얀한의 후손들 중 두각을 나타냈다. 겐룩 교단은 이런 알탄한에 주목하고 몽골제국 시대의 교단과 시주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1578년 알탄한과 달라이라마 3세의 만남은 몽골의 불교 수용과 교단의 수립, 몽골과 티베트를 위시한 내륙아시아 내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필자는 이를 내륙아시아의 불교적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승려와 세속 군주 사이에 전개된 불교적 禮儀에서 교환된 선물에 집중해 보았다.

첫 번째, 알탄한은 그간 소원해졌던 불교계와 연결되면서 쿠빌라이의 시대를 재현하려고 했다. 물론 그가 목적으로 한 것은 쿠빌라이의 정치적 권위였지만 그에 수반되어 팍바라마와 관련된 기억도 소환되었다. 隆慶和議 등을 계기로 명조와의 교역권을 확보한 후 알탄한은 말, 비단, 곡물, 차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취를 배경으로 알탄한은 大都를 닮은 흑호트를 건설하고 흑호트와 암도 찻치알에 사원을 마련하여 티베트 교단과 연결을 시도했다. 3세 달라이라마의 암도 찻치알 방문은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알탄한은 3세 달라이라마에게 팍바문자로 새긴 인장, 금은으로 만든 만달라, 비단, 차 등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는 몽골제국 시대 사용되었던 팍바문자와 탄트라불교 수행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었다.

두 번째, 1586년 흑호트를 방문한 할하의 아바다이한은 달라이라마를 만나 와치르

바니가 그려진 탕카 한 점과 노몬·예케·와치르한(佛法大金剛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그 기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칭기스한은 와치르바니의 화신으로 여겨져 왔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3대 보호신으로 여겨지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와치르바니는 석가모니의 자비, 지혜, 힘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티베트 역사에서는 토번의 겐보 송젠감보(605~617~650), 치송데젠(730~756~797), 치죽데젠(803~841)이 각각 관음보살, 문수보살, 금강수(바즈라파니)의 화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몽골에서 세속 군주를 바즈라파니의 화신으로 이해하는 예는 칭기스한을 넘어 아바다이한, 호쇼드 달라이한 등에서도 보이는데 몽골의 여러 세속 군주들에게 정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와치르바니와 관련된 탕카는 몽골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세 번째, 일찍이 팍바라마가 쿠빌라이의 남송 정벌을 기원하는 뜻으로 선물한 마하칼라가 1635년 만주국의 묵덴에 등장했다. 쿠빌라이 세첸한, 이를 계승한 차하르 몽골의 정치적 권위를 마하칼라를 통해 만주가 이어받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훙타이지는 국호를 大清으로 바꾸고 滿蒙漢의 제국 출범을 공포하였다. 제국의 수도 묵덴에는 마하칼라를 봉안한 實勝寺, 동서남북의 불탑사를 건설하여 묵덴 또한 내륙아시아에서 뒤지지 않는 불교의 중심지 蓮華淨土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할하 몽골의 귀속에 즈음하여 마하칼라는 북경으로 옮겨지고 청조의 호법신으로서 마하칼라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갔다. 북경의 사원 곳곳에는 불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마하칼라가 안치되었고 호법신의 대표로서 그의 지위는 滿蒙 지배층의 정치적 연대만큼 굳건했다.

## 【토론문 4】

### 〈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에 대한 토론문

이선애(경상국립대)

발표자께서는 투메드의 알탄 한부터 후금-청의 흥타이지에 이르기까지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불교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요 세력들이 주고받은 의례와 선물을 검토하셨습니다. 티베트와 몽골 부족 간에 왕래한 물품이나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보시품과 선물의 종류, 그것이 가진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는 『알탄한전』과 달라이라마 전기, *Čayan teūke*(白史), 사강 세첸의 *erdeni-yin tobči*(『蒙古源流』) 등 여러 사료에 산재해 있는 기록을 추출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이용해 물품을 통해 몽골과 만주의 정치 권력자가 티베트 불교 세계와 연결되는 과정을 살피셨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신 발표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알탄한이 겔룩빠를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 3세 달라이라마가 되는 소남가초와의 만남이 주로 언급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알탄한과 소남가초의 만남이 성사되는 데에 일조한 사람으로 아싱라마를 언급하셨는데 아싱라마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며 티베트 불교사에서 아싱라마가 차지하는 지위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2. 알탄한은 소남가초에게 ‘달라이라마라 와치르다라’라는 호칭을 바치고 소남가초는 알탄한에게 ‘法王 大梵天’의 호칭을 바칩니다. 또 알탄한이 달라이라마에게 과거 팍빠가 쿠빌라이에게 했듯이 자신에게도 吉祥歡喜金剛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청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편 할하의 아바다이한은 칭기스한과 관련된 執金剛 즉 와치르바니의 화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기스한이 왜 와치르바니의 화신으로 여겨졌는지, 몽골의 세속 군주들이 원했던 法王 大梵天和 吉祥歡喜金剛, 執金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轉輪聖王 차크라바르틴과 와치르바니의 관계는 무엇인지, 차크라바르틴이 세속 권력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3. 알탄한이 티베트 승려에게 보시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발표문에서 밝힌 물품들은 몽골 제국 시기 몽골 궁정이 사까 빠디타나 팍빠에게 사여한 물품과는 종류와 수량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몽골 제국 시기에는

금·은, 금과 진주로 만든 가사, 보석으로 장식한 술, 은과 보석이 있는 검, 각종 모피와 고급 비단 등 가치가 높은 진귀한 물품들이 티베트 승려에게 사여되었습니다(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참조). 알탄한이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승려들에게 보시한 물품은 금으로 만든 만달라, 천 시지르로 만든 銀椀, 옥과 크리스탈, 금·은 등 보석과 의복, 금 안장과 마구로 장식한 좋은 말·낙타 등 가축 그리고 茶와 인장 등이 등장합니다. 만달라나 인장은 政敎的 면에서, 은완 등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몽골 제국 시기와 알탄한의 시기는 보시 물품의 규모와 가치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明代 몽골 부족들은 명과의 교역이 중요한 물자 조달 창구였으므로 당시 알탄한이 티베트 승려들에게 보시한 물품도 명과의 교역 상황과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몽골 제국 시기와 알탄한 시기 티베트 불교 세계에 보시한 물품의 차이 그리고 알탄한 시기 명과의 교역 상황을 시야에 넣고 당시 보시 물품들의 흐름이나 규모·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앞의 질문과 관련해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몽골이 명과의 조공무역 특히 馬市를 통해 얻은 물자 중 일부가 다시 티베트 승려들에게 의례적 물품으로 보시되는 순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물품이 그대로 티베트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티베트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折價되어 전달되는 상황도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명대 몽골부터 청대까지 중국과 몽골, 티베트 사이에서 오간 물품들의 경제적인 가치와 政·敎的 의미를 구분하고 이것이 각 지역 세력의 필요에 따라 어떤 물품으로 바뀌어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사료의 한계로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茶는 몽골 제국 이후 대규모로 티베트에 전해진 주요 보시 물품으로 자리 잡아 알탄한 시기를 거쳐 청대에도 이어집니다. 소위 만자(manja) 혹은 망자(mang ja)라고 하는 차 보시가 티베트 불교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티베트 불교계에 차 보시의 관행은 대략 언제쯤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문 5】**

**청대 만주사회의 족보 편찬 문화 전래와 의미**

**김준영(충남대)**





# 청대 만주사회의 족보 편찬 문화 전래와 의미

김준영(충남대)

- I. 머리말
- II. 청대 官方 족보 편찬과 만주사회로의 확산
  - 1. 官方 족보의 형성
  - 2. 일반 만주인 족보에 대한 官方 족보의 영향
- III. 청대 만주인 족보의 특징과 족보의 공적 기능
  - 1. 滿漢合璧 족보의 유형
  - 2. 譜名 표기에 나타난 만주인 족보의 특징
  - 3. 만주사회의 족보 활용: 八旗 신분 및 世職 증명
- IV. 맺음말

## I. 머리말

후금의 2대 대칸인 흥타이지가 '만주'라는 種族 명칭과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 大清)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선포하였다. 이후 동북아시아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된다. 1644년 신생 왕조인 청은 明의 자멸이라는 상황을 틈타 入關 하여 북경을 점령하였다. 이후 청은 1912년 선통제가 퇴위할 때까지 약 268년 간 중국 전역을 통치하였다. 청 이전 중국을 통치한 元은 100년 남짓 중국을 통치한 후 초원 세계로 물러났기 때문에 청은 원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조의 성공 요인에 '康乾盛世'로 명명되는 연이은 걸출한 지도자 등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어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신칭사학파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청조의 성공 요인에 대해 만주족의 정체성 유지와 내륙 아시아의 제국으로의 성장을 주된 이유로 설명한다. 반면 중화권에서는 만주족의 성공적인 漢化를 주된 요인으로 설명한다. 이후 만주족의 漢化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확산되는 모습까지 보인다.<sup>1)</sup> 사실 신칭사학파의

1) 신칭사학파의 연구성과와 이에 대한 중국·대만 학계의 대응 연구는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신칭사 논쟁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신칭사학파와 중국(혹은 대만) 학계의 논쟁을 정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徐泓, 「“新清史”論爭: 從何炳棣、羅友枝論戰說起」, 『首都師範大學學報』1, 2016; 김선민,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 『사총』74집, 2011; Pamel K. Crossley, 김선민 역, 「'신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기세찬, 「신칭사 연구사 분석을 통한 담론의 함의」, 『군사연구』144집, 2017.

주장과 중국·대만 학자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수하면, 결국 자신이 만든 선입견으로 인해 청대 만주사회에서 보이는 공존과 상호 융합적인 측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가령 명청 시기 대표적인 기층사회 조직인 宗族에 대한 연구에서 오랜 시간 漢人 宗族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sup>2)</sup> 그러나 청대 지배계층인 만주인의 宗族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쩌면 양측 모두 宗族 문화의 본류가 漢文化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만주宗族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것이다. 만주종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漢人 宗族文化를 수용하여 만주족 또한 宗族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에 그친다.<sup>3)</sup> 이는 종족 형성의 表象이라 할 수 있는 族譜·祠堂·族產 등의 요소가 만주인 宗族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근대 시대 우리가 漢字를 사용했지만 이를 두고 漢化 되었다고 말하지 않듯, 외면적 모습만으로 만주宗族을 漢人종족과 동일시 혹은 漢化 되었다고만 인식하는 것은 선입관에 의한 판단이다. 사실 만주宗族은 팔기제도와 청조의 규범의 영향을 받아 漢人과 다른 宗族문화를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면적으로 漢文化와 유사하여 漢化 현상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고유성을 존속한 만주宗族의 族譜'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족보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일본·류큐·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된 기록문화이다. 동아시아 전근대 사회에서 족보 문화의 공통점은 혈연집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각 국가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족보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령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동아시아 족보 비교 연구에서 중국과 한국의 족보는 世系에 최대한 많은 족인을 수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일본·류큐의 족보는 직계 족인만 世系에 수록한다고 하였다. 또 한국 족보는 중국과 달리 혼인관계를 자세히 기록 하였는 데 이는 宗族의 사회적 지위(위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sup>4)</sup> 미야지마 히로시의 동아

2) 漢人 宗族史 연구는 安徽, 福建, 廣東 등 강남지역 종족에 대한 연구에서 점차 화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漢人종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종족사 연구의 개괄서는 馮爾康 等著, 『中國宗族社會』, 浙江人民出版社, 1994; 常建華, 『宗族志』, 上海人民出版社, 1998 등 참고. 강남지역에 대한 연구는 박원호, 『明清徽州宗族史研究』(지식산업사, 2002); 常建華, 「明代徽州的宗族鄉約化」, 『中國史研究』3, 2003; 趙華富, 『徽州宗族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04; 鄭振滿, 『明清福建家族組織與社會變遷』, 湖南教育出版社, 1992; 원정식, 『종족 형성의 공간과 문화-15-16세기 복건 신현을 중심으로』, 위더스북, 2012; 科大衛·劉志衛, 「宗族與地方社會的國家認同: 明清華南地區宗族發展的意識型態基礎」, 『歷史研究』3, 2000 등 참고. 화북지역 종족에 대한 연구는 秦燕·胡紅安, 『清代以來的陝北宗族與社會變遷』, 西北工業大學出版社, 2004; 常建華, 「明清北方宗族的新探索(2015-2019年)」, 『安徽史學』5, 2020 등 참고; 최근 학계의 종족사 연구성과를 정리한 논문은 常建華, 「改革開放以來南開大學的中國宗族家族與家庭研究」, 『南開史學』2, 2019; 常建華, 「明清南方宗族研究的新探索(2015-2019)」, 『中國區域文化研究』1, 2021 등이 있다.

3) 高丙中과 謝肇華는 만주인 역시 족장의 족권, 족보 편찬, 족규를 통한 종법의 법제화 그리고 宗祠·祭田 건립 등의 사례를 통해 만주족 또한 종법제도에 근거한 종족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高丙中, 「東北駐屯滿族的血緣組織——從氏族到家族再到家戶的演變」, 『滿族研究』1, 1996, p.20; 謝肇華,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1, 1993, pp.43-45; 何海龍,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4, 2002 참고)

시아 족보 비교 연구는 중국 족보를 규정할 때 중국 족보의 種族적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중국 학계에서도 만주족 족보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민간 족보를 수집한 자료집 발간에서 시작되었다.<sup>5)</sup> 90년대 이후 만주인 족보의 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분석한 형태의 연구서가 출간되었다.<sup>6)</sup> 2000년대 이후에는 개별 족보를 통해 만주족의 宗族제도, 제사, 혼인 풍습 등의 연구로 심화되었다.<sup>7)</sup> 그러나 만주인 族譜에 대한 연구에서 만주사회에 족보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중국학자들의 관점에서 만주인이 漢文化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관점에서는 청대 만주인은 지배집단이었고 청조 통치자들이 만주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측면을 고려하면, 족보라는 漢文化를 확산시킨 데에는 특별한 이유 혹은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족보 문화를 만주인의 漢化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선입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만주사회에서 족보 편찬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 만주인 족보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족보가 만주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 II. 청대 官方 족보 편찬과 만주사회로의 확산

### 1. 官方 족보의 형성

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한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함을 느끼고 동시에 국가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조화가 필요하다. 漢人사회의 族譜 편찬 문화가 만주사회에 정착 할 수 있게 된 것도 두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만주인이 일상생활에서 족보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주인의 단순하고 불규칙적인 작명 문화이다. 漢人사회는 향렬자(돌림자) 사용이 보편화 되어 이름만으로 同宗 여부를 물론 宗族 내 상하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입관 전 만주인은 향렬자와 같은 규칙적인 작명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五十三과 같은 숫자를 이름으로 삼거나, 지명·동물

4) 官嶋博史,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 『大東文化研究』77집, 2012.

5) 李林, 『滿族家譜選編』, 遼寧出版社, 1988; 趙立靜等, 『滿族家譜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尹郁山等編, 『吉林滿族家譜資料選編一·二』, 吉林文史出版社, 2005·2009; 常裕鉞·關捷編, 『盛京滿族家譜精編』, 北方文藝出版社, 2007; 張德玉, 『遼東滿族家譜選編』, 遼寧民族出版社, 2012; 『北京圖書館藏家譜叢刊·民族卷』, 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何曉芳主編, 『清代滿族家譜選輯』上下冊,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 遼寧民族出版社, 2016; 呂萍·何曉芳·張德玉主編, 『佛滿洲家譜精選』全3冊, 人民出版社, 2017

6) 李林, 『滿族宗譜研究』, 沈陽:遼寧民族出版社, 1992(2006년 개정); 傅波·張德玉·趙維和, 『滿族家譜研究』, 沈陽:遼寧古籍出版社, 1996; 劉慶華, 『滿族家譜序評註』, 遼寧民族出版社, 2012.

7) 薛柏成, 「淺論葉赫那拉氏族譜」, 『滿族研究』4, 2001; 趙維和, 「滿洲八旗<葉赫那拉氏族譜>研究」, 『滿族研究』2, 2005. 杜家驥, 「<他塔喇氏家譜>及其所反映的清代東北駐防旗人家族」, 『東北史地』3, 2006. 邱源媛, 『找尋京郊旗人社會-口述文獻雙重視角下的城市邊緣群體』, 北京出版社, 2014; 楊原著, 『詩書繼世長——葉赫顏割氏家族口述歷史』, 北京出版社, 2014.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이름으로 삼았다. 입관 후 만주인들은 城 내에서 旗를 단위로 거주지가 획분 되었고, 同宗 집단이 인접한 공간에서 집거하게 되었다. 종전에 만주인들이 작명에 원칙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宗族 내 동명이인이 발생하였고, 이는 宗族 내 상하관계를 혼동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sup>8)</sup> 따라서 만주인도 자손의 이름을 작명할 때 선인들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상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족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음은 만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족보가 필요하게 된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族譜라는 漢人의 문화가 만주사회에 스며들게 된 이유는 정책적 측면이 더욱 긴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明清 시대 족보의 체제는 송대 歐陽修와 蘇洵의 체제를 계승한 것으로 序文·世系圖·別傳·墓地·祠堂紀·家規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족보는 민간에서 家事를 기록해 宗族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紳士라는 비세습적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족보는 민간의 전유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족보의 출발은 국가 주도로 편찬된 지배집단의 家系기록이었다. 즉 송대 이후 민간에서 보편화된 족보와 달리, 그 이전 족보는 문벌사족과 같은 지배층의 세습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기록물이었다. 따라서 족보는 민간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나 사실 족보의 근원을 따져보면 국가 주도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청대 만주사회에는 동시대 漢人사회와 달리 국가 주도적 성격의 족보가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족보를 官方 족보로 명명하였다. 청대 官方 족보는 자료 출처에 따라 민간자료를 이용한 官方 족보와 官에서 직접 편찬한 官方 족보로 구분된다.

#### (1) 민간 자료를 활용한 官方 족보

청대 官方 족보에서 가장 完整性을 지닌 자료는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하 一史館)에 소장되어 있는 <清代譜牒檔案>이다. 본 당안을 가장 完整性을 지닌 자료로 언급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옹정 연간부터 선통 연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 지역이 아닌 전국의 八旗 戶口를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이다.<sup>9)</sup> 계층적으로도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데 청초의 통치계급인 宗室에서부터 일반 旗人 및 하층 莊頭까지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고 있다. <清代譜牒檔案>에 종족의 世系圖를 포함하는 자료는 전체 2만여 冊 가운데 1만여 冊 정도이다.<sup>10)</sup> <清代譜牒檔案>에 기인의

8) 족보 편찬 이유에 대한 서술에서 “宗族의 世系를 분명히 하고, 지파를 분별하며, 종족 내부의 상하질서를 확정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宗譜之立，所以明世系，別支派，定尊卑，正人論之大經也.”)

9) 청대 旗人의 戶口冊에 관한 자료는 북경 一史館에 소장되어 있는 <清代譜牒檔案>과 요녕성당안관에 소장되어 있는 <盛京內務府戶口冊>이다. 두 자료 모두 청대 官方 족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清代譜牒檔案>가 팔기의 호구 자료를 수록한 측면에서 지역적, 계층적으로 더 포괄적인 자료라는 점, 그리고 그간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청대 관방 족보의 사례로 일사관에서 소장한 <清代譜牒檔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盛京內務府戶口冊>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고. 佟永攻, 「盛京內務府戶口冊解析」, 『清史研究』2, 1995; 定宜莊, 『遼東移民中的旗人社會』, 上海社會科學出版社, 2004.

10) <清代譜牒檔案>에는 황실 戶口에 관한 기록인 玉牒, 紅名(男·女)冊, 卒(男·女)冊, 花名冊, 聘嫁花名冊과 더

戶口 및 家系를 기록한 족보 자료는 팔기의 말단 지도자인 니루 하 族長이 3년에 1번씩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清代譜牒檔案>을 통해 옹정에서 선통 연간까지 민간의 족보 편찬 문화가 조정의 정책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만주사회의 족보 문화는 청조의 호구조사라는 제도적 기반 하에 확산 및 유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조가 <清代譜牒檔案>이라는 官方 족보를 오랜 기간 만들어온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대 八旗에 속한 만주인은 지배집단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았다. 팔기의 각종 혜택은 기인 속한 니루의 종류 및 팔기에서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었다. 입관 후 일부 하층 기인과 民人(팔기에 속하지 않은 漢人)은 기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인의 養子가 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만주사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旗籍에 이름을 올린 자가 正身旗人의 名額을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sup>11)</sup> 이에 청 조정은 일반 기인 신분인 正身旗人의 지위를 보장하고, 불법적으로 기인이 된 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인의 戶口 및 족보 기록을 대조하여 기인 신분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즉 청조 통치자는 불법적으로 기인 신분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기인 신분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다년간 기인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官方 족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一史館에 보관되어 있는 <清代譜牒檔案> 자료를 살펴보면, 청조가 개별 기인의 정보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옹정 12년에 작성된 <正白旗滿洲查送佐領冊>에는 좌령이 편성된 과정, 좌령직이 세습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적어 해당 좌령의 유래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sup>12)</sup> 각 호 별로 정리한 戶口冊도 一戶의 인적 구성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다음은 동치 2년에 작성된 <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 첫 장이다.

---

붙어 일반 기인들의 戶口에 관한 기록인 戶口冊, 旗務檔冊, 紅名冊, 佐領冊, 花名冊, 世職家譜大檔清冊 등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清代譜牒檔案>에는 戶口, 家譜, 世職族譜, 봉록 및 전랑에 관한 기록 등 기인의 世系를 담고 있는 족보 형태의 기록과 더불어, 鄉試錄 會試錄 進士登科錄 小金榜과 같은 과거시험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秋審題本 京察冊 등 기인의 사법 판결에 대한 기록이 있다. 邱源媛의 「清代旗人戶口冊的整理於研究」(『歷史檔案』3, 2016, 130쪽) 참고, 본고에서는 당안의 다양한 기록 중 世系圖를 포함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김준영, 「清 中期 만주족장의 니루(牛錄)관리」, 『만주연구』31, 2021, pp. 47-49

12)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4, 「正白旗滿洲查送佐領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그림-1>同治二年，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sup>13)</sup>

Ex1)		一戶
	妻	騎都尉加一
二名口	那氏	雲騎尉佐領
		郎宗盛
	年24歲	食俸餉五年
		年26歲
		父
		故
		佐領
		菩薩保
		祖
		參領
		恒齡

郎宗盛 좌령의 戶口冊에는 총 67戶의 戶籍 자료가 포함되었다. 각 호의 평균 인원 수는 3.89명으로 당시 旗人家구 구성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의 <그림-1>처럼 戶口冊의 첫 장은 좌령 郎宗盛의 호구에 대한 기록이다. 戶口冊의 내용 구성은 戶主의 성명, 나이, 직함, 봉록을 받은 기간, 祖·父의 직책 및 성함, 처의 姓과 나이 그리고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의 이름과 연령 등이었다. 또 호구책의 말미에는 보조금을 받는 과부, 孤兒 등도 따로 한 戶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sup>14)</sup> 이처럼 족장이 좌령을 통해 팔기에 보고한 戶口冊은 단순히 좌령에 소속된 戶口의 인원수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한 戶를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 더 나아가 구제 대상인 과부 및 고아 호구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었다.

한편 만주인은 입관 전 세운 군공에 따라 니루의 좌령직을 世襲 할 수 있었다. 이러한 世職은 만주인들이 지배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었다. 따라서 각 宗族에서는 세직으로 인해 왕왕 분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청조는 개별 사안에 대한 旗人 신분 검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좌령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官方 족보가 필요하였다.

## (2) 官에서 직접 편찬한 官方 족보

이상 민간의 족보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清代譜牒檔案> 이외에 청조가 직접 편찬한 대표적인 官方 족보가 바로 『八旗滿洲氏族通譜』(이하 『通譜』)이다. 『通譜』의 편찬은 옹정 13년(1735)에 시작하여 건륭 9년(1744)에 완성된 사업으로 만주인의 기원 의식과 정체성 함양을 위해 편찬되었다. 『通譜』에는 645가지 성씨가 수록되었고, 이들 성씨 유래는 女真, 蒙古, 朝鮮, 漢人 등 다양한 種族 출신이었다. 『通譜』에 수록 기준은 시기적으로 입관 전·후 팔기에 入旗한 자들이었다. 구성은 瓜爾佳氏를 시작으로 여진, 몽골, 朝鮮人, 漢人 순으

13)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2,「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中國第一歷史檔案館.

14) “一戶，食孤寡錢糧，王氏，年三十四歲，已故養育兵，李永之妻。”

로 기록하였다. 同姓 간의 구분은 지역을 단위로 분류하였고, 각 성씨 하에는 3품 이상의 관직이나 세직을 갖고 있는 자는 별도로 전기를 만들었다. 전기에는 자손의 이름과 관직이 기재되어 宗族의 후손들의 본 종족의 유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通譜』에 포함된 姓氏 구성을 통해 당시 청조 통치자가 인식한 '만주인'의 범주는 여진인 출신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種族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만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청조 통치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관 후 상당수 만주인들은 漢文化의 영향 속에서 점차 漢文化를 수용하여 모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작명문화에도 반영되었다. 가령 만주인 족보의 序文을 보면,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宗族의 항렬자(돌림자)를 정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2~5字 등 다양한 형태의 만주 姓氏도 漢人 姓氏 문화를 모방하여 한 글자로 변경하였다. 건륭제는 만주인의 성씨가 漢人과 유사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건륭 57년 대학사 阿桂에게 『欽定八旗氏族通譜輯要』(이하 『輯要』)를 편찬하게 하였다.

팔기만주의 성씨는 대부분 複姓으로 두 글자에서 3~5글자까지 다양합니다. 줄곧 漢人과 같은 한 글자 姓이 없었습니다. 본래 만주인의 선조들은 장백산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 姓氏의 기원을 살펴보면, 거주하고 있는 산천을 성으로 삼거나 혹은 어떤 사물을 만나거나 어떤 기록할 만한 상서로운 자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이동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대대로 지켜왔고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通譜』를 편찬하였을 때……, 그 성씨 유래에 대해 기록한 것은 645개 姓氏 가운데 산천과 지명을 성으로 삼은 36개 姓氏에 그쳤고, 나머지는 註明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만주 姓氏의 원류에 대해 잘 모르는 자가 만주도 마땅히 한 글자 漢姓이 있다고 하여 도종의의 잘못을 답습합니다. 이에 鈕祜祿를 郎氏, 瓜爾佳氏를 關氏로 기록하는 착오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신들은 유지를 따라 『通譜』에 기록된 성씨를 『金史國語解』와 『皇輿圖』에 기록된 지명과 상세히 교열하여 대조하여 모두 일일이 註明 하였습니다. 만주에 귀의한 몽골, 조선, 한인의 성씨도 『通譜』의 범례에 따라 그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16)

이상 阿桂 등이 『輯要』의 序文을 통해 밝힌 본 서의 편찬 목적은 만주인이 본래의 전통을 위배하고 한인과 같은 단성 성씨를 사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阿桂가 밝힌 문제의 원인은 만주인이 자신들의 성씨 유래에 대해 잘 모른

15) 만주인의 多種族 구성에 대해 『通譜』를 주요 근거로 한 연구를 소개하면, 徐凱의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가 있다. 그는 『通譜』에 포함된 다양한 種族 출신의 성씨를 토대로 “만주”를 건주 여진을 주체로 하고, 부근의 다른 여진족과 다른 종족을 융합하여 형성한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보았다. 또한 건륭 연간 편찬된 국가 주도의 족보가 만주의 민족공동체 구성원을 규정하는 法典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였고, 이는 ‘만주정체성(身份認同)’을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16) 『欽定八旗氏族通譜輯要』, (影印本):八旗滿洲姓氏, 多係複姓自二字至三四五字不等, 總無似漢人以單字為姓者, 緣滿洲先世散居於長白山一帶地方, 溯其得姓之始, 或以所居之山川為姓, 或遇事物有可紀祥者因以為姓……, 雖遷移不常, 均世世謹守, 罔敢改易, 從前編纂氏族通譜時……, 或有記載因何得姓者註之六百四十五姓中, 註明以山川為姓, 以地名為姓者僅三十六姓其餘均未註明……, 甚至不知滿洲姓氏之源流者, 即謂滿洲亦當有單字漢姓, 沿陶宗儀之誤而為鈕祜祿姓郎, 瓜爾佳氏姓關錯謬已極……, 臣等欽遵諭旨, 摘取氏族通譜內所載姓氏與金史國語解並皇輿圖所載地名詳細校閱, 均一一註明……, 其附於滿洲之蒙古並朝鮮尼堪各姓, 亦仍照氏族通譜之例附載於後.

다는 점이었고 그 원인은 『通譜』에 성씨 유래가 기록된 사례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阿桂 등은 『金史國語解』와 『皇輿圖』를 이용해 『通譜』에 기록된 645개 성씨의 유래를 모두 고증하여 만주인들이 본래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2. 일반 만주인 족보에 대한 官方 족보의 영향

### (1) 宗族의 世系圖 복원

宗族사회에서 族譜는 집안의 가보로 여겨졌다. 따라서 족보는 제사 이외에는 함부로 꺼내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심지어 宗族이 피난을 떠나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족보를 사수했던 모습이 족보 편찬의 유래에서 왕왕 발견된다. 그러나 국가의 기록물보다 보관 체계가 미숙했던 민간 족보자료는 宗族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동, 전쟁, 각종 재해를 겪는 과정에서 족보 전체 혹은 일부를 소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만주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고, 구조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하기 더 용이하였다. 예를 들면 팔기라는 병민일체 조직의 영향인 데 만주인은 청 조정의 명령에 따라 파견된 駐防으로 이주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만주인은 북경과 주방 혹은 동북 등으로 宗族이 분산되었다.

족보 편찬 유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만주인은 잦은 이동 과정에서 소실된 족보를 복원할 때 官方 족보인 <清代譜牒檔案>을 참고하였다. 이는 官方 족보가 佐領處, 팔기아문 그리고 병부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민간 족보 보다 자료 소실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표-1>족보 편찬 과정에서 <清代譜牒檔案>과 『通譜』를 활용한 사례<sup>17)</sup>

순서	譜名	族譜來源	原籍地
1	瓜爾佳氏花名冊關姓族宗譜書	雍正7年,乾隆59年花名冊	盛京
2	富察氏譜書	復州 鑲白旗衙門檔冊	復州
3	完顏氏譜書-汪氏譜書	舊族譜, 鳳凰城 正白旗衙門檔冊	鳳凰城
4	白氏源流族譜	正黃旗衙門檔冊	岫巖
5	薩克達氏宗譜-薩克達翁氏宗譜	舊族譜, 『通譜』	本溪

이상 <표-1>은 官方 족보를 활용하여 족보를 편찬한 만주 宗族의 사례이다. 먼저 사례 1의 『瓜爾佳氏花名冊關姓族宗譜書』는 성경에서 熊岳駐防으로 파견된 關氏 宗族의 족보이다. 본족은 花名冊을 통해 소실된 世系圖를 복원해 1代孫부터 11代孫까지 기록하였다. 참고한 官方 족보는 옹정 7년(1729)에 작성한 <盛京正紅旗阿三太佐

17)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2016.



領下一戶陳滿洲驍騎校撒哈連(薩哈連)>과 건륭 59년(1794)에 작성된 <一戶另戶陳滿洲原兵永保>이다. 먼저 옹정 7년의 자료는 5代孫 撒哈連의 戶口冊이다. 撒哈連의 戶口 기록을 통해 본족 世系圖를 기준으로 3代孫 薩母哈부터 6代孫까지 족인의 직책, 보유 노비의 숫자까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건륭 59년(1794) 작성된 戶口冊은 薩母哈의 손자 7代孫 永保의 花名冊이다. 건륭 연간 화명책을 통해 본족은 6代孫에서 8代孫까지의 족인의 世系圖를 복원하였다.<sup>18)</sup>

사례 2의 富察氏는 강희 26년 북경에서 復州駐防으로 이주해온 宗族이다. 본족의 족보 편찬 유래를 보면, 먼저 광서 34년(1908) 復州 鑲白旗衙門에 보관되어 있던 戶口冊의 내용을 발췌하였고, 이후 각지에 흩어진 족인들을 방문하여 1948년 『富察氏譜書』를 완성하였다.<sup>19)</sup>

사례 3의 『完顏氏譜書-汪氏譜書』는道光 원년(1821) 7代孫 福明이 편찬하였다. 본족은 關內 族人的 世系에 대한 기억이 7世祖 三仁, 8世祖 思道·思信만 남아 7世祖 三仁을 1世祖로 하는 새로운 世系圖를 작성하였다. 이후 광서 5년(1879) 福明의 손자 桂祥(9代孫)이 족보를 증수할 때 옛 족보와 鳳凰城駐防의 檔冊을 참고하여 족보를 완성하였다.<sup>20)</sup> 끝으로 사례 4의 『白氏源流族譜』는 광서 8년(1882) 족인 景亮이 岫巖駐防의 正黃旗衙門檔冊을 이용해 족인의 世系圖를 만들었다.<sup>21)</sup>

『通譜』는 건륭 9년 이전의 기록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였지만, 『通譜』 또한 유실된 족인의 世系圖를 고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먼저 사례 5의 『薩克達氏宗譜-薩克達翁氏宗譜』의 사례를 살펴보면, 薩克達氏 宗族에는 본래 滿文으로 작성된 『薩克達氏世譜』가 있었다. 그러나 만주인들의 만주어 구사 능력이 쇠퇴하여 滿文 족보를 읽을 수 있는 족인이 적어졌다. 이에 동치 8년(1869) 만문 족보를 漢文으로 번역해 족보를 재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족은 『通譜』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초 官職에 있었던 족인에 대한 내용을 족보에 기입하였다.<sup>22)</sup> 이처럼 만주인은 옛 족보가 소실되거나 오랜 기간 단절되어 宗族의 世系를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官方 족보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였다.

## (2) 만주족 장백산 발상지 인식의 확산

족보 序文에는 족보 편찬의 필요성, 宗族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다. 종족의 유래에서 고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宗族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때 만주인들은 『通譜』와 『通譜』를 편찬해 작성한 『輯要』와 같은 官方 족보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輯要』의 편찬 동기가 만주인들이 자신들의 성씨의 유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通譜』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당시 만주인들이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通譜』 내용

18)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瓜爾佳氏花名冊關姓族宗譜書」, 2016, pp.98-104

19)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富察氏譜書」, 2016, p.460

20)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完顏氏譜書-汪氏譜書」, 2016, p.509

21)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白氏源流族譜」, 2016, p.601

22) 何曉芳主編, 『選輯』上冊, 「薩克達氏宗譜-薩克達翁氏宗譜」, 2016, p.588

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輯要』의 내용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通譜』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신 기오로(Aisin gioro, 愛新覺羅) 성씨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아이신 기오로: 삼가 실록을 살펴보니, 장백산의 동쪽에 부쿠리 산이 있고 산 아래 불후리 호수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녀가 이 호수에 내려와 규칙을 여기고 붉은 과일을 삼켰는데……<sup>23)</sup>

이상 『輯要』에 기록된 아이신 기오로씨의 유래는 누르하치의 실록인 『清太祖武皇帝實錄』에 기록한 삼선녀 설화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삼선녀 설화는 소략하면 퍼쿨런(佛庫倫)이 붉은 과일을 먹고 곧바로 한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이신 기오로씨의始祖 부쿠리 용손(Bukuri yongšon, 布庫里雍順)이라는 내용이다.<sup>24)</sup> 청조는 개별 만주인들의 성씨 유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輯要』에 황실의 성씨 유래를 포함시킨 연유를 분석해 보면,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명칭)’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輯要』와 『清太祖武皇帝實錄』에 기록된 삼선녀 설화의 서두에서 청 시조의 탄생지인 불후리 호수가 장백산(백두산의 중국명칭)의 동쪽에 위치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輯要』의 경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서문에 “본래 만주인의 선조들은 장백산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여 장백산을 만주인의 발상지화 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輯要』에만 보이는 것이 아닌, 『輯要』를 편찬한 阿桂의 또 다른 관찬서인 『欽定滿洲源流考』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만주에 대해 조사해 보니 만주는 본래 부족의 명칭이었다. 발상지에 대한 기록을 삼가 고증하니 장백산의 동쪽에 부쿠리 산이 있고 그 아래 호수를 ‘불후리’라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sup>25)</sup> 이상 청조의 기록물을 검토해 보면, 청조 통치자가 장백산을 황실의 발상지로 만들었고 후에 전체 만주인의 발상지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阿桂等, 『欽定八旗氏族通譜輯要』(影印本): 愛新覺羅, “恭查實錄, 長白山之東有普庫里山, 下有池曰布爾湖里, 相傳有天女降池, 畔吞朱果…….”

24) 『清太祖武皇帝實錄』 卷1 (北京故宫博物院 排印本): 만주는 원래 장백산의 동쪽 布庫里山 아래 布爾瑚里 호수에서 기원하였다. 처음에 하늘에서 세 명의 선녀가 목욕하기 위해 호수에 내려왔다. 첫째 잉글런(恩古倫), 둘째 정굴런(正古倫), 셋째 퍼쿨런(佛庫倫)이다. 목욕을 끝내고 언덕에 올라왔는데 신령한 까치가 붉은 과일을 물어와 佛庫倫의 옷 위에 두었다. 佛庫倫은 그 색이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워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입에 머금고 옷을 입었는데 그 과일이 복중으로 들어가 곧바로 임신한 느낌을 받았다.(滿洲起於長白山之東北布庫里山下一泊, 名布兒湖里, 初天降三仙女浴於泊, 長名恩古倫, 次名正古倫, 三名佛古倫, 浴畢上岸, 有神鵲銜一朱果, 置佛古倫衣上, 色甚鮮妍, 佛庫倫愛之不忍釋手, 遂銜口中, 甫著衣, 其果方腹中, 即感而成孕)

25) 阿桂等, 『欽定滿洲源流考』 第1卷, 「部族1」, 乾隆刻本: 滿洲按滿洲本部族名, 恭考發祥世紀, 長白山之東, 有布庫哩山, 其下有池, 曰布勒瑚哩.



- A: 불후리 호수(bolhori omo)
- B: 부쿠리 산(bokori alin)
- C: 처허더성(cehede hoton, 徹赫德城)
- D: 흑룡강 역참(sahaliyan ulai giyamun)
- E: 머르겐성(mergen hoton, 墨爾根城)
- F: 지린성(girin hoton, 吉林城)
- G: 호이과성(hoifa hoton, 輝發城)
- H: 여허성(yehe hoton, 葉赫城)
- I: 장백산(amba šanggiyan alin)

<그림-2>清廷三大實測全圖集—康熙皇輿全覽圖

그렇다면 불후리 호수를 장백산 인근으로 기술한 것은 청조의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먼저 천총~순치 연간 편찬된 『清太祖武皇帝實錄』에 나타나는 장백산의 지리적 설명을 살펴보면, 장백산에서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 등이 발원한다고 기술하였다.<sup>26)</sup> 이는 장백산과 부쿠리 산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실수가 아닌, 장백산을 자신들의 발상지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수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림-2><sup>27)</sup>의 『康熙皇輿全覽圖』에 표기된 불후리 호수(A)의 위치를 살펴보면, 흑룡강 역참(D) 동남쪽 부쿠리 산(B) 건너편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sup>28)</sup> 즉 불후리 호수(A)와 장백산(I)은 지금의 흑룡강성과 길림성 남북단에 위치해 전혀 지리적으로 전혀 인접한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清太祖武皇帝實錄』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을 마치 하나의 장소처럼

26) 『清太祖武皇帝實錄』卷1(北京故宮博物院 排印本). “長白山高約二百里, 周圍約千里. 此山之上有一潭, 名他們, 周圍約八十里. 鴨綠 混同 愛濤三江俱從此山流出. 鴨綠江自山南瀉出, 向西流, 直入遼東之南海. 混同江自山北瀉出, 向北流, 直入北海. 愛濤江向東流, 直入東海. 此三江中, 每出珠寶. 長白山山高地寒, 風勁不休, 夏日, 環山之獸俱投憩此山中. 此山盡是浮石, 及東北一名山也.”

27) <그림-2>는 汪前進·劉若芳가 정리한 『清廷三大實測全圖集—康熙皇輿全覽圖』(外文出版社, 2007)를 이용해 편집하였다.

28) 불후리 호수의 현재 위치에 대해 이훈은 『康熙皇輿全覽圖』에 표기를 통해 러시아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 인근이라고 하였다. (이훈,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東洋史學研究』126, 2014, pp.253-254 참고)

묘사하였다. 심지어 강희~건륭 연간 편찬된 『淸太祖高皇帝實錄』은 한 발 더 나아가 “선조들은 장백산에서 발원하였다.”<sup>29)</sup>라고 명시하여 장백산을 청 황실의 발상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청조 통치자의 ‘장백산 만주족 발상지 만들기’는 官方 족보 및 관찬서를 통해 일반 만주인의 발상지 및 宗族 유래에 대한 서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2> 舊滿洲 족보 사례<sup>30)</sup>

순서	譜名	장백산 발원설	入關에 대한 기억
1	那拉氏宗族	那拉氏原籍長白山，地名揮發(輝發)，時我祖昆季九人居岱山，各以貝勒稱。	我二世祖兄弟從龍燕京，定鼎為大清順治元年。
2	葉赫那拉氏族譜	始祖概吉公，世居葉赫近長白山邊，受姓那拉，隸鑲黃旗下	我曾祖概吉，順治元年從龍入都，本支仍居葉赫。
3	鑲黃旗滿洲鈕祜祿氏紅毅公家譜	我鈕祜祿氏，世居長白山，夙推望族。	
4	馬佳氏族譜	我馬佳氏系出長白山，為滿洲望族。	
5	福陵覺爾察氏譜書	溯自祖索爾火，於明世中葉，遷於長白山覺爾察地方，賤踐土而居，因以為氏。	迨順治元年奉旨，命辦布理之長子達喀穆，次子他察均著看守福陵外，其餘從龍入關，因差而駐防焉。
6	永陵喜塔腊氏譜書	明世中葉，遷於長白山喜塔腊地方，踐土而居，因以為氏。	迨順治元年，除二世祖都理金子孫，仍命護守福陵外，其念從龍入關，因差而分駐防焉。
7	索綽羅氏譜書	回溯我先祖自長白山，隨我太祖高祖皇帝創業，東方乾坤一統。	自長白山遂龍到京，又自京撥往盛京以來，相傳九世矣。
8	專圖呢嗎察氏族譜	惟我族祖白山榆樹溝地方，因以榆(滿語尼嗎察之漢譯)字為姓。	
9	富察氏譜本	竊恩我們富察氏系出長白山，為滿洲族。	自原始祖、二始祖、三始祖，隨龍崛起從征，大清肇基，王跡佐命。
10	白氏源流族譜	我白氏滿洲人也，北有長白是吾故里。	至順治定鼎燕京，吾白氏從龍入關。
11	章佳氏族譜	章佳始祖穆都巴顏，昔在長白山鄂磨合索洛處。	
12	長白山地方瓜爾佳氏譜書	本支始祖胡瞻，世居長白山渾同江東岸訥音江。	其孫安崇阿，從龍入關。

29) 『淸太祖高皇帝實錄』卷1, 癸未歲至甲申歲: 先世發祥於長白山。是山，高二百餘里，綿亘千餘里，樹峻極之雄觀，萃扶輿之靈氣。山之 上，有潭曰闕門，周八十里，源深流廣，鴨綠 混同 愛濤三江之水出焉。鴨綠江自山南西流 入遼東之南海。混同江自山北流入北海。愛濤江東流入東海。三江孕奇毓異，所產珠璣珍貝 為世寶重。其山風勁氣寒，奇木靈藥應侯挺生。每夏日，環山之獸畢棲息其中。山之東，有布庫里山，山下有池，曰布爾湖里。”

순서	譜名	장백산 발원설	入關에 대한 기억
13	蓋州瓜爾佳氏宗譜書	我瓜爾佳氏先祖發祥長白山二道溝, 後建州女真興起, …投奔努爾哈赤.	於順治元年從龍入關, 駐防與北京草帽胡同.
14	舒穆祿氏家譜	祖籍長白山, 後南遷至庫爾喀地方	於順治元年從龍入關, 為清朝定鼎中原, 平定三藩之亂, 立下汗馬功勞.
15	趙府譜書家譜	趙氏原籍長白山二道溝人, 滿語姓氏蘇某力哈拉.	順治元年蘇某力哈拉先人, 隨順治帝進關.
16	瓦湖木伊爾根覺羅氏宗譜	始祖嘉論色, 居住長白山滿洲部忠義處.	於順治元年定鼎, 順天籍駐京, 陳滿洲正白旗.
17	佛滿洲正白旗金州東門外瓜爾佳氏宗譜	我祖輩世代相傳, 先祖發祥於長白山五道溝.	一世祖雅思哈於順治元年從龍入關, 分駐於朝陽門內鑲白旗界, …草帽胡同.
18	滿族鑲藍旗常氏家譜	滿族常氏, 發祥長白山…, 老姓薩克達氏.	據老人口碑資料, 於順治年間從龍入關, 曾參加平定三藩之亂.
19	鑲白旗佛滿洲瓜爾佳氏宗譜	先遠祖先居長白山五道溝.	
20	赫舍里王氏族譜全書	嘗考我始祖索羅委系陳滿洲族也, 本姓赫舍里氏, 原籍寧古塔屬, 世居長白山北麓.	
21	易穆查氏宗譜書	余楊氏(易穆查氏的漢姓) 原系長白山也.	柒. 某父母兄長弟六人, 原滿洲駐防兵, 從世祖入關.
22	鑲藍旗滿洲打牲烏拉伊爾根覺羅氏宗譜	我伊爾根覺羅氏, 滿洲之望族也, 自前明時, 即於我太祖皇上同居於長白山北分水嶺西.	至於順治元年, 寶定順天, 二年間…, 彼氏我始祖二弟, 隨龍進京.

이상 <표-2>는 舊滿洲人の 종족 유래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집단기억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宗族의 入關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장백산을 宗族의 발상지로 기억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종족의 入關에 대한 기억은 입관 전 팔기에 입기 한 과정 및 군공, 순치제와 함께 입관 후 내륙 통치 안정을 이루는 데 세운 攻績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령 사례 14의 舒穆祿氏는 순치제를 따라 입관하여 중원 정복에 공을 세웠고 또 삼번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이 있음을 기록하였다. 사례 22의 伊爾根 覺羅氏는 본족이 누르하치와 장백산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청조의 창업 과정에서 일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장백산을 宗族의 발상지로 기억하는 내용이다. 구만주인은 입관 전 수립한 軍功으로 佐領직 등 世職을 보유하고 있었다. 世職 세습을 위해서는 족장이 世職族譜를 작성해 팔기에 제출해야 했다. 즉 세직족보의 편찬 목적이 宗族이 추천한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였다. 따라서 世職族譜의 宗族 유래에 선인들이 수립한 軍功, 청 황

30) 『家譜叢刊·民族卷』 第37冊-44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李林, 『滿族家譜選輯』, 瀋陽: 遼寧出版社, 1988, pp.4-436; 常裕誠·關捷編, 『盛京滿族家譜精編』, 北方文藝出版社, 2007, pp.1-461; 張德玉, 『遼寧滿族家譜選輯』, 遼寧民族出版社, 2012, pp.3-205.

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장백산 발상지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상 <표-2>의 22가지 족보 사례에서 同姓을 제외하면 총 17가지 성씨가 제시되었다. 同姓 집단도 사례 1은 적관이 호이파(Hoifa, 輝發)인 那拉氏이고 사례 2는 여허(Yehe, 葉赫)로 同宗이 아니다. 사례 12·13·17·19의 과얼자씨(Guaerjia, 瓜爾佳氏), 사례16·22의 이르건 기오로씨(Irgen gioro, 伊爾根 覺羅氏) 또한 동성이지만 서로 적관이 달라 同宗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장백산을 자신들의 발상지로 기록한 宗族은 훨씬 많겠지만, <표-2>의 사례로 한정해도 異宗 포함 17가지의 성씨가 장백산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장백산에서 발원했다는 인식은 허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농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허구를 기록하는 방법이 청 황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가령 사례 1의 나라씨는 “나라씨의 원적은 장백산이고 그 지명은 호이파다.”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호이파(hoifa, 輝發)는 옛 해서 4부 중 하나인 호이파부(hoifa aiman, 輝發部)를 의미한다. 위치는 대략 <그림-2>의 지린성(F) 남쪽 호이파성(G) 인근이다. 즉 본족은 장백산(I)에서 약 150km 떨어진 호이파를 마치 하나의 장소처럼 기록하였다. 다음 사례 2의 여허 나라씨는 “시조 개길공 이래 대대로 여허 인근의 장백산 근처에 살았다.”라고 하였다. 여허 역시 해서 4부 중 하나인 여허부(Yehe aiman, 葉赫部)를 지칭한다. 위치는 대략 <그림-2>의 지린성(F) 남서쪽에 있는 여허성(H) 인근이다. 즉 본족 또한 장백산(I)에서 약 340km 떨어진 곳임에도 이곳이 마치 장백산 기슭에 위치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宗族의 발상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짜 발상지와 장백산을 교묘하게 일치시킨 것은 구만주인 역시 장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가보다는 장백산이 실제 자신들이 발상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황실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청 황실의 발상지 서술을 따라 기록한 것이다.<sup>31)</sup>

### Ⅲ. 청대 만주인 족보의 특징과 족보의 공적 기능

#### 1. 滿漢合璧 족보의 유형

漢人 족보와 대조하여 만주인 족보에서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滿文이라는 고유문자 사용이다. 전근대 시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보편화된 공용문자는 한자였다. 따라서 중국 역대 왕조와 주변의 국가들은 한자를 통해 서로 교류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북방 민족에게 한자는 익히기 어려웠고 자신들의 언어와 어순이 달라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찍이 거란, 위구르, 여진, 몽골인 등은 고유문자를 창제하였다. 특히 요·금·원 등 정복왕조의 문자 창제는 실용적 의미를 넘어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였다. 후금(청조) 역시 누르하치가 자신들의 언어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무권점 만주 문자를 만들게 하였다. 이후 흥타이지 시기 무권점 문자의 문제점을 개선한 유권점 만주문

31) 만주족 족원 기록에서 장백산 발상지인식에 보이는 허구성을 지적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定宜莊·胡鴻保, 「從族譜編纂看滿族的民族認同」, 『民族研究』6, 2001, p.61; 楊子忱, 「滿族譜牒文化與長白山淵源」, 『東北史地』9, 2002.

자를 만들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滿文 창제로 만주인들은 이전과 달리 몽골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고, 몽골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문자를 통한 기록이 가능해졌다. 물론 족보는 입관 후 보편화되어 만주인들의 滿文 능력이 쇠퇴한 상황으로 인해 漢文으로 작성된 족보가 많았다. 그렇지만 모든 족보가 한문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고 상당수 만주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滿文 족보를 편찬하였다. 또한 만문 족보의 편찬은 청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만주 宗族은 청조 멸망 후에도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여전히 만문 족보를 편찬하였다. 滿文 족보는 청대 官文書처럼 純滿文, 滿漢文合璧 형태로 작성되었다. 滿漢文合璧 족보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滿文과 漢文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만한병기는 漢文合璧 서적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병기하는 방법은 滿文을 먼저 적고 滿文 행간에 漢文으로 번역한 내용을 적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만문과 한문을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만문과 한문의 어순이 달라 직역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한문의 내용이 간소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滿文을 기록하는 하는 방향이 漢文과 반대이기 때문에 한문서적에 익숙한 만주인에게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滿文과 漢文이 대칭을 이루도록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석, 편액 등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滿文과 漢文을 대칭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문자의 작성 방법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지하듯 漢文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성한다. 반면 滿文은 이와 반대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방식의 漢文合璧 족보는 두 문자의 작성방법에 따라 왼쪽에는 만문을 오른쪽에는 한문을 기입하였다.

만주인 족보는 송대 이래 다양한 체제를 갖춘 족보 이외에 世系圖만 기록한 譜單 형태의 족보도 다수 존재하였다. 譜單 형태의 족보는 긴 천이나 종이에 기록하는 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滿文을 작성하고, 반대편 오른쪽 끝에서 왼쪽 방향으로 漢文으로 작성해 가운데에서 만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진-1>『寧古塔地方正黃旗管下陳滿洲傅查氏全戶敬修之宗譜系』<sup>32)</sup>

이상 『寧古塔地方正黃旗管下陳滿洲傅查氏全戶敬修之宗譜系』는 중화민국 15년(1926)에 증수한 것으로 길이가 약 30미터에 이르는 譜單 형태의 족보이다. 먼저 본족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始祖 戴先은 본래 장백산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琿春에서 訥音江(지금의 吉林省 撫松縣 일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입관을 계기로 戴先의 네 아들 중 倭珠와 倭和訥은 황제를 따라 입관 하였고, 鈕恒額과 托西訥은 烏拉로 이주하여 烏拉街富察(傅查)氏가 되었다. 이 중 倭珠의 후손인 6代孫 卡特瑚가 다시 寧古塔로 이주하여 寧古塔 富察氏의 시초가 되었다. 본 족보는 卡特瑚를 시천조로 하는 족보로 民國시기에 증수된 것이지만, 청대 滿漢合璧 족보 편찬 문화를 계승하였다. 즉 족보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만문으로 작성하였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은 한문으로 작성하였다. 세계도는 족보 편찬 당시 生者와 死者를 구분해 生者는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死者는 검은색으로 기록하여 구분하였다.

## 2. 譜名 표기에 나타난 만주인 족보의 특징

일반적으로 漢人족보의 譜名에는 시천조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地名인 積관이 포함되어 宗族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만주인도 족보의 譜名에 시천조의 積관을 표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령 앞서 『寧古塔地方正黃旗管下陳滿洲傅查氏全戶敬修之宗譜系』에서 寧古塔라는 지명의 그 예이다. 譜名에 시천조의 거주지인 積관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 『訥音富察氏增修支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로부터 우리 만주 성씨는 장백산 일대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漢姓이 없었고 각자

32) <사진-1>『寧古塔地方正黃旗管下陳滿洲傅查氏全戶敬修之宗譜系』는 필자가 黑龍江省 海林市 楊林村에 거주하는 寧古塔 富察氏 족장의 집에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족장의 집에는 족보 이외에 시조 戴先과 시천조 卡特瑚의 묘비석이 세워져있다.



지명을 따서 성으로 삼았다. 후에 하나의 성씨가 여러 지명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대개 형제 몇 명이 사방에 건립하여 거처를 찾아 무리를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세월이 오래 되어 단절되었고, 각자 현재 거주하는 지명을 본래 성씨의 적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同姓이지만 同宗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sup>33)</sup>

이처럼 만주인도 혈연집단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분화되었고, 지연을 기반으로 한 직계혈족은 다른 동성 집단과 구분을 위해 시천조의 거주지를 적관으로 삼아 기록하였다. 이처럼 적관을 적시하는 목적은 同宗과 異宗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인 족보의 譜名은 적관 이외에도 만주사회에서의 계층 구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宗族을 분별하는 목적에서의 적관도 지명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팔기라는 특수한 사회제도와 결합되어 만주인만의 적관 표기 형태도 나타났다.

<표-3> 만주인 족보의 譜名 유형<sup>34)</sup>

순서	譜名	籍貫地	階層(種族)
1	京都吉林寧古塔三姓等處鑲黃旗陳滿洲關姓宗譜書	寧古塔	舊滿洲
2	鑲黃旗佛滿洲哲金佐領下王氏譜書	岫巖	舊滿洲
3	錦州料理莊糧事務衙門陳莊頭家譜	大凌河	舊滿洲
4	福陵覺爾察氏譜書	盛京	舊滿洲
5	佛滿洲正白旗金州東門外瓜爾佳氏宗譜	金州	舊滿洲
6	鑲白旗佛滿洲瓜爾佳氏宗譜		舊滿洲
7	佛滿洲佟佳氏全譜	興京	舊滿洲
8	吉林成氏家譜-正黃旗漢軍吉林成氏家譜	烏拉	新滿洲(漢人)
9	烏拉氏族譜-盛京鑲藍旗西昂邦牛錄下烏扎拉氏族譜	盛京	新滿洲
10	瓜爾佳氏家世錄-伯都訥錫伯人奉派遼陽駐防	遼陽	新滿洲(錫伯人)

#### (1) 新·舊滿洲 표기를 통한 정체성 표출

청대 '滿洲'는 種族 명칭이자 新·舊滿洲와 같이 만주사회에서 계층을 구분하는 의미로도 활용되었다. 입관 후 청조는 팔기에 입기 한 시기에 따라 입관 전 팔기에 입기 한 집단은 舊滿洲, 입관 후 팔기에 입기 한 집단은 新滿洲로 구분하였다. 입관을 기준으로 한 新·舊滿洲의 구분은 旗分, 소속 니루, 旗籍과 달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정 불변의 사회적 관념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실제 청조 통치자는 舊滿洲人을 만주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지위를 보호

33) 何曉芳主編, 『清代滿族家譜選輯』上冊, 「訥音富察氏增修支譜」, 2016, 444쪽; 顧我滿洲人氏, 始基於長白山一帶, 原無漢姓, 各指其地而姓之. 後又有一姓而各分著地名者, 要其本始, 大抵兄弟幾人, 四方建業, 離群索處, 日久年湮, 遂各以現居之地名而貫以原錄之姓氏, 而姓之同姓不同宗之說因而起.

34) 常裕鉞·關捷編, 『盛京滿族家譜精編』, 北方文藝出版社, 2007; 何曉芳主編, 『清代滿族家譜選輯』上下冊,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 遼寧民族出版社, 2016

하기 위해 더 많은 관직 등용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특히 세관좌령<sup>35)</sup>과 같은 팔기의 세직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舊滿洲人の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sup>36)</sup>

구만주인도 만주사회에서 자신들의 구정체성을 표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족보에 入關에 대한 기억, 장백산을 기원지(발상지)로 기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구만주인은 譜名에 '舊滿洲'를 포함시켜 만주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지위 및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가령 <표-3>의 사례1·3·5 종족은 적관과 佛滿洲(혹은 陳滿洲)<sup>37)</sup>를 병기하였다. 한편 만주사회에서의 신분지위를 더 강조한 사례도 있는데 사례 7은 적관을 생략하고 佛滿洲만 기록하였고, 사례 3의 『錦州料理莊糧事務衙門陳莊頭家譜』는 譜名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성씨 대신 팔기에서의 신분인 陳莊頭(老圈莊頭)를 기재하였다.<sup>38)</sup>

구만주인 이외에 <표-3> 사례8·9·10의 신만주인 譜名을 살펴보면, 신만주인은 구만주와 달리 譜名에 新滿洲를 기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족보에 구태여 자신들이 만주사회에서 낮은 계층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만주 족보의 족보 명칭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족원 기록에 나타나는 多元的 정체성의 특징이 좀 더 강조된다. 가령 사례 11의 瓜爾佳氏 종족은 본래 錫伯人으로 순치 8년(1651) 만주정백기에 편재되어 遼陽駐防으로 이주하였다. 본족은 譜名에 자신들이 본래 種族 정체성인 錫伯人을 명시함과 동시에 만주인의 대표 성씨인 瓜爾佳氏를 사용하는 多元的 정체성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 (2) 八旗에 소속 정보를 통한 적관 대체

이상 <표-3> 1·2·5·6·8·10의 新·舊滿洲 종족에 보이는 특징은 譜名에 팔기의 旗分을 명시한 점이다. 이 중 사례 2와 사례 10은 팔기의 旗分과 소속 니루까지 표기하였다. 특히 사례 2의 王氏 종족은 적관을 나타내는 地名을 제외하고 팔기의 소속 정보만 기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譜名에 적관을 적은 이유는 同宗과 異宗을 구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 2의 宗族이 팔기 소속 정보만을 기록한 것은 팔기의 소속 정보가 적관을 대신해 同宗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보임을 의미한다.

35) 청대 좌령직을 세습하는 니루를 일반적으로 世管佐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니루의 구성원에 따라 勳舊佐領, 優異世管佐領으로 구분하였다. 世管佐領은 주로 同族으로 구성된 니루를 의미한다. 勳舊佐領은 공신의 노복 혹은 상으로 받은 노복들로 편성한 니루로 공신집안이 좌령직을 세습하는 경우이다. 優異世管佐領은 공으로 호구를 받아 만든 좌령을 의미한다. 張佳生,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瀋陽故宮博物院院刊』10, 2010, pp.7-8

36) 건륭후기 팔기의 니루는 총 1166개였다. 그중 세관좌령은 855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杜家驥 『清代八旗官制與行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p.136 참고)

37) <표-3> 譜名에서 佛滿洲와 陳滿洲는 만주어로 구만주를 뜻하는 퍼만주(fe manju)를 음차한 것이다. 伊切滿洲는 만주어로 신만주를 뜻하는 이체만주(ice manju)를 음차한 것이다.

38) 관내 莊頭旗人은 청조가 입관 후 기보지역의 토지를 권찰할 때 투항한 사람들로 投充旗人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老圈莊頭와 달리 팔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新·舊莊頭의 차이는 만주사회에서 계층적 차이뿐만 아니라 후손의 만주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老圈莊頭의 후손은 조상에 대한 기억에서 “우리는 旗人이다”, “우리는 老罕王(청태조 누르하치)을 따라왔다.” 등 만주정체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新莊頭旗人(投充旗人)의 후손은 그들이 분명 投充한 기록이 있음에도 ‘燕王掃北帶過來’와 같은 한족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억은 분명한 반면, 청대 팔기에 입기했던 기억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新·舊莊頭旗人의 만주정체성 차이에 대한 연구는 邱源媛의 『找尋京郊旗人社會-口述文獻雙重視角下的城市邊緣群體』(北京出版社, 2014年) 참고.

옹정 연간 이래 각 니루 하 만주인의 戶口, 族譜, 世襲職譜를 보관한 官方 족보가 형성되었다. 官方 족보에는 니루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습직의 세습 유래, 호구에 포함된 족인의 구성 및 세계도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만주인은 팔기 소속 정보를 통해 宗族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만주 족장이 제출한 자료가 니루를 단위로 취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譜名에 각 宗族의 적관 보다 오히려 소속된 팔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자료를 취합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주사회가 팔기라는 특수한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譜名을 적는 문화에도 투영되어 나타났다.

### 3. 만주사회의 족보 활용: 八旗 신분 및 世職 증명

앞서 청조 통치자가 官方 족보를 만들게 된 경위로 만주인의 신분 검증과 世職 세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만주사회에서 족보는 宗族 내부에서 통용되는 對內的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공적 결정과정에 필요한 對外的 자료로도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이 청조 통치자가 漢文化에서 유래한 족보 문화를 만주사회에 확산시키게 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宗族 유래의 정치적 서술, 譜名에 나타난 팔기제의 속성 등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만주사회에서 족보가 어떻게 공적인 자료로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전에 정해진 규정을 찾아보니 팔기(기인)가 사사로이 출기하여 民人이 된 자는 만약 그 근원이 불분명하고 旗와 民 양쪽에서 고증할 사람이 없으면 민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張有의 아버지 牛喜斌는 당시 족장(牛世秀)이 보고하지 않아서 丁冊에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족장 黑格이 보증한 족보를 가져와 部에 자문하여 조사한 것에 따르면, 張有의 아버지 牛喜斌은 옹정 연간 丁冊에 기록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본부와 해당 기에서도 모두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족장 黑格이 수결하여 보고한 지금 만든 족보 한 장만으로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黑格의 (원래) 족보에도 牛喜斌과 張有의 이름이 없습니다……만약 張有가 진짜 기인이라면 여기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누락된 연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접 내용이 명백하다. 좋다.<sup>39)</sup>

본 당안은 嘉慶 八年(1803) 호부에서 족장 黑格이 족인 長有를 팔기의 호구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을 검토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본 당안을 통해 만주사회에서 기인 신분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때 옹정 연간부터 구축한 官方 족보가 실제

39) 檔號:05-13-002-000520-0035, 「為正白旗常申佐領下閑散長有遺漏丁冊咨送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抄單事致內務府等」, 戶部, 嘉慶八年二月, 中國第一歷史檔案館:“因前來查定例,八旗私出為民人等,如根底不清,旗民兩無可考者,即行壯入民籍等語……,長有之父牛喜斌,因該族長並未結報,是以尚未入過丁冊,取具族長黑格結家譜咨部查辦等語,查長有之父牛喜斌,即於雍正年間並未入冊,迄今數十年本部該旗均無案據何查,茲僅據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一紙均難為憑,且查黑格家譜內亦無牛喜斌及長有名字……如長有寔系旗人,此外另有確寔根據,亦應由該旗自行查明遺漏緣由,奏明可也.”

旗人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長有의 사례처럼 족보에서 누락되면 기인 신분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족장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 수결 된 족보 혹은 戶口冊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였다. 즉 기인 신분을 입증하는 데 족보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좌령직의 세습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세직족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다. 옹정 9년 原管佐領·世管佐領과 같은 좌령직을 세습하는 좌령의 경우 반드시 世職族譜(佐領冊 등)를 제출하게 하였다. 세직족보에는 니루 설립 경위, 니루에 속한 사람들의 유래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고, 니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적고 이름 밑에 수결을 받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세직족보는 세 권을 필사하여 팔기아문·병부·좌령에 보관하여 훗날 검증에 대비하도록 하였다.<sup>40)</sup> 이처럼 공문서화된 족보는 宗族 내부에서 임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 태어난 족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족장이 추가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보증하여 보고하면, 참령 이하 니루의 관리들이 모두 검토하고, 그 진위에 대해 함께 보증하면 비로소 수정이 이루어졌다.<sup>41)</sup> 이처럼 官方 족보는 그 자료의 출처는 민간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관리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이 흡사 官에서 작성한 공문서와 같았다.

이상 청조의 세습족보 작성 규정이 실제 만주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一史館에 소장된 <清代譜牒檔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正白旗滿洲查送佐領冊(雍正 12年)」, 「鑲黃旗漢軍四甲喇呈報道光三年分五個佐領下世職家譜大檔清冊」 등 세직족보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공통된 내용 구성이 포함된다.<sup>42)</sup> 먼저 서두에는 세관좌령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좌령(니루)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본 종족이 니루로 편성되어 좌령직을 얻게 된 경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 선인들이 수립한 軍功 등에 대한 내용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는 황제가 본 좌령직을 세습하도록 허락했음을 증명하는 諭旨의 원문이 포함되었다. 이후 1代 좌령

40)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75, 「八旗都統」, 「授官」: 雍正九年……遵旨, 議準. 八旗原管佐領·世管佐領, 其原得佐領錄由, 並佐領下人原系何處人, 編入此佐領均核明造冊, 自佐領以下至兵丁·閑散均開列姓氏於本名下畫押, 該旗匯總具奏. 將畫押冊籍鈔錄三本, 一本存本旗公署, 一本存兵部, 一本兵部鈐印交該佐領收貯, 以備稽考.

41) 檔案: 04-02-002-000201-0016, 無題, 漢軍鑲黃旗副都統博第,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hafan sirara baita bici, benjihe giyapu be acabume baicafi jai jedzy suwaliyame wesimbuki, aikabade giyapu benjihe amala banjiha nonggici acara ursei gebu be aniyai dubede isinaha manggi, harangga jalan janggin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se meni meni mukūn i da mukūn i ursei emgi nonggici acara niyalma i gebu be getukeleme baicafi akdulafi benjihe manggi, doron gidaha giyapu i dangse de nonggime arabuki.

朱批: wesimbuhengge umesi encu gūsai ambasa gisurefi wesimbu.”(관직을 세습하는 일이 생기면 보내온 족보를 대조해서 조사하게 하고 또 상주문을 함께 보고하게 합니다. 만약 족보를 보낸 이후 태어나 마땅히 추가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말이 되면 관할 참령, 니루의 좌령, 효기교들, 각자의 족장, 무쿰의 사람들과 함께 추가하는데 적합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조사한 후, 보증하여 보내오면 인장을 찍은 족보에 추가하여 기입하게 해주십시오. 朱批: 주접한 것 아주 특별하다. 기의 대신들과 논의해서 주접해라.)

42)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4, 「正白旗滿洲查送佐領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32, 「鑲黃旗漢軍四甲喇呈報道光三年分五個佐領下世職家譜大檔清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이밖에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33; 縮微號:B040의 세직족보 관련 부분 참고.

부터 좌령직이 세습된 경위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좌령직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족인의 世系圖를 첨부하였다. 마지막은 이상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과 佐領·驍騎校·領催·族長の 수결이 포함되었다. 일부 세습족보에는 족인 모두가 해당 후보자가 세습하는 데 동의하고, 후보자의 세습을 추천한다는 글과 더불어 族人的 수결까지 남겼다.<sup>43)</sup> 이상 一史館에 소장된 당안과 <清代譜牒檔案>의 세습족보는 청조 통치자가 족보를 공적인 용도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 IV. 맺음말

만주인의 족보 편찬은 외면적 측면만 보면, 만주인의 漢化로 결론지을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는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族譜는 漢文化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선입관에 의한 성급한 판단이다. 족보가 漢文化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족보처럼 청대 만주인 족보도 자체적인 특수성이 존재한다. 물론 본문에서 언급한 만주인 족보의 여러 특징을 근거로 만주인의 漢化 여부를 판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漢化라는 표현이 한족 중심적인 경향이 농후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차지하더라도, 漢化 여부는 개별성이 강한 문제로 어느 한 측면만 보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족보를 통해 만주인의 한화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만주인에게 족보가 왜 필요하고 만주사회에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만주사회에서 족보는 宗族의 형성과 혈연관계를 유지할 위한 對內的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만주사회에 족보는 公的인 부분과 私的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만주사회에서 족보 편찬 문화의 확산은 官方 족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가령 만주인은 족보 편찬 과정에서 世系圖, 발상지 서술, 宗族 유래 등 족보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에서 官方 족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청조 통치자가 왜래 문화인 족보를 만주사회에 장려한 이유는 족보가 만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조 입장에서 보면, 만주사회의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이 불분명한 기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호구책과 족보라는 민간 자료를 공문서로 만들어 기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만주인 입장에서 보면, 청조의 규정 이외에도 佐領職의 世襲 과정에서의 종족 내부 합의의 필요성, 만주사회 내부에서의 신분계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등의 이유로 족보 편찬이 필요하였다. 한편 족보 편찬 문화가 만주사회로 전래된 이후 족보의 외면적 모습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이 예가 滿漢合璧 형태의 족보이다. 만한합벽 형태의 족보는 만주인의 漢化 혹은 만주인의 독자성만을 강조하는 주장에서 간과되기 쉬운 만주인과 漢人이 공존하며 이룩한 문화적 융합의 측면을 보여준다.

43) <清代譜牒檔案>은 一史館에서만 볼 수 있고, 원문 자료에 대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세습족보의 내용을 본고에 직접 인용하지 못한 부분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家譜叢刊·民族卷』第37冊-44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 『寧古塔地方正黃旗管下陳滿洲傅查氏全戶敬修之宗譜系』  
檔號:05-13-002-000520-0035, 「為正白旗常申佐領下閑散長有遺漏丁冊咨送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抄單事致內務府等」, 戶部, 嘉慶八年二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案: 04-02-002-000201-0016, 無題, 漢軍鑲白旗副都統博第,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常裕鉞·關捷編, 『盛京滿族家譜精編』, 北方文藝出版社, 2007
- 阿桂等, 『欽定八旗氏族通譜輯要』(影印本)
- 李林, 『滿族家譜選輯』, 瀋陽: 遼寧出版社, 1988
- 汪前進·劉若芳, 『清廷三大實測全圖集-康熙皇輿全覽圖』, 外文出版社, 2007
- 張德玉, 『遼寧滿族家譜選輯』,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2
- 『清太祖武皇帝實錄』
- 『清太祖高皇帝實錄』
-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4, 「正白旗滿洲查送佐領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2, 「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32, 「鑲黃旗漢軍四甲喇呈報道光三年分五個佐領下世職家譜大檔清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何曉芳主編, 『清代滿族家譜選輯』上·下冊,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 遼寧民族出版社(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

### 2. 연구서

- 高丙中, 「東北駐屯滿族的血緣組織-從氏族到家族再到家戶的演變」, 『滿族研究』1, 1996,
- 김준영, 「清 中期 만주족장의 니루(牛錄)관리」, 『만주연구』31, 2021
- 杜家驥, 「〈他塔喇氏家譜〉及其所反映的清代東北駐防旗人家族」, 『東北史地』3, 2006
- 杜家驥 『清代八旗官制與行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定宜莊·胡鴻保, 「從族譜編纂看滿族的民族認同」, 『民族研究』6, 2001
- 官嶋博史,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 『大東文化研究』77집, 2012
- 謝肇華,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1, 1993
- 常建華, 「改革開放以來南開大學的中國宗族家族與家庭研究」, 『南開史學』2, 2019
- 常建華, 「明清南方宗族研究的新探索(2015-2019)」, 『中國區域文化研究』1, 2021
- 徐凱,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徐泓, 「“新清史”論爭:從何炳棣、羅友枝論戰說起」, 『首都師範大學學報』1, 2016
- 薛柏成, 「淺論葉赫那拉氏族譜」, 『滿族研究』4, 2001

- 楊子忱, 「滿族譜牒文化與長白山淵源」, 『東北史地』9, 2002
- 이훈,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東洋史學研究』126, 2014
- 趙維和, 「滿洲八旗〈葉赫那拉氏族譜〉研究」, 『滿族研究』2, 2005
- 邱源媛, 『找尋京郊旗人社會-口述文獻雙重視角下的城市邊緣群體』, 北京出版社, 2014
- 張佳生,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瀋陽故宮博物院院刊』10, 2010
- 何海龍,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4, 2002



## 【토론문 5】

### 청대 만주사회의 족보 편찬 문화 전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안광호(고전번역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을 맡게 된 안광호입니다. 우선, 이번 토론을 맡은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만주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준영 선생님께서 본문에서 인용하고 계신 『清代譜牒檔案』, 『欽定八旗氏族通譜輯要』, 『滿族家譜選輯』 등을 일찍이 살펴본 적도 없으며, 만주족의 족보에 관한 연구 성과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은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즉 중국의 보학과 족보 그리고 성씨제도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준영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이 논문은 한국 역사학계에 큰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청대 만주족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주족에 대해 기존에 알지 못하였던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청대 만주족 사회에서 작성된 족보를 분석하여 만주족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중국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본문에서 청대 만주족 사회에서 작성된 족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만주족의 특수 상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주족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통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성행하였던 譜學, 族譜, 그리고 姓氏制度에 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보편성 위에서 청대 만주족 족보의 특성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族譜와 家系圖

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에서는 모두 족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중 양국 사회에서 족보라 불리는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국 사회에서는 ‘家譜’나 ‘宗譜’라는 용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 사회에서는 ‘世譜’, ‘派譜’, ‘大同譜’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양국 사회에서 족보라 불리는 자료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족보들이 始祖라 불리는 인물을 정점에 두고 그 시조로부터 전해져 오는 후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족보는 그 직계를 단선적으로 정리한 가계도, 제가 중국에서는 이런 자료를 무어라 부르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家乘’이라 불리는

단순한 가계도와는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김준영 선생님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본문 6면에서 예시하고 계시는 기록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족보의 일부 내용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족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족보 자체가 그러하다면, 이를 족보라고, 다시 말해 시조로부터 생겨난 후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족보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께서 17면에서 말씀하고 계신 ‘譜單’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족보를 만들기 위해 모으는 單子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收單’이라 불리기도 하구요.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면, 만주족 족보에서 등장하는 ‘보단’은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승’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가승’은 해당인의 직계를 단선적으로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족보와는 다르구요. 만주족 족보에서 ‘보단’이라는 용어가 무얼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2. 始祖와 始遷祖

한국 족보를 살펴보다보면, 始祖와 始遷祖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씨족제도에서 시조라는 인물은 그 씨족 안에서 分籍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절대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하여 시천조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처음으로 입적한 인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해당 씨족 안에 여러 인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入鄉祖’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시조와 시천조의 의미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족 안에서 시조라 불리는 인물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시조가 곧 시천조가 되기도 하고, 시천조를 시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三仙女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시조라 칭하시고, 만주족이 ‘籍貫’으로 칭하는 곳에서 태어난 인물을 시천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주 32번에서는 ‘시조 戴先과 시천조 卡特瑚의 묘비석이 세워져있다’라고 하시면서, 시조와 시천조를 구분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만주족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와 같이 시조와 시천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3. 籍貫과 郡望

적관이라는 용어는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호적이 신고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자신으로부터 다소 가까운 조상이 살았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향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적관이라는 용어를 本貫, 本籍, 鄉籍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용어들에서 등장하는 ‘籍’과 ‘貫’은 모두 호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군망이라는 용어는 적관과는 다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적관이 자신의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자신과 가까운 조상이 살았던 지역을 의미하는 데 비해, 군망이라는 용어는 자신으로부터 먼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살았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망은 한국 씨족제도 상에서 언급되는 본관제도의 '本貫'과 그 의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족보들도 기본적으로 '본관'+ '성씨'+족보(-또는 세보, 파보, 대동보 등등)으로 그 명칭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족보는 한국의 족보와 같이 그 명칭이 엄격하게 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중국 족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준영 선생님께서 미야지마 히로시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하셨던 표현인 '종족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국 족보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씨'+족보(-또는 가보, 종보 등등)로 칭해지지만, 한국 족보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본관을 적관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관으로만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관을 기록하는 것도 때로는 縣名, 때로는 鄉名, 때로는 里名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족보의 명칭은 한국의 본관이 군현 단위의 명칭을 칭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김준영 선생님께서 본문 18면에서 21면까지 언급하셨던 내용은 아마도 만주족 족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중국 사회의 보편성일 수도 있습니다.

#### 4. 한족의 성씨제도와 만주족의 성씨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주족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준영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만주족의 성씨제도와 한족의 성씨제도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족 사회에서 성씨제도가 발전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三代 이전 시기에는 姓과 氏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씨를 통해 신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삼대 이후로 성과 씨를 구분하는 다소 복잡한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과 씨를 합하여 성씨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과 씨를 합하여 성씨라 칭하는 관행이 생겨난 시기에 동일한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地望'(- 곧 郡望)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鄭樵의 「氏族略」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대 이전에는 성과 씨가 나누어져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씨를 칭하고 부인은 성을 칭하였는데, 씨를 통해 귀천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신분이 귀한 자는 씨가 있었고 신분이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가 없었다.……(중략)……삼대 이후로는 성과 씨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모두 혼인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 와서) 地望으로 귀천을 분별하게 되었다.<三代之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婦人稱姓 氏所以別貴賤 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中略)……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 皆所以別婚姻 而以地望明貴賤>

다시 말해, 동일한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김준영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同宗'과 '異宗'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정초의 설명입니다.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18면 각주 33번에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김준영 선생님 논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제 관점에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만주족의 성씨를 살펴보면, 처음에 장백산 일대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한족의 성씨는 없었고, 각기 그 지명을 가리켜 성씨로 삼았다. 그런데 이후에 동일한 성씨가 생겨나게 되면서 각기 지명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처음 시작된 모습을 살펴보면, 형제 몇 명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업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살다가, 각기 현재 거주하는 지명을 쫓아 원래의 성씨 앞에 붙이게 되었다. 성씨는 동일한 성씨인데 종족이 서로 다르다는 말은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만주족 역시 동일한 성씨를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我'와 '他'를 구분할 필요가 생기면서 성씨 앞에 특정 지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만 한족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족 사회에서는 성과 씨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성과 씨가 성씨로 합해지면서 특정 지명을 성씨 앞에 붙이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만주족 사회에서는 성과 씨가 분리되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이 점은 한족 사회에서 성과 씨가 성씨로 합해진 이후에 '중국식 성씨'를 도입하기 시작한 한국 사회와 동일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일전에 만주족의 종족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이 그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지명, 아마도 장백산 일대의 지명을 칭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점이 중국의 군망제도나 한국의 본관제도와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주족에게는 군망제도나 본관제도와 같은 사회적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역사적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그 역사를 마쳐야 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 5. '官方 족보'와 門閥 사회

김준영 선생님께서 4면 하단에서 언급하셨듯이, 중국 역사에서는 관에서 유력 가문의 가계를 관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에서 관리하던 유력 가문 안에서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력 가문의 '門第'에 따라 임용되는 관직의 품계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門閥 士族'이 크게 발달하였던 시기에 더욱 성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송대 이후로는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면서 황실 족보를 제외하고는 私人에 의해 民間에서 만들어진 족보가 유행하게 됩니다.

관에서 유력 가문의 족보를 관리하는 현상은 류쿠에서도 발견됩니다. 저 역시 그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류쿠에

서는 관에서 주도하여 유력 가문의 족보를 편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력 가문의 구성원을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런 류쿠 사회에 대해 신분제가 공고하였던 사회로 인식합니다. 한국의 조선 사회에서는 왕실 족보를 제외하고는 관에서 유력 가문의 가계를 관리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대신하여 조선 사회에서는 『氏族源流』, 『百氏通譜』, 『萬姓大同譜』와 같은 이른바 ‘綜合譜’가 발달하였지요.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종합보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선 사회 안에 존재하였던 유력 가문의 가계를 환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관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족보를 통해 유력 가문을 관리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관에서 유력 가문의 가계를 관리하는 사회에서는 이른바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발전하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점은 만주족 사회에서도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크게 발달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김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에서 편찬한 족보가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 역시 성행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관방 족보’와 ‘만주인 족보’를 서로 대립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관방’과 ‘만주인’은 서로 대립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官撰 족보’나 ‘私撰 족보’ 또는 ‘私人 족보’ 등으로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관방 족보’에 관해 정초가 서술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自隋唐而上 官有簿狀 家有譜系 官之選舉 必由於簿狀 家之婚姻 必由於譜系 歷代並有圖譜局 置郎令史以掌之 仍用博通古今之儒 知撰譜事 凡百官族姓之有家狀者 則上之 官爲考定詳實 藏於祕閣 副在左戶

## 6. ‘二祖’와 ‘三祖’ 그리고 ‘四祖’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6면과 7면에서 ‘戶口冊’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만주족의 호구책에는 ‘父와 祖의 직책 및 성함이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족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려 할 때 ‘三祖’를 기록합니다. ‘삼조’란 父, 祖, 曾祖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조선 사회에서는 ‘四祖’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조란 부, 조, 증조와 함께 外祖를 추가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조선 사회는 동시기 중국 사회에 비해 兩系的인 가계의식이 강하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嫡子와 庶子 그리고 孽子에 대한 차별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죠.

제가 궁금한 점은 만주족에서 자신의 가계를 밝힐 때 ‘二祖’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족 사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만주족 사회에서 가계를 밝히는 방식을 통해 종족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 7. 行列과 排行


항렬자를 사용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족보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렬자를 통해 종족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중국 종족 내에서 '항렬'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항렬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排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 족보에서는 항렬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중국 족보에서는 '배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렬자(-중국 종족에서는 '배항'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족보를 따라 '항렬'이라 지칭한다)' 등으로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김준영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김준영 선생님께서는 본문에서 '항렬자'라는 용어를 몇 차례 사용하셨는데, 만주족 족보에서도 '항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는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愛新覺羅宗譜』에서도 '배항'이라고 칭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더욱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준영 선생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은 중국사 분야에서나 한국사 분야에서 모두 그 의미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문에 대해 제가 주제넘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서야 발표문을 전달 받았고, 발표문을 읽고 나서 토론문을 작성한 시간은 불과 3~4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명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명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 ◎ 일시: 2022년 7월 8일(금) 10:30~17:20
-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ZOOM(ID: 819 8041 8495 / 암호: 107586)
- ◎ 주최: 명칭사학회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됨(NRF-2020S1A6A3A01054082)





